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李美子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지도교수 정 병 설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李美子

李美子の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원장 조 현 설 (인)  
부위원장 김 대 중 (인)  
위원 정 병 설 (인)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장편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과 중국 장편 여성영웅소설 『재생연』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현재까지 한중 여성영웅소설 간의 비교 연구는 주로 단편소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단편소설은 통속성과 대중성이 강하여 장편소설에 비해 여성의식을 진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편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을 대상으로 인물형상의 특징을 밝히고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거두는 효과와 의미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해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양국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재생연』의 여성영웅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효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적영역에 진출하고 일시적으로 무(武)의 영역에서 활약한 뒤 사적영역인 규방으로 돌아가 아내, 며느리로서 살아간다. 이에 반해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재생연』의 맹려군은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공적영역에 진출하고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며 일생에 걸쳐 여성의 삶을 극구 거부한다. 이들은 정체가 밝혀지고 규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공적영역과 연계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점에서 황보장화와 위용아에 비해 장벽계와 맹려군이 여성의 현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인물로 볼 수 있다.

『부장양문록』의 조력자 윤선강은 장벽계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발적으로 동성혼인을 선택한다. 그래서 남성인물과 결혼한 뒤에도 남편의 말보다 장벽계의 말을 따르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와 반대로 『재생연』의 조력자 소영설은 우연한 계기로 동성혼인에 휘말린다. 그래서 동성혼인 과정에서도 여성영웅에게 정체 밝히기를 꾸준히 권유하고 여성영웅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또는 남성인물이 피해 입을 때마다 여성영웅을 원망한다. 이처럼 윤선강과 소영설은 조력자로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여성영웅의 입장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남성적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여성영웅 장벽계와 맹려군은 평생 남성적 삶을 실천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조력자의 혼인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사가 고민으로 다가온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남성인물은 여성영웅과의 혼인성취에만 골몰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에서는 혼인을 성사하려는 남성인물과 이를 거부하는 여성영웅의 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남성인물이 일방적인 사랑을 표출할수록 이에 대한 여성영웅의 고민도 배가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남성인물은 여성조력자의 존재보다 여성영웅에게 더 직접적인 고민으로 다가온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장벽계와 맹려군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지닌 여성영웅을 부각시켰다. 이는 두 작품이 창작될 무렵 한중 양국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 경제의 발전, 새로운 사상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이 양국 여성영웅소설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중 양국에서 배출된 여성작가의 수(數), 여성 글쓰기에 대한 남성의 태도, 여성문집의 출판 상황 등 세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조선이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였다. 이러한 차이가 양국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차이로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을 비롯한 『이학사전』, 『방한립전』에서는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반면 중국 여성영웅소설 『재생연』과 『아녀영웅전』에서는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준다. 이렇듯 여성영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차이는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현저한 차이점이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여성영웅과 여성조력자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전개되는 서사를 긴요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여성지기(女性知己)와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서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혼인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남녀관계의 역전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독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하고 작품의 흥미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흥미성은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여성의 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는 여성의 현실에 보다 가까운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유지시켰다. 이는 독자들에게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유도하려는 것인데 이를 일종의 서술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흥미성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복무한다.

주요어 : 부장양문록, 재생연, 인물형상, 여성영웅, 여성의식, 비교 연구  
학 번 : 2015-22271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	4
II. 서사구조 .....	11
1. 순차구조 .....	11
2. 인물구조 .....	12
3. 공간구조 .....	18
III. 인물형상 .....	22
1. 여성영웅 .....	22
1) 효·열의식과 여성의식 .....	22
2) 武와 文의 활약 .....	36
2. 여성조력자 .....	43
1) 동성혼인에 대한 태도 .....	43
2) 여성영웅에 대한 태도 .....	47
3. 남성인물 .....	57
IV. 사회적 배경과 의미 .....	70
1. 『부장양문록』과 『재생연』 출현의 사회적 배경 .....	70
2. 흥미소와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결합 .....	82
V. 결론 .....	94
참고문헌 .....	98
中文摘要 .....	103



# I. 서론

## 1. 연구목적

본고는 한국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과 중국 여성영웅소설 『재생연』을 대상으로 두 작품의 인물형상의 특징을 밝히고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거두는 효과와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은 전근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양국 여성영웅소설 간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비교 연구는 주로 단편 여성영웅소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이 습합되어 있는 장편소설과 달리, 단편소설에서는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영웅의 형상을 비교하기에 수월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단편 여성영웅소설은 통속성과 대중성이 강하여 장편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여성의식을 진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양국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장편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다음에 소개하게 될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이 이러한 작품에 해당한다.

『부장양문록』은 장벽계라는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부·장 양 가문의 이야기로 구성된 5권 5책의 장편 여성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로 부계와 장벽계·윤선강, 장원홍과 부월혜가 혼인을 성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주목되는 인물로 부계, 장벽계, 윤선강을 들 수 있다. 장벽계는 남장을 하고 여성적 삶을 거부하면서 평생 남성적 삶을 실천하려는 인물이다. 장벽계가 남성적 삶을 살아가는 데 도와주는 인물로 윤선강이

---

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길용, 「한중 고소설 <방한립전>과 <요화전>에 나타난 혼인기피담의 비교 연구」, 『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김명신, 「<호구전>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김홍영, 「한중 여성영웅소설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장한다. 그는 장벽계가 남성으로 행세하는 동안 남장의 비밀을 공유하며, 대외적으로는 장벽계와 부부로 지낸다. 부계는 장벽계·윤선강과의 혼인성취에만 골몰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독특한 인물설정으로 인해 『부장양문록』은 여성영웅소설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단편소설 『홍계월전』, 『방한림전』, 『이학사전』, 장편소설 『하진양문록』과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부장양문록』이 여성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2)</sup>

『재생연』은 청대 여성 작가 진단생(陳端生)이 전편 17권을 창작하고 이어 양덕승(梁德繩)이 후편 3권을 창작한 총 20권의 탄사(彈詞)<sup>3)</sup>이다. 작품에는 위용아·황보장화·맹려군이라는 세 명의 여성영웅이 등장하는데, 위용아와 황보장화는 가문 재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 여성의 삶으로 돌아온다. 맹려군은 처음 황보소화를 위해 열을 지키려고 남장을 했다가 벼슬하는 과정에서 점점 의식이 변하여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인물이다. 소영설은 우연한 계기로 맹려군과 동성혼인을 하게 된다. 황보소화는 맹려군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꾸준히 표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재생연』은 『부장양문록』과 분량, 전체적인 결구, 담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비슷하여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2)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 탄사(彈詞)는 주로 중국 강남(江南)지역에서 연행되던 강창(講唱)이다. 삼현(三弦)이나 비파(琵琶)의 반주 하에 진행되는 설창(說唱) 혹은 강창(講唱)예술로서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이 서로 섞여 있는 양식을 띤다. (이상의 탄사에 대한 정리는 이춘희, 「清代 文化와 女性 彈詞小說 作家-詩壇상황과 作家意識의 단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230~234면; 藏靑君, 「<재생연>의 남장여자 형상연구-맹려군과 위용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면을 참고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장편탄사를 소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통용된다. 그 일례로 원행패(袁行霽)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탄사의 연주는 비교적 간편하여 여성들이 집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길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일종의 문학적인 읽을거리로서 사실상 운문체의 장편 통속소설에 해당한다(彈詞의演唱較爲簡便, 可供婦女們在家庭中觀賞, 以此打發無聊漫長的時光. 而其文本作爲一種文學讀物, 實際上是一種韻文體長篇通俗小說).” 袁行霽, 『中國文學史』 卷4,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3, 449면. 이에 『재생연』 역시 소설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장양문록』과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향유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sup>4)</sup>

두 장편 여성영웅소설인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가치를 지닌다. 첫째, 여성영웅이 혼인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둘째, 연애편계에서 남성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오직 혼인을 이루려는 데 매진한다. 셋째, 여성영웅이 여성조력자와 동성혼을 이루고, 정체가 밝혀짐에 따라 다시 남성인물과 결혼한다. 이는 두 작품의 주요 공통점으로 비교의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비교연구가 단편소설 영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대상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부장양문록』은 천안 미도민속관에 소장된 유일한 완질본을 주 텍스트로 삼았고,<sup>5)</sup> 『재생연』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곽말약(郭沫若) 교정본을 자료로 삼았다.<sup>6)</sup>

- 
- 4) 「연경당한문목록부언문목록(演慶堂漢文目錄附諺文目錄)」에서 『재생연』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박재연은 “고어나 고문체가 별로 출현하지 않은 점, 대장편이라는 점, 유일본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종(高宗) 21년(1844년) 전후로 이종태(李鐘泰) 등 문사 수십 명을 동원하여 『홍루몽』과 그 속작 5종, 『충렬협의전』, 『충렬소오의』 등을 번역할 당시에 함께 번역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재연, 「낙선재본 <재생연>에 대하여」, 『중국학 연구』 7, 1992, 172면.
  - 5) 『부장양문록』은 현재 2종의 이본이 발견된다. 하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에 소장된 낙질본이고 하나는 천안 미도민속관에 소장된 완질본이다. 『부장양문록』의 자세한 서지사항에 대하여 정병설, 앞의 논문, 219~222면; 채윤미, 앞의 글 5~11면을 참고할 수 있다.
  - 6) 곽말약(郭沫若)의 교정본은 3가지 판본을 대조한 것이므로 선본으로 여겨진다. 이는 북경도서관 소장인 유일한 필사본을 주 자료로 삼고 도광(道光) 2년(1822년) 보인당초각본(寶仁堂初刻本), 도광(道光) 30년(1850년) 삼익당번각본(三益堂翻刻本)을 비교하여 교정한 것이다. 다만 곽말약(郭沫若) 교정본은 전편인 17권까지만 교정하였다. 이에 후편인 3권은 보인당초각본(寶仁堂初刻本)을 자료로 삼았는데, 이는 『續修四庫全書』, 1745~174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에 수록되어 있다.

## 2. 연구사

『부장양문록』은 정병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sup>7)</sup> 일찍이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문제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초기 연구사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산출하였다.<sup>8)</sup> 이런 현상에 대하여 정병설은 “그것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통속성은 약하면서 역으로 여성의식이 강한 작품을 만나지 못한 것”<sup>9)</sup>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장양문록』이 이에 근접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말하자면, 『부장양문록』의 출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여성영웅소설 연구분야의 논쟁을 일단락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의식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병설은 『부장양문록』을 “가문소설을 포함한 장편소설사의 전통 속에서 여성영웅소설이 습합한 결과”<sup>10)</sup>로 보았다. 특히 『부장양문록』에서 여

---

7) 정병설, 앞의 논문.

8)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주의의 진전으로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반여성주의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여성주의의 진전으로 보는 대표 연구로는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여도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립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차옥덕, 「〈방한립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병현·이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을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남성의 성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내는 행위를 반여성주의로 해석하는 대표 연구로는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을 들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여러 입장들은 정병설, 위의 논문, 제3장에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본 논문에서 여성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또한 정병설의 논의를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9) 정병설, 위의 논문, 219면.

성영웅이 탁월한 능력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회한에 빠지는 장면에서 “진지성”이 잘 드러난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부장양문록』이 “단편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성을 뛰어넘어 장편의 진지한 소설 세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장편으로의 성격과 함께 소설적 진지성 즉 진지한 여성주의적 모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사의 전개에서 의미심장한 위치에 놓여진 작품”<sup>11)</sup>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병설의 연구는 『부장양문록』을 학계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과 의미를 분석하여 작품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이 작품을 여성영웅소설로 규정하여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녀(2009)는 여주인공 장벽계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sup>12)</sup> 이는 정병설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장벽계의 입장에서만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작품에는 장벽계 못지 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윤선강과 부월혜가 등장한다. 윤선강은 장벽계의 지기로 활약하는 한편 서사흐름에서 흥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sup>13)</sup> 부월혜는 작품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sup>14)</sup> 따라서 장벽계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해석

10)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습합에 대하여 “부장 양가의 혼약과 고난 및 성혼과 영화를 서사의 기본축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문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부장 양소저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 고난과 성취를 그리고 있어서 강한 여성소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그 핵심에는 장소저의 여성영웅적 행보와 그로 인한 갈등을 그리고 있어서 여성영웅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정병설, 앞의 논문, 224면.

11) 정병설, 위의 논문, 227~228면.

12)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방식-〈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연구, 2009.

13) 이병직에 의하면, “윤선강이 남장하여 절에 피신하였을 때 우연히 부계와 맞닥뜨려 벌어지는 에피소드는 독자에게는 흥미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곧 “부계가 남장한 윤선강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장소저인 줄 착각하여 벌이는 행동과, 외간 남자에게 손목을 잡힌 윤선강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은 한바탕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독자들은 속이는 윤소저와 내막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부계의 엇갈린 의사소통 및 오해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부조화를 보면서 흥미와 함께 웃음을 얻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3면.

할 경우 작품의 특징과 의미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김정녀(2010)는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남성의 욕망 실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sup>15)</sup> 그에 의하면 남주인공 부계의 욕망 실현이 번번이 좌절되고 지연되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한편으로는 그 욕망을 가로막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모순을 문제삼는데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장양문록』의 작가는 남성 욕망의 실현을 위해 여성을 일시적으로 타자화하였으나 상호 주체적 인간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욕망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부장양문록』을 장벽계 한명의 입장에서 분석했다는 한계를 보완해준 연구로 채윤미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6)</sup> 채윤미는 『부장양문록』에서 등장하는 세 여성인물-장벽계, 윤선강, 부월혜-을 각각 여성영웅, 여성영웅과 지기가 되는 여성, 정절녀(貞節女)로 대별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장양문록』이 여성의 다양한 존재가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적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나아가 단편소설 『홍계월전』, 『이학사전』, 『방한립전』, 장편소설 『하진양문록』과의 비교를 통하여 『부장양문록』만의 독특한 자질을 추출하였다. 채윤미의 연구는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의식에 대해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논의의 초점을 여성인물에 국한하다보니 남성인물, 여성 시비군과 같은 보조인물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나혜는 『부장양문록』과 『방한립전』의 여성영웅을 비교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sup>17)</sup> 그 결과 여성영웅이 자발적으로 남복을 개작하고 평생 동안 본인을 남성으로 여기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 영혜빙과 장벽계가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한다는 것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상층 여성들의 향유의식과 가

14) 전 5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4~5권은 부월혜의 혼사장에 이야기가 중심축이 되어 내용이 전개된다.

15) 김정녀, 「<부장양문록>의 욕망 구조 연구-남주인공의 욕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16)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7) 김나혜, 「<방한립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부장제의 강화에서 찾고, 이것은 상층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차이점을 남북개작의 지속성과 결혼의 과정, 연대의식을 중심으로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성정체성과 양식상의 차이에서 접근했다.

한편 『재생연전』은 처음에는 한국의 창작소설로 인식되었다가<sup>18)</sup>, 정병설에 의하여 중국소설의 번역작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sup>19)</sup> 아울러 번역양상에 대하여 “제작동기나 경위를 서술한 부분이나 묘사 등을 축약하거나 생략하면서 이루어 졌으며, 80회 20권의 『재생연』이 대개 분량에 의해 52권 52책의 『재생연전』으로 분권”<sup>20)</sup>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으로 『재생연』에 대한 중국의 연구사를 살펴보자. 『재생연』은 정진탁(鄭振鐸)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sup>21)</sup> 그는 중국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탄사목록을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목록에는 총 117종의 탄사가 수록되었고 그 중 『재생연』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재생연』을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한 인물은 진인각(陳寅恪)과 곽말약(郭沫若)이다. 진인각(陳寅恪)은 『재생연』의 작가와 창작시기를 면밀히 고증하고, 진단생(陳端生)에 대하여 “당시 수많은 여성 중에 사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재생연』의 예술적

---

18) 한국에서 유통되던 번역작의 제목은 『재생연전』이고 중국 원본의 제목은 『재생연』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신재홍은 『재생연전』이 한국 창작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원나라를 침범한 오랑캐로 고려를 설정하고 있는데 고려에 대한 서술태도가 고전소설 일반에서 중국을 침범한 여타의 오랑캐국에 대한 그것과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가 고려에 대해 자부심과 온정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술에 취한 이를 깨우기 위한 민간요법이 한국의 토속적인 민간요법으로 보아 『재생연전』이 한국 창작소설이라는 관점을 굳혔다. 신재홍, 「재생연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1089~1093면.

19) 조희웅에 의해 『재생연전』이 번역 소설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실증을 토대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 『재생연전』이 중국 소설 『재생연』의 번역임을 밝힌 것은 정병설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 서설』, 한양어문 1,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정병설, 「낙선재본 <재생연전>연구-번역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20) 정병설, 앞의 논문, 2001, 221면.

21) 鄭振鐸, 「西諦所藏彈詞目錄」, 小說月報 17卷, 1927. 이 글은 후에 『鄭振鐸文集』, 人民文學出版社, 1988에 수록됨.

가치도 극찬하여 “그리스와 인도의 서사시와 비견할 수 있는 작품”, “탄사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sup>22)</sup>이라고 평가하였다.

『재생연』에 대한 진인각(陳寅恪)의 높은 평가는 곽말약(郭沫若)으로 하여금 『재생연』에 관심을 보이게 하였다. 이에 그는 『재생연』의 前17권을 교주하였고, 「陳端生年譜」, 「談<再生緣>和它的作者陳端生」, 「再談<再生緣>的作者陳端生」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로 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밝혔다. 진인각(陳寅恪)과 곽말약(郭沫若)의 연구성과는 주로 『재생연』의 창작시기와 작가 생애에 대한 고증으로, 이는 작품을 알리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재생연』에 대한 연구동향은 맹려군의 여성 의식, 속작(續作)의 결말 처리<sup>23)</sup>, 그리고 『재생연』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sup>24)</sup>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요약된다. 그중 본고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준(張俊)은 중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기타 남장 여성인물과 맹려군을 비교하였다.<sup>25)</sup> 그 결과 기타 고전소설중 여성인물이 “효” 의식 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개착을 결정한 것에 반해, 맹려군만이 “수절”과 “벼슬”하는 두 가지 목적 하에 남북개착을 한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이는 기타 여성인물의 남장이 피동적인 것에 반해, 맹려군의 남장선택은 주동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맹려군이 보다 강한 자의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sup>26)</sup>

22) 陳寅恪, 「論<再生緣>」, 『寒柳堂集』, 生活 讀書 新知 三聯書店, 2009, 63면. “當日無數女性中思想最超越之人也。堪與希臘, 印度史詩相媲美, 彈詞中第一部書。”

23) 해당연구는 다음과 같다. 王亞琴, 「沒有圓滿結局的圓滿—彈詞<再生緣>結尾探析」, 渝州大學學報, 2001; 李秋菊, 「彈詞<再生緣>結局新析」, 湘潭大學碩士論文, 2004; 趙會娟, 「關於<再生緣>結局的一點看法」, 長春師範學院學報, 2004; 趙延花, 「論梁德繩續<再生緣>的大團圓結局和封建社會的倫理觀」, 語文學刊, 2007; 李秋菊·尹平平 「論<再生緣>改編本的種種結局」, 時代文學上, 2010; 王夢玉, 「<再生緣>悲劇性探析」, 揚州教育學院學報, 2011.

24) 해당연구는 다음과 같다. 陳娟娟, 「論<再生緣>及其戲曲改編」, 藝術百家, 2007; 朱新荷·郝青雲, 「清代彈詞小說<再生緣>與現代蘇州彈詞本<再生緣>之比較」, 內蒙古民族大學學報, 2010; 李秋菊, 「對<再生緣>之戲曲及影視改編現狀的思考」, 大舞臺, 2012; 李姝嫻, 「從<再生緣>到越劇孟麗君—談孟麗君形象的改變」, 濟寧學院學報, 2012; 王娜, 「<再生緣>戲曲改編研究」, 沈陽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25) 張俊, 「<再生緣>三論」, 重慶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26)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맹려군이 기타 중국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보다 강

진연연(陳娟娟)은 맹려군, 황보장화, 위용아 세 여성영웅의 형상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sup>27)</sup> 그 중 황보장화와 위용아가 전쟁에서 활약하고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반해 맹려군은 끝까지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이를 통해 맹려군이 각성의 길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재생연>의 남장여자 형상연구」<sup>28)</sup>라는 논문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맹려군과 위용아의 남장여자 형상의 구현양상과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학자가 기준에 발굴한 자료에 의지하여 『재생연』의 창작배경과 남장여자 형상이 역사 기록과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소개하였다. 한편 맹려군의 남장에 대하여 처음에는 혼인제도에 대한 거부와 정혼자를 위한 복수로 시작했던 것이 나아가 점점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초반 맹려군이 존경의 욕구와 애정 공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재생연』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찾아볼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이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여러 논문에서는 거듭 같은 장면을 인용하면서 논의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로 맹려군 한사람의 인물 분석을 통해 작품을

---

한 자의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張俊이 지적한 맹려군이 “수절”과 “벼슬”하려는 두 가지 목적 아래 남복개착을 선택하였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맹려군이 처음 “벼슬”하려는 행위는 정혼자 집안을 재건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때의 남장선택은 여전히 “수절”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7) 陳娟娟, 「女性自我意識覺醒道路上的遠行者—<再生緣>中孟麗君形象論析」, 全國中文核心期刊 藝術百家, 2006年.

28) 藏青君, 「<재생연>의 남장여자 형상연구—맹려군과 위용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29)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方紅, 「<再生緣>與女性文學」, 黃石教育學院學報, 2000; 方紅, 「<再生緣>與女性文學(二)」, 黃石教育學院學報, 2000; 盧振杰 「女性文學視野下<再生緣>對傳統女性意識的超越」, 長春教育學院學報 2004; 趙延花 「女性追求平等的先聲—論彈詞<再生緣>中主人公孟麗君的思想價值」, 內蒙古大學學報, 2004; 趙延花, 「孟麗君性格中的倒錯現象探因」, 前沿, 2007; 趙越, 「<再生緣>中女性意識的覺醒及其悲劇結局」, 安徽文學, 2008.

해석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가 맹려군 한 인물에만 집중된 탓에 맹려군의 주변인물-여성지기로서의 소영설, 또 다른 여성영웅인 황보장화 위용아, 남성인물인 황보소화-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있으나 맹려군의 인물형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이루어져 주변인물의 구체적인 형상화 양상을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사실 『재생연』에서 소영설과 황보장화, 위용아, 남성인물인 황보소화 역시 서사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서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이해를 높이고 주제의식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물의 형상을 추적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두 작품에 대한 비교 문학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의식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비교연구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의 방법을 통하여 그간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논의를 폭넓게 수용하고 재검토하면서 두 작품의 세부적인 변별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 II. 서사구조

### 1. 순차구조

『부장양문록』은 주로 부부(傅府)와 장부(張府) 양 가문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인데, 서사전개는 제1대 부연광, 장문백, 제2대 부계, 부월혜, 장원흥, 장벽계, 윤선강, 제3대 장태문, 장태경, 장태강, 부경인, 부차인 등의 인물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는 순차적인 서사전개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1대의 이야기가 완전히 종결된 후 제2대의 서사가 제시되고, 그 다음 제3대의 서사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아니다.<sup>30)</sup> 제1대, 제2대, 제3대가 동시에 등장하여 서사가 전개되다가, 곧 제1대가 유배됨에 따라 활약이 줄어들고 제2대의 서사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종반에 제3대의 후일담이 짙막하게 덧붙는다. 즉 제2대 인물의 서사가 중심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영웅인 장벽계의 성장, 사회적 활약, 주변인물들과의 갈등, 결혼 등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제2대 인물 중에서 장벽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은 장원흥과 윤선강인데, 이들의 서사는 주로 장벽계와의 연관 속에서 전개된다. 말하자면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는 서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셈이다.

이렇듯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는 순차적인 서사전개를 보여주는 서사원리는 『재생연』에서도 확인된다. 『재생연』은 황보부(皇甫府), 맹부(孟府)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 역시 제1대, 제2대, 제3대 등의 인물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는 순차적인 서사전개를 보여주는데, 제2대인 황보소화, 황보장화, 맹려군, 위용아, 소영설 사이의 이야기가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이때 황보장화, 위용아, 맹려군은 여성영웅으로 활약하지만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서사는 맹려군

30) 정병설은 이를 “편년의 원리”로 지적한 바 있다(정병설, 위의 책, 158~159면). 아울러 이러한 원리를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으로 보고 이는 족보 등 당대의 가족사 서술의 담론 일반과 관련된 것으로 논의하였다(정병설, 「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고전소설의 창작시기와 창작과정에 대한 가설」,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224면).

의 서사와 대극적 양상이 나타난다. 황보소화, 소영의 서사는 여성영웅인 맹려군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결국 『재생연』 또한 『부장양문록』과 마찬가지로 여성영웅 맹려군의 성장, 사회적 활약, 주변인물들과의 갈등, 결혼 등을 위주로 서사가 전개된다.

요약하자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제1대, 제2대, 제3대의 인물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는데 제2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제2대 중에서도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여성영웅과 주변인물의 갈등, 결혼이야기가 덧붙는 양상을 보인다.

## 2. 인물구조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 등장하는 인물군의 서사는 주로 여성영웅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변인물들이 보여주는 일대기의 구체적 양상을 여성영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부장양문록』에서 여성영웅인 장벽계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로 부계와 윤선강이 있다. 부계는 장벽계의 정혼자이고 윤선강은 장벽계가 남성으로 행세하는 동안 그와 동성혼인을 이루어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먼저 장벽계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부계의 일대기를 살펴보자. 부계와 장벽계는 어려서 아버지들에 의하여 정혼하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지연된다. 유배지에서 장벽계는 문장과 무예를 익힌다. 오랑캐가 창궐(猖獗)하자 남장으로 환복하고 오랑캐를 진압시킨다. 이 과정에서 장벽계는 가족과 헤어지고 정체를 숨긴 채 윤선강과 정혼하게 된다. 한편 부계는 장벽계 일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규문의 요조숙녀를 구하여 하루빨리 성혼하려 한다. 그러다 마침 현몽을 얻어 윤부에 찾아가 윤선강에게 통혼한다. 부계의 통혼을 받은 윤부에서는 장벽계를 내쫓고 도로에서 유리하던 장벽계는 우연히 부계와 만나 정체를 숨긴 채 그와 교유한다. 이 때 윤선강 또한 장벽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가출한다. 이로써 부계는 두 번의 혼인이 모두 실패하는 국면을 맞이한다. 그러다 장벽계는 윤선강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들은 형제로 지낸다. 이후 장벽계는 문무 양과에 장원급제하지만 정체를 계속 숨기기 위하여 부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잔치를 즐기던 중 술에 취해 부계에게 앵혈을 들켜 장벽계의 정체가 탄로 나게 된다. 이때부터 부계는 거둬 장벽계를 찾아와 황제에게 정체 밝힐 것을 요구하지만 장벽계가 자결을 시도하자 일단 다그치지 않는다. 그러다 마침 6년 만에 헤어졌던 장벽계의 가족이 돌아오고 장벽계는 아버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정체를 밝힌다. 이에 부계는 다시 장벽계와의 혼인을 추진하고자 장벽계를 찾아오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얻어맞는 등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한다. 이렇듯 장벽계가 정체를 밝혔음에도 부계는 한동안 혼사를 이루지 못하다가 혼자 애태우며 상사병에 걸린다. 그러다 황실의 늑혼을 피하기 위하여 장벽계가 부계와 혼인하기로 결정한다.

위와 같이 부계의 서사는 여성영웅인 장벽계의 서사를 축으로 대부분 장벽계와의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이는 장벽계와의 혼인에서 부계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결혼의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장벽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부계의 일대기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장벽계의 결정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부장양문록』에서 부계는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물로만 형상화 될 뿐 더 이상의 존재감은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부계의 형상은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배우자와 함께 견주어 볼 때 한층 선명해진다. 예를 들어 여성의식이 한층 진전된 작품으로 논의되었던 『홍계월전』<sup>31)</sup>에서 홍계월의 배우자 보국은 홍계월과 함께 출전하여 서관과 서달의 난을 평정한 바 있다. 비록 보국은 실력이 홍계월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전쟁에서의 활약을 통하여 작품 안에서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한다. 그러나 『부장양문록』의 부계는 오직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물로만 형상화되고 그것마저 여성영웅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에서 부계의 서사는 여타의 여성영웅소설보다 한층

31) 전용문은 여성영웅의 영웅화 정도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을 <음조영웅형>, <일시남복형>, <남장영웅형>, <남성지배영웅형>으로 나누었고 <남성지배영웅형>에 속하는 작품을 여성의식이 한층 진전된 작품으로 보았다. <남성지배영웅형>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학사전』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더 여성영웅에 의존하면서 전개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장벽계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윤선강의 일대기를 살펴보자. 윤선강은 처음 아버지에 의해 장벽계와 정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장벽계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시작한다. 그러다 부계의 통혼을 반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남장하고 가출한다. 피신한 곳에서 우연히 부계와 다시 만나는데 외간 남자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귀머거리인 척 행동한다. 이에 부계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맥을 짚으려 하자 윤선강은 이를 꿰철이라 여겨 자결을 시도한다. 장벽계에 대한 절개를 훼손하였다는 생각에 자결을 실행한 것이다. 그러다 윤선강은 장벽계와 극적으로 해후하는데 장벽계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장벽계가 황제에게 정체를 밝히고도 여전히 부계와의 결혼을 거부하자 부계는 윤선강을 설득하려 나선다. 그러나 윤선강은 장벽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평생 장벽계를 따르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다. 그러다 황실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장벽계가 어쩔 수 없이 부계를 받아들이고 윤선강 역시 함께 부계와 혼인한다. 이로써 부계-장벽계, 윤선강 3인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후에도 윤선강은 남편인 부계보다 장벽계의 명을 좇는다. 이는 부계와 장벽계의 갈등상황에서 윤선강이 부계의 말을 거역하고 장벽계의 곁을 지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윤선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장벽계 곁을 지킨다. 장벽계가 90여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죽자 윤선강 또한 슬퍼하여 통곡하다 곧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듯 윤선강 일대기의 중심에는 시종일관 장벽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선강의 서사 역시 여성영웅 장벽계의 서사를 축으로 장벽계와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다음은 『재생연』에 등장하는 맹려군의 주변인물들을 알아보자. 『재생연』에는 황보장화, 위용아와 맹려군 등 세 명의 여성영웅이 등장한다.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일시적으로 여성영웅의 형상을 띠는 인물이며 맹려군은 서사의 마지막까지 여성영웅으로 활약하는 인물이다. 황보소화는 『부장양문록』의 부계에 해당하는 인물로 맹려군의 정혼자이다. 소영설은 윤선강에 해당하는 인물로 여성영웅과 동성혼인을 이루어 여성영웅의 비밀을 지켜준다.

이렇게 볼 때 『재생연』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은 맹려군과의 관계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두 부류로 대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맹려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는 인물로 황보소화, 소영설이 있다. 두 번째는 여성영웅의 측면에서 맹려군, 황보장화와 위용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세 여성영웅의 서사는 각기 독립적이면서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같은 여성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서사가 맹려군과 대극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맹려군과의 비교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맹려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는 황보소화와 소영설의 서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활쏘기 시합에서 황보소화가 우승을 거두어 맹려군과의 혼인이 정해진다. 이때 황보소화의 아버지가 고려와 싸우다 사로잡히고 간신의 모함으로 고려에 투항하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이에 황보집안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진다. 그러자 황보집안에서는 황보소화를 도망치게 하고 맹려군은 다시 간신 아들의 구혼을 받게 된다. 이에 맹려군은 황보소화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여군옥으로 개명하고 남장으로 환복한 뒤 가출한다. 이후에는 황보소화와 맹려군의 서사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전개된다. 황보소화는 산에 올라가 도술을 배우고 맹려군은 장원급제 하고 소영설과 혼인한다. 한편 맹려군은 가출하기 전에 시녀인 소영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간신아들과 혼인케 한다. 소영설은 활쏘기 시합에서 황보소화에 반하여 그를 위해 절개를 지키려 하지만 주변인물의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간신의 아들과 결혼한다. 그 후 혼인날 정혼자의 얼굴에 칼을 던진 후 투강한다. 그러다 양감의 도움으로 살아나 그의 양녀로 들어가고 남장한 맹려군과 정혼하게 된다. 이렇게 맹려군과 소영설의 동성혼인이 시작한다. 이때 황보소화가 도술을 습득하고 누이인 황보장화, 위용아 등과 함께 전일 고려에 잡혀간 아버지를 구출하는데 성공하고 간신이 꾸며온 음모까지 밝혀낸다. 이로써 황보집안의 세력이 회복되고 황보소화 역시 장원급제하여 맹려군과 재회하게 된다.

지금까지 황보소화와 맹려군의 서사가 각기 독립적으로 전개해 왔다면 앞으로 황보소화의 서사는 맹려군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황보소화는 장원급제하여 맹려군의 제자로 들어간 후 자신의 스승 여군옥을 맹려군이라고 의심한다. 이때부터 황보소화는 맹려군의 정체를

밝히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나 맹려군은 공적영역에서 활약하는 경험을 통해 의식이 변화하여 결혼을 거부하게 된다. 이렇듯 서사의 후반부는 맹려군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황보소화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맹려군의 대결이 서사의 주를 이룬다. 황보소화는 맹려군의 정체를 밝히려고 온갖 수를 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맹려군에 의해 여러 차례 수모를 겪는다. 한편 소영설은 황보소화를 연모하는 인물로 황보소화가 맹려군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맹려군에게 정체를 밝히려는 권하고 황보소화를 걱정해주는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그러나 황보소화의 노력과 소영설의 권유는 맹려군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다 맹려군은 황제에게 정체를 들킨 것이 계기가 되어 황제의 늑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황보소화와 결혼하게 된다. 이에 소영설 역시 맹려군과 함께 그토록 원했던 황보소화와 결혼한다. 이렇게 볼 때 황보소화, 맹려군, 소영설이 혼인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은 맹려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황보소화가 혼인을 추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그의 행위가 혼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혼인의 성사여부가 오직 맹려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영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영설은 처음부터 황보소화를 연모하는 인물로 그와의 혼인을 기대하며, 또 혼인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맹려군을 설득하지만 이 역시 혼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컨대 3인의 혼인은 오직 맹려군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황보소화와 소영설의 서사는 맹려군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다음은 여성영웅인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일대기를 맹려군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위용아의 아버지는 황보장화의 아버지와 같이 고려를 물리치다 간신의 모함에 빠진다. 이에 황보장화와 위용아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공적영역에 뛰어든다. 간신의 음모에 빠진 황보집안은 황제의 명에 의하여 서울로 압송되는데, 도중에 도적이 나타나 황보장화와 어머니를 납치한다. 사실 그 도적의 우두머리는 위용아로, 이때 그녀는 남성으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용아는 무예를 연마하고 영웅호걸을 모집하여 한 집단의 두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황보장화를 만나 정체를 밝히고 함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때 황보소화가 도술을 터득하여 산에서 내려오고 누이

황보장화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 이에 황보소화, 황보장화, 위용아가 재회하고 아버지를 구출하는데 성공하면서 간신의 음모도 밝혀내어 가문의 세력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볼 때 황보장화와 위용아가 공적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한 뒤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자연스레 여성의 삶으로 회귀하며 결혼과 동시에 서사가 종결된다.

또 다른 여성영웅인 맹려군은 처음에는 황보장화, 위용아와 비슷한 목적의식 아래에 공적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황보소화와 정혼한 맹려군은 황제가 황보소화의 집안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리자 정혼자의 안위(安危)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황보집안을 포함하는 자의 구혼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 맹려군은 남장가출하고 벼슬하려는 결정을 내린다. 이를 통해 정혼자에 대한 열을 지켜내는 동시에 정혼자 가문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맹려군은 공적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결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인물로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처럼 평생 남성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사건전개를 보면 맹려군,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공적영역에 진출하였지만 대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재생연』에서 세 여성영웅 중 가장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인물로 맹려군을 선정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왜 하필 『부장양문록』의 작가가 장벽계라는 인물을 일생에 걸쳐 여성적 삶을 거부하는 인물로 부각시킨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재생연』과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와 맹려군을 그토록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지닌 인물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기본적으로 그들을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인물로 설정한 것에서 찾고자 한다. 문(文)의 영역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을 적게 받는 영역으로 여성영웅을 이러한 영역에서 활약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쉽게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장벽계와 맹려군을 통하여 서사의 끝까지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설정 또한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때문에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영웅의 창출은 여성독자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진지한 고

민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공간구조

3절에서는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공간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논의의 초점을 ‘여성영웅’에 집중할 것이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 등장하는 주변인물의 서사가 모두 여성영웅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기에 여성영웅이 활동하는 공간을 추적하는 과정이 곧 두 작품의 공간구조가 지니는 특징을 밝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성영웅의 활동공간을 대체로 가문을 기준으로 안(內)과 밖(外)으로 이분할 수 있다. 내외법이 엄격하게 작동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영웅들은 대개 복장전환을 통한 성별변화를 이루어야만 가문을 넘어서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밝혀짐과 동시에 다시 가문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sup>32)</sup> 이때 가문의 안을 사적영역, 가문의 밖을 공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적영역은 주로 규방과 관련된 영역을, 공적영역은 조정, 군주, 국가와 관련된 영역을 포함한다.

먼저 『부장양문록』의 여성영웅인 장벽계의 활동공간을 살펴보자. 장벽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유배지에서 남자의 소임을 하고자 침선 방적을 버리고 천문서와 병법을 익히는 데 몰두한다. 이때 장벽계가 천문서와 병법을 연마하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두 사적인 공간인 규방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장벽계가 아직까지 가문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벽계가 본격적으로 가문의 경계를 넘는 것은 오랑캐가 강성하면서이다. 오랑캐의 세력이 강해지자 장벽계는 아버지의

32) 여성영웅소설이 활발히 창작, 유통되었던 조선후기는 가부장제가 국가적 차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 사회까지 철저히 자리 잡던 시기이다. 따라서 가부장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층은 여성들의 행실을 철저히 단속시켰는데, 구체적인 행위로 여성에 대한 공간적 통제 양상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탁원정은 “여성의 공간을 집 안, 더 좁게는 규방 안으로 한정시키는 이면에는 여성을 남성 공간으로부터 엄격히 분리, 격리, 단절시키는 공간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정절 이데올로기나 내외법이라는 가부장제의 통제 기제가 공간화된 것”으로 보았다.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면.

명에 따라 남장으로 환복하고 피난 도중에 가족과 헤어지기 된다. 이를 계기로 장벽계는 가문의 경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공적영역에 진출하게 된다.

장벽계가 공적영역에서 이루어낸 첫 번째 공적은 오랑캐의 난을 평정하는 것이다. 오랑캐가 발발하자 황제는 정병맹장(精兵猛將)을 대량 파견하여 오랑캐를 물리치게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다 대명 원수 정필이 오랑캐에게 여섯 번 패하여 자결을 행하려고 할 때 장벽계가 등장하여 태세를 역전시켜 국가의 안정을 되찾는다. 이어서 장벽계는 문무 양과에 장원급제하고 전일 오랑캐를 평정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병부상서 대사마 영능후라는 직책을 획득한다. 이로써 장벽계는 정정당당하게 공적영역에서 활약하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환에 따라 장벽계는 더 이상 공적영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아버지가 장벽계에게 여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장벽계는 아버지와 한동안 갈등하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황제에게 밝히고 사적 공간인 규방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부계와 혼인하게 되면서 부계, 장벽계, 윤선강 세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벽계가 여성의 공간인 사적 공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적 영역에 국한하여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벽계는 부계와 혼인하지만 집안의 대소사는 윤선강에게 맡기고 자신은 여전히 부계와 정사를 의논하고 시사도 창화한다. 특히 장벽계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조정의 정치와 궁중의 일 가운데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장벽계에게 물은 후 결단하라는 황제의 명이 내려짐에 따라 장벽계에게는 다시 공적영역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

이때 흉노족이 중국을 희룡코자 이체문자를 보내오는데, 장벽계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가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적영역에 뛰어든다. 흉노족은 중국을 시험하고자 이체문자로 된 문서를 보내온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를 해독해내지 못하였고 이에 황제가 장벽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장벽계가 규방을 나서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장벽계는 이를 손 쉽게 풀이할 뿐만 아니라 흉노족을 꾸짖는 문서까지 작성하여 중국의 위신을 되찾는다. 이외에도 장벽계가 사적공간

으로 돌아와서 조정 정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 주변인물들이 그녀의 출중한 실력에 감탄한다는 서술이 확인된다. 요컨대 장벽계는 사적공간에서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 조정, 국가 등 공적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재생연』의 경우를 살펴보자. 전술했듯이 『재생연』에는 세 명의 여성영웅이 등장하는데, 황보장화, 위용아, 맹려군이다.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어려서부터 규방에서 침공(針工)과 무예(武藝)를 동시에 익힌다. 그러다 아버지가 간신의 모함에 빠지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공적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 중 위용아는 아버지가 간신의 모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장으로 환복하고 가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후 위용아는 강호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한편 황보장화가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위용아에게 다시 사로잡히는데, 이때 이미 남장을 하고 있었던 위용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 여성영웅은 아버지를 구하고 가문을 회복할 계획을 세운다. 아버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위용아와 황보장화는 무술(武術)로 활약하며 집안의 누명을 벗긴다. 그 후 두 사람은 각각 결혼을 하게 되고 사적영역으로 돌아가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한편 맹려군은 처음에 사적공간에서 온전히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다 정혼자 가문이 간신의 음모에 빠지고, 맹려군이 간신의 구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혼자에 대한 열을 지키고 정혼자 가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장으로 환복하고 공적영역에 진출한다. 공적영역에서 맹려군의 활약은 주로 의술(醫術)을 통해 실현된다. 장원급제한 맹려군은 뛰어난 의술(醫術)로 그동안 태의들도 고치지 못한 태후의 병을 고친다. 이때부터 맹려군의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공적영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한다. 한편 맹려군은 총 20권인 분량 중에서 18권에 이르러서야 정체를 들키는데, 이는 맹려군이 오랜 시간을 공적영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려군은 18권에서 다시 사적영역으로 회귀하지만 전일의 공로가 인정되어 공주로 봉해진다. 조정의 정치와 궁중의 일 가운데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맹려군과 의논하여 해결하라는 황제의 명과 함께 맹려군에게 자유롭게 조정에 출

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정리하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여성영웅 장벽계와 맹려군은 모두 공적영역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다가 정체가 밝혀짐에 따라 다시 사적영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들이 사적영역에 국한하여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일 공적영역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황제의 요청으로 다시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Ⅲ. 인물형상

#### 1. 여성영웅

##### 1) 효·열의식과 여성의식

『부장양문록』의 장벽계, 『재생연』의 맹려군·황보장화·위용아는 여성영웅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적영역에 진입하는 계기와 활약을 지속하는 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요컨대 공적영역에 진입하는 계기와 이곳에서 활약하는 기간이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먼저 두 작품에서 여성영웅이 공적영역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질러서 말하자면,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남장을 하게 된다면, 『재생연』에서 황보장화·위용아·맹려군은 아버지·정혼자를 구하기 위한 효와 열의식에서 남장을 선택한다. 따라서 장벽계는 일생에 걸쳐 여성의 삶을 거부하지만 황보장화·위용아는 아버지를 구한 뒤,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으로 돌아간다. 다만 『재생연』의 맹려군이 문제적인 인물이다. 맹려군은 처음 정혼자 가문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영역에 나아가지만 이후 남성적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점진적으로 심화하여 궁극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인물이 되어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같은 모습을 띤다.

두 작품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가 처음 소개되는 대목은 1권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서술자는 장벽계의 영웅적인 기상을 부각함에 있어서 “규중(閩中)의 태(態) 없고”, “군자(君子)의 풍도(風度)와 영웅(英雄)의 양(樣)”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장벽계는 자신의 영웅적 기상에 걸맞게 스스로 침선(針線), 여공(女工)을 폐하고 남자의 학문에만 종사한다. 이에 부모가 걱정하여 제지하지만 부모의 명을 봉행치 못하겠다며 천문서와 병법을 익히는 데 골몰한다.<sup>33)</sup> 마침 오랑캐가 명을 침략하자 장벽계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오

랑캐의 침략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기에 여성이 버거운 존재라고 판단한 아버지는 장벽계를 남북으로 환복시킨다. 이에 장벽계는 속으로 기뻐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세상을 속이고 평생 남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이는 진도람이라는 노옹의 말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노인(老人)이 청과(聽罷)의 막덕을 노코 안색(顏色)을 정히 하여 꾸지저 왈, “그딤 십이세(十二歲) 규똥(閨中) 여즈(女子)로 침선(針線) 방적(紡織)을 바리고 남즈(男子)의 소임(所任)을 하니 그 죄(罪) 험가지오, 난시(亂時)를 당하여 부모(父母)를 팔와 사싱(死生)을 한가지로 험미 여즈(女子)의 정정한 리(理)이거늘, 망영(妄靈)된 의사로 좀쳐로운 기운(氣運)을 밋고 비슈(匕首)을 끼고 적병(賊兵)을 짓치며 다시 백의서생(白衣書生)으로 대진(大陣)을 엿보고져 하니 그 죄(罪) 두리오, 복히 적거(謫居)홀 제 그딤 엄구(嚴舅) 부시랑의 어약(語約)이 금석(金石) 꺾고 금낭(錦囊)과 파경(破鏡)의 빙물(聘物)이 황천(皇天)과 일월(日月)이 증빙(證明) 험거늘 문득 모름 가운데 비반(背反)하여 머리를 움쳐 남의 지어미 소임(所任)을 죽기로써 말고져 하니 그 죄(罪) 세가지오, 난똥(亂中)의 브득이(不得已) 여화위남(女化爲男)험물 그으히 짓거 타일(他日) 동신(終身)토록 세상을 속이고져 하니 그딤 죄(罪) 네가지라. 다 부도(婦道)와 명교(名教)의 버셔나니 천지(天地) 귀신(鬼神)을 속이련이와 그대 심천(心泉) 횡스(行事)를 내 엿지 비최지 못험리오.” <권지일, 8b~9ab>

이 장면은 장벽계가 여도와 명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진도람에게 꾸지람을 받는 대목이다. 장벽계는 그간 자신의 속내를 누구에게도 밝힌 바 없지만 진도람은 일일이 알아차린다. 진도람은 장벽계 전생의 벗으로 남장한 장벽계가 여자라는 사실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부계와의 혼약

33) 부피(父母) 두곳기는 가운데 근심하여 왈, “여즈(女子) 되어 침선(針線) 여공(女工)을 폐(廢)험고 남즈(男子)의 학문(學問)을 잠심(潛心)하여 더욱 천문서(天文書)와 병법(兵法)은 여즈(女子)의 가죄(可笑)라.” 소제 쇼이대왈, “소녀 비록 여즈(女子)나 시세(時勢) 만난바 타인(他人)과 다르고 소데(小弟) 연유(年幼)하니 엿지 머리를 움쳐 여즈(女子)의 혐의(嫌疑)를 칭각다가 만일(萬一) 불행(不幸)험면 당춧(將次) 엿지험리잇가. 한번 죽기는 가죄(可笑)오련이와 진실노이 명교(名教)는 봉행(奉行)치 못하리로소이다.” 부피(父母) 어히엄시 여겨 바려 두더라. <권지일, 6b>

도 배반할 장벽계의 속마음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는 인물이다. 진도람의 말 중에서 “타일 종신토록 세상을 속이고자”하는 데에서 장벽계가 여성적 삶에 대한 거부 의식이 일생을 걸친 것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뒤이어, 장벽계는 진도람으로부터 자신의 전생사(前生事)와 내두사(來頭事)를 듣게 된다. 이에 따르면 장벽계는 앞으로 부계와 혼인하게 될 운명이다.<sup>34)</sup> 그러나 장벽계는 “소녀 진실노 규합의 남의 수건 바드는 소임은 결단코 헝치 못헝리니다.”<sup>35)</sup>라고 대답하여 여성적 삶을 완강히 거부한다.

이외에도 장벽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의 지어미 소임을 죽기로써” 거부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장벽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가출한 윤선강과 형제지의를 맺은 후, “진실로 부한림의 수건 받드는 소임은 답답하고 녹녹하여 못하”<sup>36)</sup>겠으니 윤선강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결혼할 것을 끊임없이 설득한다. 이를 통해 부계와 자신의 혼인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장벽계는 처음부터 “남의 지어미 소임을 죽기로써” 거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장벽계는 자신의 남북이 부모와 국가를 위해 충, 효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한다.<sup>37)</sup> 그런데 장벽계의 논리에 따르면 그녀가 부모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 후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

34) “그딤 전세(前世) 부가(傅家) 소즈(小子)로 교되(交道) 유관삼장 일우을디라. 부싱이 그 옥경진군으로 인세즈미(人世滋味)를 사모헝미 옥제(玉帝)의 스랑이 과헝스 특별이 그 원(願)을 조차 인세(人世)에 나가 부부(夫婦)되여 싱전동주(生前同住)헝고 스후동혈(死後同穴)을 희학으로 원헝여 옥제 압히서 바독 두어 군니 지니 군니 스스로 부인(夫人)니 되여 팔십연(八十年) 부싱의 건줄(巾櫛)을 맞들겟노라 링약(盟約)헝고 나오니(후략).” <권지일, 10a>

35) <권지일, 11장b>

36) <권지이, 48a.>

37) 당후 썰니 관(冠)을 벗고 옥딤(玉帶)을 글너 청죄(請罪) 왈, “소녀의 죄상(罪狀)이 무송헝여 음냥(陰陽)을 변(變)헝고 천일(天日)을 가리와 선조(先祖)을 속이오니 죄(罪) 수사난속(殊死難贖)이라. 그옥히 업드려 싱각건디 어린 소견(所見) 양양서 도적(盜賊)을 막으믄 부모(父母)를 위(爲)헝미오, 디진을 짓치믄 국가(國家) 환(患)을 덜미오. 일양(一樣) 남북(男服)을 벗지 못헝믄 강포의 환(患)을 두려헝미오, 다시 응과(應科)헝믄 이 쏘한 부모(父母)을 위(爲)헝미라. 만일 萬一) 소녀 과시(科試)의 싸이지 아녀시면 만세황야(萬歲皇爺) 엇지 구귀(九州)의 방(榜)을 붓쳐 야야(爺爺)을 츠지리잇가?” <권지삼, 17a~17b>

서도 장벽계는 남복을 계속 고집한다. 따라서 장벽계의 남복은 충, 효 이념을 실천한다는 외피 아래에, “남의 지어미 소임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장벽계는 아버지의 귀환에 따라 남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① 당후는 수리의 헝헝 시 상셔 바라보니 구름 갖흔 추종호리 (追從下吏) 금기옥윤을 써 나아보니 붉은 양손(陽傘)이 표동(飄動)호며 그림 그린 기치(旗幟)와 백모황월(白旄黃鉞)이 헝헝출 가 리오고 슈리 우희 금포(錦袍) 오스모(烏紗帽)로 언건(偃蹇)이 안 진즈 북희서 영결(永訣)호여 천의(天涯)를 즈음쳐 늦기던 여으(女兒) 벽계라. 보니 반기미 미우(眉宇)을 동호는 그 외람(猥濫)호미 빅흔(背汗)니 침의(沾衣)홀 시 이의 밭서 슈리의 느려 느는다시 이러 상셔 압히 이르러 직비(再拜) 채읍(涕泣)호니 공이 명(命)호여 평신(平身)호라 호고(후략). <권지삼, 10a>

② 당후 머리을 두다려 슬피 비러 곱오디, “소녀 진정소(陳情書) 을 짓고 인슈를 드리고 두문불출(杜門不出)호오른 디인(大人)의 명(命)디로 호오려니와 육년(六年) 남장(男裝)의 당당(堂堂)호 공후(公侯) 분칠(粉漆)호는 여즈(女子) 되어 부한림(傅翰林)의 슈건(手巾) 밧드는 소임(所任)은 춤아 녹녹(碌碌)호고 갑갑호여 못호리로 소이다. 복원(伏願) 야야(爺爺)는 어린 즈식(子息)의 구구(區區)호 사정(事情)을 구버 슬피소서.” <권지삼, 18a~18b>

위 장면은 9년 만에 헤어졌던 부녀가 다시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다. 긴 시간동안 딸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는 장벽계를 보자 반기는 감정도 잠시, 이내 딸이 남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경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애 당초 재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딸에게 남복을 입혔지만, 태평성대에 이르러 아직도 남장을 고집하고 남자행세를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다. 심지어 장벽계가 사용하고 있는 장식품들은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이에 아버지는 전일 헤어졌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장벽계가 남성으로 위장하고 공적영역에서 활약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전 전공공하여 식은땀이 맺혀 옷을 적실 정도이다.<sup>38)</sup> 이렇듯 장벽계에 대

한 아버지의 걱정은 첫 대면부터 시작되고 이는 장벽계가 남성적 삶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sup>39)</sup> 아버지는 그동안 이룩한 모든 공훈을 내놓고 규방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장벽계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에 장벽계는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어느 정도 타협한다.<sup>40)</sup> 아버지의 귀환으로 더 이상 남성적 삶을 살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는 장벽계는 인수를 드리고 두문불출하는 것까지는 타협하겠으나 부계의 수건 받드는 것은 차마 못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빈다 [2]. 이는 장벽계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만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벽계라는 인물이 여성이 일단 결혼을 하면, 남성애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강렬히 거부하였다는 증거이다. 즉 장벽계는 난시를 당해 아버지에 의해 남북으로 개작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에 비롯하여 여성의 삶을 완강히 거부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

38) 장벽계의 아버지가 딸이 남자로 행세하는 행동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이외에도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황제가 장벽계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장벽계와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둔 사실에 그의 아버지에게 칭찬하는 장면이다. 이에 장벽계의 아버지가 전전긍긍한다. “당후 다다라 지삼(再三) 층층 흐시며 아들 줄 느흐믄 지삼(再三) 사례(謝禮) 흐실 식 옥비(玉杯)의 즈화유를 가득 부어 친히 스쥬(賜酒) 흐시니 승상니 황감(惶感) 전놀(戰慄) 흐미 꾸러 마시고 고두(扣頭) 지뵈(再拜) 흐니 두리는 쌈이 관복(官服)을 잠으고 감격(感激) 불안(不安) 흐 비치 명출 흐니 참식(慘色)이 만안(滿顏) 흐더라.” <권지삼, 15b>

39) 이에 대하여 김정녀는 “결국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것은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가족인데, 가족과의 분리 후 장벽계가 한 개인으로서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녀, 앞의 논문, 2009, 45면.

40) 장벽계가 타협하기까지는 아버지의 압력이 여러 번 나타난다. 그 일례로 아버지가 장벽계를 사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장벽계의 남동생만 사당에 들어와 배현하도록 허락하는데 이는 장벽계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는 현실을 환기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묘(家廟)의 올느 비현(拜見) 흘 시 당후 관복(官服)을 정계 흐고 형제(兄弟) 엇기틀 갈아 나아가니 승상이 당후을 물너가라 흐고 부인(夫人)과 소즈(小子)로 비현(拜見) 흐고 물너 숙소로 도라오미 당후 황송(惶悚) 흐녀 방석 아릭 감히 물너가지 못흐니 이윽고 승상이 좌우(左右)을 물이치고 괴식(氣色)을 엄히 흐녀 당후 다려 일너 곶오디, “네 녀화위남(女化爲男) 흐른 브득이(不得已) 흐미오. 부모(父母)와 국가(國家) 근심을 더러시니 감히 칙(責)지 못 흐려니와 다시 님군을 속이고 세상을 가리와 과장(科場)의 싸히며 둥작(重爵)을 받드며 조상(祖上) 사당(祠堂)의 올느 신녕(神靈) 스람을 아오라 속이미 그 죄(罪) 가빉으지 아니 흐는지라 아비되여 웃지 붓그럽지 안리요. 장춧(將次) 네 몸쥬체를 엇지 흐라 흐느냐?” <권지삼, 16b~17a>

다.41)

다음은 『재생연』을 살펴도록 한다. 앞서 말했듯, 『재생연』에는 3명의 여성영웅 황보장화·위용아·맹려군이 등장한다. 그중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적영역에 진출하다가 다시 여성의 삶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맹려군의 경우보다 단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황보장화는 어려서부터 남동생 황보소화와 함께 병서(兵書)와 무예(武藝)를 배운다. 이는 중세 여성에게 엄격히 금지된 영역이었으나 황보장화는 어려서부터 접하게 된다. 당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영역의 교육에 대하여 아버지는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심 기뻐하며 친히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황보장화와 함께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한다. 비록 어머니가 이를 걱정하여 말리기는 하지만 장화가 듣지 않자 더 이상 다그치지 않는다.42) 결국 부모들은 장화의 재주를 아끼고 존중해 준 것이다.43) 즉 이 작품에서 부모는 보수적

---

41) 장벽계의 이러한 면모에 대하여 채윤미는 “장벽계가 남성적 삶을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를 위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자기를 위한 여성영웅형’”으로 규정하였다. 채윤미, 앞의 논문, 24면.

42) 姊弟同心學武，退堂時，便叫嚴父教兵文。老爺深喜兒和女，用意相教二俊英。小姐學刀揮猛勇，夫人愛惜常相勸，虎女麟兒不肯聽。總督若逢難辦事，便教女兒決疑難，從其件件行將去。四野人聲動地歡，不但文才堪絕世，更兼武藝可推先。一騎戰馬沖千陣，兩柄鋼刀敵萬員。靜處拈針蘭格下，閑時跑馬草坡前，將門此女人難比。(郭沫若校訂, 『再生緣』, 北京古籍出版社, 2002, 144면.)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가 침선방적(針線紡織)을 폐하고 병서(兵書)만 익히는 데 반해 황보장화는 침선(針線)과 무예(武藝)를 동시에 익힌다. 병서, 무예, 말 타기 등은 전통적인 남성의 학문(學問)이고, 침선은 전통적인 여성의 학문(學問)이다. 따라서 남성적 지식과 여성적 지식이 엄격히 분리된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설정은 황보장화를 완전히 남성적인 것으로도, 완전히 여성적인 것으로도 귀속시키지 않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인물로 그려내어 남성적인 학문과 여성적인 학문 사이에서 자유로이 오가게 하였다. 여성영웅을 남성적인 학문과 여성적인 학문 사이에서 자유로이 오가게 하는 설정은 『재생연』의 또 다른 여성영웅인 위용아의 서사에서도 구현된다. 위용아 역시 무예(武藝)와 침공(針工)을 동시에 익힌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3) 『재생연』에서 황보장화 부모의 태도는 『방한립전』의 부모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차옥덕은 『방한립전』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방한립이 천성으로 소탈한 옷과 남복을 원하므로, 부모가 그 뜻을 존중하여 남복을 입히는 태도, 방적수선을 권해보나 방관주가 스스로 폐하므로 구태여 권치 않는 태도를 “자녀중심적 교육 역할관”이라 칭하였는데, 본고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차옥덕, 「<방한립전>의

이거나 폐쇄적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재생연』에서 황보장화의 부모는 자식의 의지를 존중해서 잠재적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sup>44)</sup>

변방이 침범 당하자 황보경(황보장화와 황보소화의 아버지)과 위환(위용아의 아버지)은 함께 출정하지만 대패한다. 앞서 활쏘기 시합에서 패배하여 맹려군과의 혼약을 성사하지 못했던 유규벽은 다시 황보장화에게 구혼하지만 또 한 차례 거절당한다. 이때부터 황보집안에 앙심을 품은 유씨 집안은 황보경과 위환이 투항하였다고 거짓 상소한다. 이에 황제가 황보 집안과 유씨 집안을 포박하라는 명을 내리고,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활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편 어머니와 황보장화가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도적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로채가는데 이 도적의 우두머리는 위용아이다.

“어렸을 때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는 숙모를 모셔 무예와 침선을 익혔습니다. 황보총독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부친을 추천하여 함께 고려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참화를 입어 고려에 사로 잡혔으나 산동순무가 원수를 갚으려고 황제에게 거짓 상소를 하여

---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2~123면.

이외에도 장화 아버지의 자녀중심적 사고방식은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공자 비록 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부친이 너무 교만하고 첩을 많이 두었으며 그 태도 기고만장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장화는 본래 비범한 여자라 어찌 쉽게 이 혼인을 허락하겠는가? (劉門公子雖非俗, 伊父爲人太自驕, 大屋千間貯阿嬌, 勢焰滔天誰不曉. 真不比, 長華本是非凡女, 豈肯輕將八字拋.) 郭沫若校訂, 앞의 책, 165면. 위 대목은 황보장화의 아버지가 유규벽의 청혼을 거절하려는 장면이다. 앞서 활쏘기 시합에서 유규벽은 황보소화에게 패배하여 맹려군과의 혼인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다시 황보장화에게 청혼하려는 장면이다. 이때 장화의 아버지는 유규벽의 아버지 사람 됨됨이가 교만하면서 첩까지 많이 둔 상황을 상기한다. 게다가 장화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며 이 혼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아 미리 거절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황보장화의 아버지가 자녀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4) 이는 전술했던 『부장양문록』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황보총독과 부친을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제께서는 황보총독과 부친의 가족을 모두 잡으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본래 기이한 장수 집안의 여자라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신이라는 노복과 함께 남복을 입고 도주하여 기회를 기다려 동해를 건너가 고려를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웅호걸도 모집하고 창검도 만들어 반드시 고려를 정벌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아 심회를 즐겁게 하려 합니다.<sup>45)</sup>

위 인용문은 위용아가 처음 소개되는 대목으로 그녀가 황보장화에게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다. 위용아는 황보총독과 같이 출전하였던 위환의 딸로, 아버지가 잡혀가자 남장으로 환복한다. 위용아의 아버지 역시 황보장화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간신의 모함에 의하여 적군에게 투항하였다는 누명을 쓴다. 이에 위용아가 남복으로 환복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이어서 황보장화에 대한 연심을 버리지 못한 유규벽은 황보장화가 취대산(吹臺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대산(吹臺山)에 출전할 것을 자청한다. 그러나 끝내 황보장화와 위용아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이에 황보장화가 유규벽에게 그동안 꾸며왔던 음모들을 일일이 작성케 한다. 이 과정에서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아버지가 고려에 투항하였다고 모함하였던 간신은 유씨 집안의 친척으로, 이번 모함 역시 유씨 집안의 지시를 받고 꾸며낸 것임이 밝혀진다.

이후 황보장화와 황보소화, 위용아가 함께 아버지를 구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앞날 유규벽이 작성한 문서를 황제에게 보임으로써, 유씨 집안의 음모가 밝혀진다. 이로써 황보장화와 위용아에 의하여 집안의 누명이 벗겨지고 세력도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황보장화와 위용아가 공적영역에 참여하는 계기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효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구한 뒤, 그들의 공적영역에서의 활약이 종결되고 다시

45) 從幼母亡隨叔孀，熟嫻武藝與針工。皇甫督臺因奉旨，薦我家父共征東，不道中途遭慘禍。家君與，督臺同陷外邦中，山東巡撫爲仇敵，竟把虛言奏九重，竟誣良將爲謀反，兩路差官不放鬆。俺本是，生長將門奇女子，豈甘束手等鋼鋒。便同老僕名尤慎，女扮男妝去避兇，巴得個成名跨海去征東。廣招豪傑製刀鋒，立新要破東夷國，好報親仇暢此胸。(郭沫若校訂, 앞의 책, 252면.)

여성의 삶으로 돌아간다. 황보장화는 황후로 간택되고, 위용아도 여복으로 돌아입어 여성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맹려군의 경우 좀 더 복잡한 경과를 밟는다. 맹려군은 서사전개에 따라 의식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맹려군은 정혼자 가문을 재건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에서 남성적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의식은 공적영역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처음에 남주인공과 결혼하려는 생각을 갖고, 정혼자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가슴을 졸이던 맹려군이 벼슬을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을 거부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맹려군의 의식 변화는 정혼자를 구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영웅의 남장 활약이 실제 남성의 지위와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영웅을 새로운 자각의 단계로 들어서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맹려군은 일찍이 황보집안과 유씨집안의 청혼을 동시에 받는데 활쏘기 시합에서 황보소화가 이겨 맹려군과 황보소화의 혼인이 정해진다. 이때 마침 고려가 변방을 침범하여 황보경(황보소화의 아버지)이 위환과 함께 출전하지만 고려에 대패한다. 이에 간신이 황제에게 황보경이 적에게 투항하였다고 거짓 상소하고 황제가 황보 집안을 잡으라는 조서를 내리면서 유규벽에게 맹려군을 사혼시킨다. 이에 맹려군은 남북개척하기로 결심한다.

“송나라 영종시기에 남장을 한 뛰어난 여인이 두 명 있었는데, 한명은 낙양의 여자 사상아이고 한명은 광남의 규수 류경운이다. 모두 환난을 당하여 계교를 베풀어 남장하고 경성으로 갔는데 두 명 모두 급제하고 흩어진 가족과 다시 모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내가 만일 복식을 고치고 도주하여 사상아와 류경운의 일을 효칙하여 천지신명의 도우심을 받으면 황보 집안을 구하여 형벌을 받지 않게 하고, 만일 황보 가문이 모두 화를 입으면 내가 대신 복수하는 사람이 되리라.”<sup>46)</sup>

46) 想當初，宋朝正直寧宗帝，有二位，女扮男妝蓋世人。一個是，洛蕊奇才謝氏女。一個是，廣南閩秀柳卿雲。俱因患急施良計，接木移花上帝京。金榜題名都及第，到後來，團員無恙有芳名。奴若改妝逃出去，學一個，謝湘娥與柳卿雲。倘然天地垂憐念，保佑得，皇甫全家不受刑。倘若夫家俱被害，孟麗君，保妨做個報仇人。(郭沫若校訂, 앞의 책, 274면.)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맹려군은 “몸을 버려 이름을 보전함을 원”하고 “다만 죽어도 수절”<sup>47)</sup>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한다. 이는 맹려군이 훼손하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열녀의 형상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맹려군은 곧 자신이 자결하면 아버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상기하고<sup>48)</sup> 남북개작하여 과거에 응시하려 한다. 이는 맹려군이라는 인물이 효와 열을 중히 여기는 인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맹려군의 응과(應科)는 황보 집안을 구하여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맹려군이 복식을 고쳐 도주하는 것은 정혼자를 위해 수절하려는 것이었고, 벼슬하려는 것 또한 정혼자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맹려군이 스스로 남긴 제시(題詩)에서도 재확인된다. 맹려군은 가출을 실행하기 전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 위에 시를 붙여 가족에게 남긴 바 있다. 이 제시에서 맹려군은 “품절을 물들일 수 없고 쪽진 머리를 사모관대로 바꾸기를 원한다.”<sup>49)</sup>라는 말을 남긴다. 여기에서 품절을 지키는 것은 “열”에 해당한다. 즉 맹려군이 사모관대를 원하고 벼슬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황보소화에 대한 “열”을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위 분석을 통해 맹려군의 남북개작과 벼슬을 하려는 행위는 모두 정혼자를 위한 것<sup>50)</sup>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 갇혀진 여성의 삶에 대한

47) “我願輕生保一名，輕時守節重亡身。”(郭沫若校訂, 앞의 책, 272면.)

48) “奴就是，守節捐軀也算遲，何況今朝逢此事。正應該，全身進節赴陰司。咳，雖然如是，豈不貽累爹娘了?”(郭沫若校訂, 위의 책, 274면.)

49) “品節寧堪玉染瑕，願教螺髻換烏紗。”(郭沫若校訂, 위의 책, 281면.)

50) 정혼자를 위한 맹려군의 마음은 인용문 외에도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일 듣기로 황보낭군의 집이 이곳에 있다하더니 오늘 이미 강릉현의 이른지라 어찌 유심히 보지 아니리오?” 하고 머리를 들어 보니 수레가 관청을 지나고 있었다. 문을 겹겹이 잠그고 봉피에 빛이 남지 않았으며 황초 한 떨기 참담함을 가하더라. 여장원이 황보낭군의 집이름 알고 한숨을 크게 쉬고 눈물을 흘리더라. 며칠 뒤 함녕현으로 돌아와 다른 일이 없는지라. 서당에서 공부하다가도 소화공자의 일을 생각하면 꽃다운 마음이 참담하여 시서 가득하나 볼 마음이 없고 점점 형용이 초췌해지더라.” (“聞得說，夫家籍貫在其間。今朝既到江陵縣，何不留心觀一觀。”想罷抬頭觀遠近，行車將過一衙前。重重鐵鎖門雙掩，片片封皮色未殘。荒草一叢添慘淡，眼前正是夫家宅，痛倒了，女扮男妝鬪狀元。長歎一聲雙淚下。幾天回到咸寧縣。無事窗前用苦功，念及少華公子事，芳心幾度暗分崩。詩書滿架無心看，漸漸的，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맹려군이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이다. 즉 벼슬을 하고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공적영역에 진출한 뒤, 맹려군은 정체를 밝히고 난 후에도 혼인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처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맹려군에게 이러한 사상의 전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맹려군의 여성의식은 벼슬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맹려군이 장원급제하고 했던 첫 번째 실질적인 업무는 태후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 태의들이 태후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양감의 천거로 맹려군이 진맥을 하게 되고, 태후의 병을 치료하여 병부상서 대사마로 승품된다. 이때부터 맹려군의 의식은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나는 본래 규방의 여자인데 능히 장원급제하고 황제를 배알하며 또한 상서가 되었으니 세상 여자의 제일인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어찌 동방화축을 이룸을 바라겠는가?”<sup>51)</sup>

위 인용문에서 “세상 여자의 제일인으로서 동방화축을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맹려군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맹려군의 서사에서 그가 처음으로 혼인에 대한 거부의를 표현하는 대목이다. 벼슬하기 전까지는 정혼자를 위하여 정절을 지키고 정혼자가 돌아오면 그와 혼인하겠다는 맹려군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찌 장부(丈夫)에게 출가(出嫁)하여야만 온당하겠는가.”<sup>52)</sup>라는 말에서도 결혼하는 것만이 여성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맹려군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 활동할수록 맹려군은 삼종지도의 의무를 준수하는 여성의

---

樵悴香腮兩片紅.) 郭沫若校訂, 앞의 책, 327~328면. 위 대목은 맹려군이 정혼자의 옛집을 지나가다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맹려군은 황보소화의 비어 있는 집을 보고 슬퍼하여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도 황보소화의 일 때문에 걱정하여 공부도 못하며 얼굴도 초췌해진다. 이런 부분에서 황보소화에 대한 맹려군의 마음을 도출할 수 있다.

51) “我本深閨嬌弱女，竟能敷，三元及第拜天顏。今朝復任尚書位，也算得，世上裙釵第一番。何必洞房花燭夜，安心且做幾年官。”(郭沫若校訂, 위의 책, 416면.)

52) “何必嫁夫方算妥。”(郭沫若校訂, 위의 책, 666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없고 가부장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 갇힌 며느리와 아내만 있을 뿐이기에 그것으로부터 한번 벗어난 맹려군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맹려군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려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 인용문에서 맹려군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내 비록 여자나 이미 성은을 받아 벼슬에 올랐는데, 어찌 반드시 장부께로 돌아야 하는가? 곧 정실 왕비라도 어찌 나의 소원이리오? 하물며 승상 녹봉이 적지 않아서 내 스스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도다.”<sup>53)</sup>

위 인용문은 맹려군이 부모 앞에서 정체를 밝히고 황보소화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면이다. 앞서 맹려군은 맹부에 가서 맹부인(맹려군의 어머니)을 진뻐하는데, 맹부인이 혼절하자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결국 정체를 밝힌다. 그러면서 황보 집안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만일 못사람들이 나를 뺨박하면 골육지정을 끊”<sup>54)</sup>겠다는 매정한 말까지 내뱉는다. 부모의 은정을 버리면서까지 결혼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아울러 맹려군이 “정실 왕비라도 어찌 나의 소원이리오?”라고 말하는 대목을 눈 여겨 볼만하다.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며, 그의 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녹봉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획득함으로써 장부(丈夫)에게 돌아갈 이유가 더욱 없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맹려군의 강한 자의식이 재차 확인된다.<sup>55)</sup>

한편 황제는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 맹려군을 찾는 방을 붙인다. 이때

53) “麗君雖則是裙釵，現在而今立赤階。浩蕩皇恩垂萬代，巍峨爵位列三台。何須必要歸夫婿，就是這，正室王妃豈我懷。況有那，宰臣官俸巍巍在，自身可養自身來。”(郭沫若校訂, 앞의 책, 761면.)

54) “如若大家相逼我，孩兒索性斷親情。”(郭沫若校訂, 위의 책, 764면.)

55) 이는 버지니아 울프가 돈의 중요성에 대해 전개한 논의와 상통한 면을 보인다. 버지니아 울프는 돈의 영향력에 대하여 여성이 돈을 뵈으로써 더 이상 아버지나 남자 형제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애교를 부릴 필요가 없고, 가족이 여성에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버지니아 울프, 이미에 옮김,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호광부(湖廣府)의 노표운(路飄雲)이라는 여인과 운남부(雲南府)의 항남금(項南金)이라는 여인이 맹려군이라 사칭하고 상경한다. 사칭한 항남금이 입궐하자 맹려군은 항남금이 자기를 대신하여 황보소화와 결혼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황제의 명에 따라 항남금이 부친과 형을 반열 중에서 찾아내고 그간 있었던 일을 묻자 모두 맞게 대답한다.<sup>56)</sup> 이에 황제는 항남금이 맹려군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확인 차원에서 맹부인을 입궐케 한다. 맹부인은 입궐하여 항남금이 자기 딸이 아니라며 조정 중의 맹려군이 자기 딸이라 지목한다. 이에 맹려군은 사모와 옥대를 벗으며 관직을 그만 두겠다 하고 황제가 이에 크게 노하면서 맹승상의 녹봉을 감한다. 집에 돌아온 맹려군은 조정에 있었던 일을 소영설에게 말하고, 소영설은 맹려군이 골육지의까지 아는 체 하지 않음을 원망한다. 이에 맹려군은 다음과 같이 회답한다.

“이번 생은 다만 본신을 숨기는 것이 좋겠노라. 이는 더 이상의 논할 것이 없도다. 효심을 다 하지 못하여도 충심은 가히 다했으니 나의 뜻은 조정에서 몇 해 벼슬하다가 성공한 후에 군상께 하직하고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부모의 은덕과 향려지정은 모두 후생으로 미루겠도다.”<sup>57)</sup>

위 인용문은 맹려군이 설사 벼슬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정체를 숨긴 채 혼인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단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부득이하게 혼인을 이룰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혼인을 거부하는 의지를 보였다면,<sup>58)</sup> 여기에서부터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다.<sup>59)</sup> 특히 자신의 뜻은 조정에서 몇 해

56) 항남금이 맹려군의 일에 대하여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은 맹부(孟府)에서 일하던 종이 맹부에서 나와 다시 항남금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57) “今世里，看來只好隱原軀。咳，如今也沒有什麼商量的了。孝心不盡忠堪盡，主意要，且爲黎民做好官。盡瘁幾年辭了職，也只好，脫貂卸蟒返林泉。劬勞恩德來生報，伉儷情緣後世言。”(郭沫若校訂, 앞의 책, 921면.)

58) 맹려군은 “천자를 속이고 대신을 회롱하며 음양을 변하여 사람의 혼인을 그릇 친 죄” 네 가지 핑계를 들어 부모에게 정체를 밝힐 수 없어 혼인을 이루지 못하고 한 바 있다. “瞞蔽天子，戲弄大臣，淆亂陰陽，誤人婚姻。”(郭沫若校訂, 위의 책, 760면.)

59) 이외에도 서사가 전개되는 동안 맹려군이 평생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

더 벼슬을 하고 성공한 후에 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며 부모의 은덕(恩德)까지 후생으로 미룬다. 이는 서사의 앞부분에서 황보소화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결심하다가도 부모에게 화(禍)가 연루될까 주춧했던 맹려군이 부모와의 인연까지 끊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가정 내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할 제약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려군은 부모의 은덕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규방의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맹려군은 더 이상 정혼자에 대한 “열”을 가장 중요시하고, 정혼자에게만 의존하면서 정혼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인물이 아니다. 공적영역을 경험함으로써 맹려군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줄 아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재생연』의 황보장화·위용아·맹려군이 공적영역에 진출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처음부터 여성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남북개착을 하고 사회적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걸쳐 여성의 삶을 거부하였다. 이런 점에서 장벽계는 처음부터 강렬한

---

러 번 피력한다.

[1] “소녀 홍진에 미련의 뜻이 없는지라. 규중에서 부모를 모시다가 산중에 은거하여 선도를 배우려 하느니 만일 황보가문의 일을 말하면 소녀 비록 향리를 맺지 못하였으나 이미 은덕을 많이 보답하였사옵니다.” (“孩兒無意戀紅塵，深閨奉侍雙老邁，避跡仙山學道真。若雲皇甫家中事，兒雖然，未結絲羅報已深。”) 郭沫若校訂, 앞의 책, 829면. 이 대목은 맹려군의 정체가 밝혀짐에 따라 황제가 맹려군과 황보소화의 혼인을 추진할 때, 맹려군이 부모에게 회답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맹려군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고 다만 부모를 모시다가 산중에 은거하여 도술을 배우려는 자신의 뜻을 부모에게 전달한다. 이때 말하는 속세에 대한 미련은 황보소화와 혼인을 가리킨다.

[2] “평생에 세간속사를 모두 거절하려고 하옵니. 금일에 은전을 무릇 써 저를 의녀로 삼았으니 차후는 다만 조석으로 모친을 시봉함을 원하고 부귀영화와 향려 인연은 이미 마음에 잊은 지 오래 되었사옵니다.” (“所有那，人事紅塵畢恨。今日里蒙恩格外，將臣兒認作娘親後，但則願，朝夕把親娘守。那些富貴榮華伉儷，早已灰久。”) 郭沫若校訂, 위의 책, 840면. 맹려군의 정체가 밝혀지나 전일의 공로가 인정되어 태후가 맹려군을 양녀로 삼는 장면이다. 이때 맹려군이 태후에게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피력하는데, 역시 향려 인연은 잊은 지 오래 되었다고 말한다.

문제의식을 지녔던 인물이다. 이에 반해 『재생연』의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아버지를 구하려는 효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적영역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아버지를 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한 뒤, 아무런 불만 없이 여성의 삶으로 회귀한다. 한편 맹려군은 처음 정혼자를 위한 열의식에 기인하여 남북개작 하였다. 그러나 열의식은 벼슬하는 과정에서 점점 변화하여 여성적 삶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바뀌는데, 맹려군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인물로 변화하여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같은 양상을 띤다.

## 2) 武와 文의 활약

앞 절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는 각자의 계기로 공적영역에 진출한 4명의 여성영웅이 등장한다. 이 절에서는 이들이 작품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약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무(武)의 영역에서, 장벽계와 맹려군은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한다.<sup>60)</sup> 먼저 무(武)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황보장화와 위용아를 살펴보자.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효의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적영역에 들어선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함께 출전하지만 대패하고 3년간 감옥에서 지낸다. 이때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무술(武術)로 아버지를 구해내고 가문을 다시 회복한다.

여장군(황보장화)이 사람을 거느려 사문도에서 삼십여 리 되는 곳에서 우선봉 위용아의 병마와 모여 오원수의 대군을 바다의 한 가운데로 둘러쌌다. 열중의 아홉을 죽이고 여장군이 적군 열 한명의 머리와 오원수의 금인을 드리며 우선봉(위용아)은 칠천여 명의

60) 여기에서 말하는 무(武)의 활약은 전쟁에서 무술(武術)로서 활약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힘의 보장을 필요로 한 영역이기에 남녀 성차의 제한을 보다 쉽게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문(文)의 영역은 먼저 큰 범주에서 무(武)를 제외한 영역으로 보았는데, 장벽계가 문장능력으로 활약하는 것은 당연히 문(文)의 활약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맹려군이 의술(醫術)로서 활약하는 것은 의녀(醫女)가 여성에게 가문 밖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 의술(醫術)이 힘의 보장과 같은 남녀 성차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의술(醫術) 역시 문(文)의 영역으로 귀속시켰다.

고려 병졸을 따라가 살해하였다.<sup>61)</sup>

위 장면은 황보장화<sup>62)</sup>와 위용아가 전장에서 무술(武術)로 활약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장면이다. 앞서 황보장화와 위용아의 아버지는 변방을 진압하려 출전했지만 대패하여 감옥에 갇힌 바 있다. 이때 황보 집안에 앙심을 품고 있던 유씨 집안에서는 음모를 꾸며 두 사람이 적국(敵國)에 투항하였다는 거짓 상소를 올린다. 이로부터 황보 가문과 위씨 가문이 몰락하게 된다. 이에 황보장화와 위용아가 다시 출전하여 아버지를 가둔 고려와 싸우는 장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황보장화와 위용아는 어렸을 때부터 침공(針工)과 무예(武藝)를 동시에 배운다. 두 사람은 그때 연마해둔 무예(武藝)를 발휘하여 적국을 진압시키고 아버지를 구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어서 황보장화는 황후로 간택되고, 위용아 역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서사는 일단락 짓는다. 이는 두 사람이 효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공적영역에 들어선 만큼 목적을 달성한 뒤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다음은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재생연』의 맹려군을 살펴보자.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아버지의 유배지에서 병법(武)과 문장(文)을 동시에 연마하는데<sup>63)</sup>, 서사에서 보다 강조되

---

61) 卻說靖國女將軍提兵追趕，離沙門島三十餘里，又會著了右先鋒的人馬，把鄒元帥困在海心，又殺了個十停去九。女將軍獻上十一顆敵官首級，及鄒元帥的金印。右先鋒追殺七千餘東夷人馬。(郭沫若校訂, 앞의 책, 481면.)

62) 황보장화가 남장을 시도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공적영역에 진출한 점은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박씨전』을 연상케 한다. 다만 『박씨전』에서 박씨부인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고 남편이나 시비 등의 대리자를 통해 공적 세계와 접촉하는데 반해, 황보장화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한다. 박혜숙은 『박씨전』에서 박씨부인이 남장을 하지도 않고 집밖을 나가지도 않는 것은 남성을 모방하는 일 없이, 여성인 채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는 여성의 탁월성과 가치를 주장한 것이라고 논의했다. 그런 점에서 남성과는 구별되는 여성성과 여성적 가치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179면.

63) 쇼테 원흥으로 더부러 주야근독(晝夜勤讀)하며 천문서(天文書)와 육도삼략(六韜三略)을 주야숙독(晝夜熟讀)하니 문당(文章)이 강하(江河)음을 거후르며 귀신(鬼神)을 울닐디라. 그 지조(才操) 범의 신이호민 회지(羲之)부생(復生)하니 밋지 못홀디니. 필하(筆下)의 주옥(珠玉)이 산산하고 농식비등하니. <권지일, 6a> 이 대목에서도 장벽계의 문장을 왕희지가 부생한다는 데에 비유하여 그녀의 문장실력을 부각했다.

는 것은 문(文)의 영역에서의 활약이다. 이는 장벽계가 무(武)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장면이 앞부분에서 짧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로 장벽계는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한다. 먼저 장벽계가 무(武)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일위(一位) 소장이 빅포 슈운갑의 청총말(靑驄馬)을 타고 나는  
다시 드러오며 하늘을 우리러 풍백(風伯)을 불너 꾸지딘디 운매  
거드며 빅일(白日)이 명낭(明朗)흔디 귀신(鬼神)도 측양(測量) 못  
할 팔문금스딘(八門金蛇陣)을 일시(一時)의 풀며 횡횡(橫行) 진뚱  
(陣中)흔디 하나도 디적(對敵)하리 업스니, (중략) 청총마(靑驄馬)  
다듯는 곳의 만군장졸(萬君將卒)의 죽어미 피갓고 성혈(腥血)이  
내갓고(후략). <권지일, 13a>

위 장면은 흥노와 싸우다 곤경에 빠진 대원수 정필을 장벽계가 구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흥노족이라는 변방민족을 적으로 설정하고, 장벽계가 흥노를 죽이는 장면에 대하여 “피갓고 성혈이 내갓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박혜숙의 지적대로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들의 부정적 가치들도 고스란히 모방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64)</sup>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장벽계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피갓고 성혈이 내갓다.”라는 몇자로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인상을 줄만큼 짧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군담 장면을 서술할 때 진법을 푸는 장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을 요한다. 진법을 푸는 행위는 무력보다는 지략과 관련된 것으로 서사 내에서 전투 상황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다.<sup>65)</sup> 지략전에서도 무력의 측면이 나타나지만, 진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64) 박혜숙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이민족을 주변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가차 없이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고관념은 여성영웅소설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영웅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군담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남성들의 긍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부정적 가치들을 모방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지닌 문제의식이 반성적 자세를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논의하였다. 또 ‘여성다움이나 여성적 가치’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에서 이런 측면이 ‘남성적’ 여성영웅의 면모와 함께 드러날 때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의식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았다. 박혜숙, 앞의 논문, 11~13면.

실제의 전투상황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진법을 풀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폭력의 행사 면에서도 폭력적인 장면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 즉, 『부장양문록』은 여성영웅소설의 관습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장벽계라는 인물을 부각함에 있어 폭력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법을 풀어 능력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문장능력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설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벽계의 출전내용은 위 대목에서 끝을 맺고, 이후 서사에서는 주로 문(文)의 영역에서 문장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제 부한님(傅翰林)이 지나다가 그 글을 보니 문득 문치(文彩) 정신(精神)이 훑터지고 버거 사의(辭意) 완곡(婉曲) 청고(淸高) 격절(激切) 상쾌(爽快)호여 용(龍)이 서리고 봉(鳳)이 춤추니 보기를 칠 못호여 탄식(歎息)호되, “본디 너 문장(文章)을 자부(自負)호더니 가히 하날 아래 음(陰)을 너고 양(陽)을 너미라 이 었던 사람인고?” <권지이, 2b>

장벽계가 남장가출하고 태운사에서 거주할 때, 글 한 장을 지어 노승에게 주어 팔게 한 적이 있었다. 우연히 길을 지나던 부계는 글쓴이의 출중한 문장솜씨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평소 자신의 문장에 자부심을 가진 부계이지만, 이 글을 보고나서는 문장의 뛰어난에 발길을 멈추고 글쓴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노승에게 장벽계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장벽계를 찾아가 교유한다. 이는 부계와 장벽계가 북해에서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다. 즉 여기에서 장벽계의 문장능력은 장벽계와 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장벽계의 뛰어난 문장능력은 장벽계와 부계를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앗가 소비(小婢) 윤부(尹府)의 가니 마참 연괴(緣故) 잇서 문

65) 김도환은 군담에서의 영웅형상을 계략을 세우고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하는 지장(智將)과 장수 개인의 비범한 무력(武力)을 극대화한 무장(武將)의 형상으로 대별한 바 있다.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4면.

장(文章)을 꾸미려고 당상공을 청하시미 가지면 일식(日色)이 저  
 무려 도라오시지 못할거시오. 문당(文章) 꾸밀거시 여러 조건이오  
 미 운부의셔 달야(達夜)하실지라.” <권지이, 49b>

한편, 부계는 장벽계와 윤선강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도 쉽게 혼인을  
 성사하지 못한다. 이때 우연히 윤선강의 시비를 만나게 되는데, 시비의  
 입에서 장벽계가 집을 비우게 된다는 정보를 얻는다. 이에 부계는 장벽  
 계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윤선강을 설득하고자 그녀를 찾아 나선다. 이  
 때 장벽계가 집을 비우는 이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문장과 관련이 있다. 마침 운부에서 문장을 지을 일이 있었는데, 장벽계  
 의 출중한 문장실력에 장벽계를 청해 간 것이다. 여기에서 장벽계의 문  
 장실력은 부계와 윤선강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렇  
 듯 장벽계의 문장실력은 서사 곳곳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삽입되며 서사  
 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벽계의 문장실력은 특히 다음 대  
 목에서 곡진하게 드러난다.

이썩에 시절(時節)이 승평(昇平)하고 사히(四海) 안락(安樂)하더  
 니 문득 흉녀(匈奴) 사신(使臣)을 부려 글월을 보너여시나 만조백  
 관(滿朝百官)이 아라보리 업스니 천주(天子) 근심하시더니 승상(丞  
 相) 덩필이 출반주왈(出班奏曰), “호적(胡狄)이 둥국(中國)의 인주  
 (人才)업시물 보려 니체(異體)를 만드려 둥국(中國)을 막바드니 당  
 조(當朝) 후(後) 처음이라. 명황(明皇)은 니백(李白)의 지조(才藻)  
 로 흉노(匈奴)를 항복(降服) 바드나 아조(我朝)는 니백(李白)이 업  
 스니 뉘 능히 이 환(患)을 풀이닛고. 다만 생각건디 녁능후 당해 공  
 교(工巧)헌 지죄(才藻) 신출귀몰(神出鬼沒)하니 하늘을 통(通)하고  
 번셔(翻書)를 볼가 하느이다.” 상이 썩다라스 영능후를 명픽(命牌)  
 하시니 (중략) 당후 웃고 주왈(奏曰), “신(臣)이 폐하(陛下)의 은혜  
 (恩惠) 하늘 갓하녀 수화(水火)라도 감심(甘心)하오려든 이런 쉬운  
 일을 응(應)치 아니릿고.” (중략) 옥성(玉聲)을 길기 싸혀 번셔(翻  
 書)를 한어(漢語)로 번역(翻譯)하여 읽고 다시 한번 읽으되 소리  
 청고(淸高) 웅장(雄壯)하고 일획일주(一劃一字)도 거치미 업스니  
 전상전하(殿上殿下) 다 역식(易色)하고 번스(翻師) 등에 짬이 느더  
 라. 황문시랑이 산호필(珊瑚筆)과 용미연(龍尾硯)을 맞들어 나오릭

번서(讎書)로 답(對答)하여 조서(詔書)를 지어 한번 읽기를 다한 후天子(天子) 어람(御覽)하시니 한서(漢書) 글씨와 똑같아 식발(食發) 못하되 능히 아라보지 못하되 스의(辭意) 엄정(嚴正) 준절(峻節)하여 흉노(匈奴)로 하여금 한번 보되 마암이 썰이게 하였는지라. 거두어 번스(讎師)를 주고 되하여 소리를 가다듬아 꾸져 왓, “너의 군(君)이 감히 중국(中國)을 업슈어 여겨 스곡문즈(邪曲文字)를 민드러 틱바드니 당당히 너를 배히고 하늘 위험(危險)을 진발(進發)하시면 일지군(一枝軍)을 발하여 네 나라를 지브를 거시로되 성상(聖上)의 덕화(德化)로 흉노(匈奴)를 족슈(足數)치 아니시고 조서(詔書)를 나리와 위엄(威嚴)하시느니 네 도라가 네 군 다려 회과천선(悔過遷善)하여 머리를 보전(保全)하고 기업(基業)을 직희라.”하더라. 번스(讎師) 고두빅빅(口頭百拜)하고 물너가니 상이 시신(侍臣)을 도라보으 콜오사되, “만고(萬古)을 기우려도 당해갖흔 이 님 잇느뇨.” 만쵸(滿朝) 일시(一時)의 제시(提斯)례(禮)하더라.” <권지삼, 39b~41b>

이 장면은 장벽계가 문필로 왕의 인정을 받는 장면으로 문(文)의 영역에서 장벽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 장면은 장벽계가 이미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는 황제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도 장벽계의 공적 활동을 승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가 밝혀진 장벽계는 전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사마 병부상서 인수는 거두지만 봉작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공사를 집에서 처리하도록 허락 받는다. 이때 흉노족에서 중국을 시험하고자 이체문자로 글을 보냈는데 조정에서 이를 해독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장벽계가 천자의 청탁을 받고 이 위기를 해결한다. 특히 남성들이 이를 해독하지 못하는 반면 장벽계는 “이런 쉬운 일을 거침없이” 해독해 나갈 뿐만 아니라 흉노족을 꾸짖는 답변까지 작성한다. 위와 같이 장벽계는 흉노족의 사신과 조정대신들을 압도하는데, 이를 통해 문장과 관련된 일에서 장벽계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장벽계의 문장능력이 재확인된다.

장벽계의 문장실력은 황제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 장벽계가 여성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사와 관련된 글을 작성할 때 윤씨와 부씨 집안에서는 그녀의 문장을 구경하러 오기도 한다. 이때 사

람들은 장벽계의 훌륭한 문장솜씨에 감탄하여 옥경진인과 이태백에 비견하기도 한다.<sup>66)</sup> 이렇듯 장벽계의 문장능력은 작품의 중요한 사건마다 삽입되어 서사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로 작동하며 서사전개에 큰 영향력을 끼쳐 소설 전편을 관통한다.

장벽계가 주로 문필로 능력을 발휘하였다면 맹려군은 의술(醫術)을 통하여 공적영역에서 입지를 다진다. 맹려군의 서사에서 군담은 나타나지 않고 장원급제 후 의술을 행하는 모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원급제한 맹려군은 태후의 병을 고쳐 병부상서 대사마로 승품한다. 전일 황후가 타계한 일로 충격을 받은 황태후는 병이 든다. 태의들이 태후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양승상의 천거로 맹려군이 진맥하여 처방을 내리고 태후가 곧 완쾌된다. 이 과정에서 맹려군의 뛰어난 의술이 두드러진다. 서사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맹려군의 뛰어난 의술이 부각된다. 맹부인의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맹상서는 명의(名醫)를 청하여 보게 한다. 이때 맹상서가 지목했던 명의(名醫)가 바로 맹려군이었다.<sup>67)</sup> 이렇듯 맹려군은 의술(醫術)을 통하여 공적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66) 시시(是時)의 당후 영능 급훈 정사(政事) 잇고 도정(朝廷)에 문당(文章) 꾸밀 거시 잇는지라. 급히 부술 드러 휘필(揮筆)호더니 (중략) 학스의 이라물 보고 마즈 브라호고 손으로 화관(花冠)을 여라만져 바르게 호고 씨를 쓰을고 주리(珠履)를 신으며 입으로 금슈문장(錦繡文章)을 토호니 옥성(玉聲)이 도도(滔滔)호여 공산쇄옥(空山碎玉)이오, 문장(文章)이 호호(浩浩)호여 장강(長江)을 거후라며 잇척 부싱 형제(兄弟)와 윤싱 등이 그 문장(文章) 꾸민 거슬 보려고 틈을 타스도를 불러 다리고 이르러 보고 부시랑이 탄식왈(歎息曰), “진실로 장형수(張兄嫂)는 옥경진인(玉京真人)이 강림(降臨)치 아녀시면 벽벽히 청연이 부싱(復生)호미라.”호물 믈지 아니호니 스되 디소왈(大笑曰), “어나 미친 진군과 티빅이 저런 여즈 되리잇고.” 제인(諸人)이 디소(大笑)하더라. <권지사, 17b~18b>

67) “내 보건대 너의 모친 증세가 이미 팔구분이나 심중하니 일찍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라. 태의와 다른 의생을 여러 번 청하여 약을 썼으나 모두 효력이 없으니 이는 모두 여아를 생각하여서이다. 모름지기 명의를 청하여 한 번 보게 할지라. 내 생각건대 보화전 태학사 여군옥이 의술에 정통하여 전일 태후낭당의 병도 여군옥이 낫게 한지라. 또 듣기로 상한증으로 위중한 자 있었는데 여군옥이 가서 보고 회생케 하였다 하니 헤아리건대 의술을 깊이 통달하므로 너의 모친도 병이 낫기 어려운지라. 다만 여군옥을 청하는 것이 좋겠도다.” (“我看你，母親已有八九分病症了，須得早醫方好，太醫院內已曾觀，別者岐黃請過三，用藥無功全不效。這都是，因思愛女病難痊，也須當，訪個高明治一番。我思保和殿大學士鄭明堂，他是精於醫理的，太后娘娘病染身，是她醫治得安寧。聞說別家伊亦去，某同年，傷寒待死又重生，看來深曉岐黃術。汝母今番難得好，商量只好請他來。”) 郭沫若校訂, 앞의 책, 740면.

한다. 특히 의녀(醫女)가 여성들에게 가문 밖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맹려군이 의술(醫術)로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맹려군이 여성의 현실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장능력을 통하여 공적영역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장벽계의 문제의식은 서사의 마지막까지 유지된다. 이와 반대로 『재생연』의 황보장화와 위용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공적영역에 들어선다. 따라서 무(武)의 활약을 통하여 아버지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으로 돌아간다. 한편 맹려군은 처음 정혼자 가문을 구하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의술(醫術)을 통하여 공적영역에서 입지를 다진다. 아울러 공적영역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여성의 삶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맹려군은 궁극적으로 장벽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68)</sup>

## 2. 여성조력자의 형상

### 1) 동성혼인에 대한 태도

남장을 하고 도로에서 유리하던 장벽계는 윤침을 만나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는데, 이때 장벽계와 윤선강의 정혼이 이루어진다. 윤선강의 오빠와 어머니가 장벽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차에 마침 부계가 윤선강에게 통혼하자 그들은 장벽계를 몰래 내쫓고 부계의 통혼을 받아들인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윤선강은 장벽계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

68) 그렇다면 『부장양문록』에서 여성영웅을 문(文)으로 활약하게 하는 설정, 『재생연』에서 세명의 여성영웅을 한 자리 모아놓고 처음에는 비슷한 의식 아래에서 남장을 하지만 각기 무(武)와 문(文)의 활약을 통하여 급기야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되는 설정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는 작가가 문(文)으로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부각함으로써 여성영웅이 갖는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유지시켜 독자의 진지한 고민을 끌어내려는데 목적이 있다.

남장하고 집을 떠난다. 이때 피신한 절에서 우연히 부계를 만난 윤선강은 낮선 남자(부계)에게 손목을 잡혀 한 방에서 지내게 된 상황을 꿰찰이라 여겨 자결을 시도한다. 윤선강은 평소에도 백희의 삶에 감화된 인물로 서술되는데<sup>69</sup>), 꿰찰하지 않기 위해 자결을 선택하는 모습은 일면 당연하다. 마침 장벽계 또한 절에 찾아와 윤선강을 만나게 되는데 윤선강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장벽계는 윤선강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자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밝힌다.

당싱니 저의 견고(堅固)한 행실(行實)을 항복(降服) 맞기 어려울지라. 웃고 윤쇼제의 옥수(玉手)을 잡고 가마니 귀에 다치고 자계(自己) 평생(平生)을 그린드시 옹기니 윤쇼제 청파(聽罷)의 장신당의(將信將疑)하여 쌍안(雙眼)을 거듭 써 당쇼제를 보고 말을 아니커늘 그 밋지 아니물 알고 자괴(自己) 비상(臂上) 잉혈(鶯血)을 뵈며 추연(惘然) 왓, “쇼제는 나의 말을 밋지 아니나 너 만일 남즈면 무산 일노 그덕을 향하여 헛말허리오. 그덕계 전헌 빙폐(聘幣)가 부한님니 소싱의계 전헌 빙물(聘物)이니 부한님기 집수(執手)허물 욱(辱)도니 역이지 말노.” 윤쇼제 그제야 씨다라 다만 첩(妾)은 상공기 빙폐(聘幣)을 브다시니 엇지 부한님의 집수(執手)허미 욱(辱)이 으니리오. 당쇼제 우어 왓, “연니노 그 빙폐(聘幣) 주년(主人)은 부한님이라. 소싱도 실은 부한님기 속현(續絃)하여시니. 쇼싱의계 쓰라운 직야 더욱 혼예을 정허며, 일방(一房)의 남녀(男女) 달야(達夜)허얏거날 엇지 헛거술 직회여 딴짓거설 물이치리오.” 윤쇼제 침음(沈陰) 묵묵(默默) 반향(半晌)이여늘 당쇼제 왓, “만일(萬一) 학싱을 잇지 못홀거시면 부부(夫婦) 변하여 형제(兄弟) 되어 영욕비환(榮辱悲歡)을 한가지로 허미 엇더허요. 윤쇼제로 연치(年齒)을 일어 당쇼제가 반월(半月) 맞지라. 윤씨 당씨을 놓히 안치고 사비(四拜)하여 형제로 댁고 윤쇼제 독기를 가를 삼던 궁천지한이 홀연(忽然) 변하여 깃부미 심두(心頭)의 넘치니 윤쇼제 당쇼제 곁히 안지며 느죽니 고왓, “금일(今日)노붓터 쇼제 형의 그림지 되어 사싱(死生)을 형의 몸을 쏘을지라. 진퇴(進退)을

69) 그 모친(母親) 덩시 기몽(奇夢)을 엇고 탄싱(誕生)허니 식광(色光) 안모(顏貌)는 모란(牡丹)이 초로를 썰치고 홍일(紅日)이 창희(滄海)에 소슴 갖고 직덕(才德)이 겸비(兼備)하여 빅희(伯姬)에 고집(固執)과 초녀의 빈혀 품음을 감심(甘心)홀지라. <권지일, 16a>

쇼제 홀노 링세(盟誓)호여스라도 한 집의 즐기고 죽어도 동향(同鄉) 썩쓸이 되려호나이다.” <권지이, 23b~24b>

위 인용문은 장벽계가 윤선강에게 그간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윤선강이 회답하는 대목이다. 장벽계는 윤선강에게 형제가 될 것을 제안하고, 윤선강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생을 장벽계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그런데 장벽계가 윤선강과 의형제를 맺는 행위에는 다른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바로 윤선강에게 부계와 혼인할 것을 부추겨 자신의 혼인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sup>70)</sup> 이때 윤선강은 여전히 장벽계를 따르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인다. 형제지의를 맺고도 자신을 밀어내는 장벽계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한 번 뺄은 말은 두 번 고치는 법이 없고, 몸과 그림자가 따로 두 집안에 있는 법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sup>71)</sup> 윤선강이 장벽계를 따르려는 행위는 장벽계가 “우환”을 느낄 정도이다. 위와 같이 윤선강이 장벽계와 형제지의를 맺고 동성혼인을 하는 것은 윤선강이 장벽계가 여성임을 인지한 후 진행된 것이다. 즉 윤선강이 동성혼인을 선택하는 것은 주체적인 성격을 띤다.

이와 반대로 『재생연』의 여성조력자는 미지의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동성혼인에 휘말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연』의 여성조력자는 맹려군의 시녀 소영설이다. 소영설은 활쏘기 시합에서 황보소화를 본 뒤 그에게 반하여 수절할 것을 결심한다. 한편 맹려군은 황보소화와 정혼한 상황에서 유규벽이 구혼하자 절의를 지키기 위해 남장으로 환복하고 도주한다. 맹려군은 도주하며 소영설이 자신을 대신하여 유규벽과 결혼케

70) 윤쇼제의 손을 잡고 우어 왈, “현제(賢弟)야, 우형(愚兄)은 진실노 부한님의 슈견(手巾) 받드는 쇼님(所任)은 답답호고 녹녹(碌碌)호여 못호리니, 현제 우형을 디신(代身)호라. <권지이, 24b>

장벽계가 윤선강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부계와 혼인하라는 부분은 다음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형은 죽어도 남의 안희 되지 못호리라. 스제 우형의 낫출 보아 부가의 도라가라.” 윤소제 양구(良久)의 디왈, “조그만호 방촌 가운데 마암 직회오미 잇셔 천신(天神)디 링세(盟誓) 써두어시니 엇지 두번 고치리요. 사싱진퇴(死生進退) 형장(兄丈)이 제(弟)오. 소제(小弟) 형장(兄丈)이라. 약제(弱弟)를 협박(脅迫)지 마라소서.” <권지삼, 33a~33b>

71) 윤씨 정식(正色) 왈, “빅일지하(白日之下)의 한번 말을 니고 두 번 곳치리억가. 몸니 잇고 그림즈 타문(他門)의 가지 못호리라. <권지이, 25a>

하는 편지를 남긴다. 이에 소영설은 유규벽과의 혼인을 원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혼인날 그를 해치고 자결할 계획을 세운다. 소영설은 혼인날 유규벽의 얼굴에 칼을 던진 후 투강하나 양감(梁鑑)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양소화(梁素華)로 개명하여 함께 상경한다. 이때 양감(梁鑑)의 주도에 의하여 장원급제한 맹려군과 소영설의 혼인이 정해진다. 그러나 소영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혼인을 극구 거부하는데, 이는 황보소화에 대한 정절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다 소영설은 꿈에서 혼인을 이루라는 지시를 받는다.

“월화옹의 말이 궤이하니 어찌 내일 단장하고 경대 앞에서 고인을 보리라 하는가? 자세히 생각건대 일찍이 의부가 황보 가문의 일을 말씀하시기를 소화 다행히 먼저 도주하였다하시더니 혹 소화가 황성 안에 있음이 아니냐? 이러므로 신명이 말하기를 고인을 보리라 함인 듯하도다. 월화옹아, 과연 내일 소화를 본다면 장원을 버리고 소화에게 던질 것이고 채루에서 소화와 정혼하면 내 또한 심회를 펼 것이다. 만일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다른 계교를 내어 황천으로 갈지라.”<sup>72)</sup>

본래 황보소화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혼인을 거부했던 소영설은 혼인 전날 꿈에서 이번 정혼자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얻는다. 이에 소영설은 황제가 황보집안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에 앞서 황보소화가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자신의 정혼자가 황보소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에 혼인을 받아들이면서 만약 정혼자가 황보소화가 아닐 경우 자결하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정혼자를 황보소화라고 믿고 있던 소영설은 혼인날 비로소 정혼자가 자신의 주인인 맹려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소영설은 정혼자가 황보소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안도한다. 맹려군과의 동성혼인을 통해 황보소화에 대한 절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영설과 맹려군은 동성혼인을 이루게 되지만, 이는 소영설

72) “冰人月老言辭怪，怎麼說，明日妝臺見故交。細思量，義父曾言皇甫姓，說道是，少年幸得已先逃，莫非他在皇都內，故此神明說舊交。果若明朝見少華，撇開鼎甲竟拋他，彩樓招得風流客，奴也可，表表衷腸訴訴嗟，如若不能從所願，再圖別計赴黃沙。”(郭沫若校訂, 앞의 책, 360면.)

의 주체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정혼자가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장양문록』의 여성조력자 윤선강은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동성혼인을 다짐한 데 반해, 『재생연』의 여성조력자 소영설은 정혼자가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인물이라 믿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혼인을 하게 된다. 요컨대 윤선강은 자발적으로, 소영설은 우연한 계기로 동성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윤선강과 소영설이 동성혼을 선택한 계기는 앞으로 그녀들이 이성혼을 이루고 난 후 여성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될 것임을 예고한다.

## 2) 여성영웅에 대한 태도

『부장양문록』에서 형제지의를 맺은 장벽계와 윤선강은 정체가 들통날 까봐 부계를 따돌리고 본가로 돌아가 부부행세를 한다.<sup>73)</sup> 그곳에서 시사를 창화하고 박혁을 즐기며 사이 좋게 지낸다. 이런 화합한 분위기는 장벽계가 부계에게 정체를 들키기 전까지 지속된다. 장벽계는 부계와 교류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연히 앵혈을 보여 여자의 신분이 밝혀진다. 평소에 장벽계와의 혼인을 간절히 바라던 부계는 장벽계를 찾아와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밝힐 것을 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맞이하자 전략을 수정하여 결국 윤선강을 찾아간다.

“첩은 불용(不用) 누덜(陋質)노 식견(識見)이 천박(淺薄)한디  
가중(家中) 부형(父兄) 수삼닌(數三人) 맞기 아람이 업더니 부명  
(父命)을 밋즈와 당후의[장벽계] 빙폐(聘幣)를 바드미 건줄(巾櫛)  
을 밋들고 종시(終始) 고락(苦樂)의 저바리지 못할 썬이니 엇지  
당후의 근본(根本)을 별노 알 거시 무어시릿고. 군즈(君子)는 당초

73) 이때 부부행세를 한다는 것은 단지 장벽계가 남복을 입고 윤선강이 여복을 입은 상황을 가리킨다. 장벽계와 윤선강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천자가 장벽계를 부마로 삼고자 하는데서 시작된다. 천자가 장벽계를 부마로 간택하려 하자 장벽계는 윤선강과 이미 혼인하였음을 고하고 윤선강이 공식적으로 부인직첩을 받게 됨으로써 장벽계와 윤선강이 대외적으로도 부부가 되는 것이다.

(當初) 빙물(聘物)을 바듬도 첩(妾)의 즈모(慈母)의 허물이요, 군  
 즈(君子)의 집에서 살피지 못흐미오.” <권지이, 52a>

인용문은 부계가 장벽계의 고집을 꺾지 못하여 윤선강을 찾아와 앞으로의 일을 묻자 윤선강이 회답하는 장면이다. 윤선강은 자신이 이미 장벽계의 빙폐를 받았으니 평생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가 여성인 것은 절의를 지키는데 상관이 없다는 대담한 발언을 한다. 윤선강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빙폐를 받은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지, 성별이 아닌 것이다. 장벽계가 여성임을 알고 나서도 윤선강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부계는 윤선강이 장벽계의 궤환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up>74)</sup>. 이에 윤선강은 장벽계를 따르려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장벽계의 궤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장벽계를 옹호한다.<sup>75)</sup> 이렇게 부계의 꾸준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윤선강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장벽계가 움직이면 자신도 따라 움직이고, 장벽계가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도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sup>76)</sup>

이렇듯 부계는 한동안 장벽계와 윤선강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한다. 그러나 장벽계의 아버지가 귀환하며 사건은 전기(轉機)를 맞이한다. 아버지와 상봉한 장벽계는 여성으로 돌아가라는 아버지와 갈등한 끝에 끝내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어서 장벽계는 황실의 구혼을 받고, 늑혼을 피하기 위해 부계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윤선강도 이에 따른다.

74) “당녀의 궤환(詭譎)이 우흐로 군상(君上)과 버거 만조공경(滿朝公卿)과 아리로 사히(四海)를 다 속이나(후략).” <권지이, 52b>

75) “처음의 당후를 사로문 부명(父命)을 맞드미요, 둥도(中途)의 발각(發覺)흐는 입의 안면(顔面)이 익고 스키미 즈별흐니 결약(結約) 형제(兄弟) 관표(管鮑)의 정(情)을 겸(兼)흐여 진퇴거취(進退去就)와 사칭(死生)을 한가지 흐즈 금석상약(金石相約)흐녀시니 사칭(死生)의 변(變)치 못홀거시오. (중략) 당형니 첩(妾)을 달너여 군즈(君子)기 도라가기를 지촉흐되, 첩(妾)이 스냥(辭讓)흐미니 엇지 당후의 궤환(詭譎)의 감겨 군즈(君子)을 배척(排斥)흐리오. <권지이, 54a>

76) “요행 당형니 첩(妾)의 안면(顔面)을 보인 군즈(君子)기 도라가면 그림즈 몸자름 갖흐여 형제(兄弟) 군즈(君子)을 섬겨 한가지로 빅년(百年)을 즐겨 건줄(巾櫛)을 맞들고, 불연즉(不然則) 형제(兄弟) 군즈(君子)의 빙폐(聘幣)를 의지하여 규혼(閨閫)의셔 늑어 죽을지니.” <권지이, 54a>

모든 일이 부계의 뜻대로 진행되어가는 듯하나, 그토록 원망(願望)하던 두 여성과의 혼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는 취처(娶妻)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혼인 후 장벽계는 여전히 부계와 정사를 의논하고 시사도 창화하면서 지극한 교도를 나누며 남성적 삶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혼 후에도 장벽계가 여성적 삶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선장의 조력이 큰 몫을 한다. 윤선장은 장벽계와 부계의 녹봉을 관리하고 집안의 시녀 다스리기를 포함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장벽계와 부계를 받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sup>77)</sup> 윤선장이 장벽계에게 충실한 모습은 다음 장면에서 고조를 이룬다.

㉠ 사되 드러오며 노색(怒色)이 등등(騰騰)하여 난두(欄頭)의 올라며 윤시를 향하여 진목(瞋目) 대즐 왈, “그딤 침실(寢室)을 비우고 무슨 흥계(兇計)로 참예(參預)코져 예와 잇는요.” 윤씨 송연(悚然)하여 감히 답(對答)지 못하노 사도의 사기를 슯치미 장후의 신상(身上)의 희(害) 잇실가 두려 쥬져(躊躇)하여 도라가지 못하니 장후 미소(微笑)하고 윤씨를 눈 쥬니 윤씨 침소(寢所)의 도라가니(후략). <권지사, 47b>

㉡ 윤소저(尹小姐) 침소(寢所)의 이라니 축영(燭影)이 휘황(輝煌)하고 모든 시예(侍女) 무리지어 탄식(歎息)하노 소리 썩이라. 사되 임의 짐죽이 들리 익노(益怒)하여 윤씨를 불너 세 번의 이르디, 소제 죽기로써 가지 아니 하니 사되 디로(大怒)하여 운잉 등을 난타(亂打)하고(후략). <권지사, 49a~49b>

인용문㉠, ㉡는 부계와 장벽계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윤선장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부월혜의 시어머니이자 장벽계의 어머니인 화부인은 하수인의 음모로 인해 정신이 흐려져 부월혜를 수년간 괴롭힌 바 있다. 수년간 고부갈등에 시달린 부월혜는 납치를 당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사라진 부월혜에게 죄책감을 느낀

77) “부부 녹봉(祿俸)을 윤씨을 맞겨 중饋(中饋)로 소님(所任)하여 스도와 당후를 맞들게 하고 즈기 침소(寢所)의 유량과 두쌍 시녀(侍女)로 문방을 맞들게 하며 모든 시비(侍婢)를 윤씨기 도라보너 소님(所任)을 직희우게 하니(후략).” <권지삼, 48b>

장벽계는 시부모에게 사과한다. 이때 윤선강은 자책하는 장벽계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그녀의 괴로움을 함께 나눈다. 이어서 분노에 찬 부계가 장벽계를 찾아오는데, 장벽계의 곁을 지키던 윤선강을 마주치고는 그녀를 쫓아낸다. 그러나 윤선강은 부계의 명령에도 선뜻 돌아가지 않는다. 장벽계가 혀를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윤선강은 주저하다가 결국 장벽계가 돌아가라는 눈치를 주자 그제야 비로소 자기 침소로 향한다. 이는 윤선강이 부계보다 장벽계의 말을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윤선강의 모습은 인용문 ②에서 극에 달한다. 부계는 자신의 누이동생이 납치당하자 그 화를 장벽계에게 전가하여 장벽계를 하류당<sup>78)</sup>으로 내쫓은 바 있다. 이때 윤선강은 장벽계가 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류당에 찾아가 그녀의 곁을 지킨다. 특히 전일 자신의 침소를 비우고 장벽계의 곁을 지킨 일로 부계와 갈등한 경험<sup>①</sup>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선강은 다시 장벽계의 곁을 지키는 것이다. 부계는 누이동생의 일로 기분이 울퉁하여 회포를 나누고자 윤선강을 찾아가는데 윤선강이 침소에 보이지 않자 하류당으로 찾아간다.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부계는 윤선강이 장벽계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화가 폭발하여 윤선강을 돌려보낸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선강은 남편 부계의 명을 거부하고 끝까지 장벽계의 곁을 지킨다. 장벽계는 윤선강이 자기로 인해 피해를 받을까 염려하여 만류하지만 윤선강은 “소제 화복(禍福)을 형으로 더부러 임의 한가지로 흐려 흐니 이제 변 흐리오”<sup>79)</sup>라고 말하며 끝까지 장벽계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온갖 행패를 부려도 윤선강을 장벽계의 곁에서 떼어 내지 못한 부계는 “윤씨는 장후의 처즈(妻子)라. 소제 진실노 취처(娶妻)흔 보람이 업”<sup>80)</sup>다고 말한다. 이렇듯 윤선강은 서사 내에서 시종일관 장벽계를 일순위에 두고 그녀를 따르는 인물로 그려진다.<sup>80)</sup> 이는 작품의 말미에서 윤선강의 삶을 기술

78) 하류당은 비자의 머무는 나즌 집이라. <권지사, 48b>

79) <권지사, 49a>

80) 윤선강이 시종일관 장벽계를 따르는 인물로 부각된 점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크게 두 사람의 결혼을 동성애적 결합으로 보는 관점과 이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대의식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별된다. 채윤미와 최지녀의 연구가 동성애적 결합으로 보는 관점에 해당하고 김나혜의 연구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연대의식으로 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채윤미는 동성애적 결합으로 보는 근거를 장벽계와 윤선강의 생각의 차이로

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윤부인(尹夫人)이 쏘흔 쓰즐 저버 정한 빅 늑도록 직희여 영

들었다. 장벽계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윤선강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지만 윤선강은 장벽계와 함께라면 결혼여부는 중요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두 인물의 생각의 차이가 이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대한 사이가 아님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동시에 윤선강이 장벽계를 따르려는 행위 속에 애정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채윤미, 앞의 논문, 50면). 최지너 역시 두 여성이 지향하는 목표가 남편인 부계의 사랑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육체적 관계 여부와는 별도로 이성애 중심적이기보다는 동성애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최지너, 앞의 논문, 130면).

이와 반대로 김나혜는 윤선강이 가부장인 부계를 따르지 않고 장벽계를 따르는 것은 여성들 간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장벽계의 하당(下堂)으로 인해 윤선강을 비롯한 시비들이 잠들지 못하고 무리지어 탄식하는 것은 가부장 부계에게 저항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행위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사람에게 한정된 연대가 아니라 가내의 여성 간에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2012, 128면).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 인물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이 인물의 정체성이 그만큼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윤선강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윤선강이 의도적으로 지배질서에 저항한 것인지 아니면 장벽계에 대한 동성애적 지향에서 그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윤선강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가 의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윤선강이 장벽계에 대한 의를 지키는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문면에 나타난 대로 해석하고자 한다. 작중에서 윤선강은 “고집이 세고”, “편협”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윤선강의 이러한 성격은 시종일관 첫 뜻을 지켜 장벽계를 따르는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윤선강이 고집이 세고 편협하다는 성격은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우리 쇼제 어려서부터 예의(禮儀)로 몸을 잡아 한번 고집(固執)을 녀시면 침상과 부월(斧鉞)이 임혀도 고치지 아니혀실지니 <권지이, 23a.>
- ② 우리 쇼제 견고(鑿固)혀신 행실(行實)과 빅희(伯姬)의 고집(固執)이 계시니, 처음 산당의 수부심은 당후를 남자(男子)로 아라 빙물(聘物)을 품고 도망(逃亡)혀여 계시다 그간은 당후 여즈(女子)시오. 당후의 빙물(聘物)과 금낭(錦囊)이 다 부상공이 당후과 전(傳)혀신 빙물(聘物)인줄 아라계시나, 정계산 산당의서 부부(夫婦) 화(化)혀여 형제(兄弟)로 결약(結約)혀실적 평생(平生)을 써느지 말고 그림지 몸 짜람 갖즈혀여계시니, 사싱거취(死生去就)를 당후와 한가지 혀시려 혀시니. <권지이, 48b~49a>
- ③ 윤츄정 천금여(千金女兒) 형(兄)으로 더부러 사싱진퇴(死生進退)를 혼가지로 혀미 그 여즈(女子) 고집(固執)이 빅희(伯姬)의 블타 죽으믈 낫계 역인다혀니. <권지삼, 18b~19a>

광(榮光)의 안거(安居)하여 티부인의 든든함을 가지고 장후와 정  
의(情誼) 가지록 그림지 몸 짜름 갖하여 자녀(子女)를 거느리미  
자녀(子女) 각각 소생(所生)인 줄 아지 못하여(후략). <권지중,  
68b>

② 윤부인(尹夫人)이 답가(答歌) 왈, “대인의 명(命)으로 장후의  
신물(信物)을 보닷도다. 백수(白首)을 그음하고 첫 뜻줄 직회여 사  
라 지기(知己) 되고 죽으미 혼백(魂魄)이 합기 도라가리니 영화  
(榮華) 복록(福祿)이 뜻 갖하니 다시 무슨 한(恨)이 잇스리오.”  
<권지중, 70b~71a>

③ 순춘후 경문왕, “부인이 홀연(忽然) 불상한 말을 내여 흥미  
(興味) 손(損)케 하노뇨.” 영능후 부답(不答)하고 윤시를 보아 왈,  
“우형(愚兄)이 저덕로 형제(兄弟)의 정(情)과 지기(知己)의 교도  
(交道)와 부부(夫婦)의 의(義)을 아올나 칠십여년(七十餘年)의 동  
주(同住)하고 이제 정백(精魄)은 합기 도라가 옥제(玉帝)의 조회  
(朝會)하고(후략).” <권지오, 69b~70a>

인용문 ①과 ②에서는 모두 첫 뜻을 지키고자 하는 윤선강의 삶을 보  
여주고 있다. 그 첫 뜻이란 처음 빙물을 나눈 장벽계와의 관계를 말한  
다. 인용문 ③은 장벽계가 세상을 하직하고 승천할 준비를 하면서 부계  
가 아닌 윤선강에게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다. 결국 장벽계  
가 운명한 것을 지켜보던 윤선강은 눈물을 흘리다가 함께 돌아간다.<sup>81)</sup>  
즉, 윤선강은 죽을 때까지 장벽계를 따른 인물인 것이다.

다음은 『재생연』의 여성조력자 소영설을 보자. 앞에서 소영설의 동성  
혼인은 자발적이 아닌, 동성배우자를 연모하던 남성으로 착각한 기초 상  
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동성혼인의 과정에서도 소  
영설은 동성배우자보다 남성주인공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인물로 서술된  
다. 예컨대, 동성혼인 과정에서 소영설은 맹려군과 부부 행세를 하지만

81) [장벽계]평명(平明)의 이러 가묘(家廟)의 하직(下直)고 (중략) 이날 진시에 명  
(命)이 진(盡)하니 윤부인이 황황이 소래 질너 “형장(兄丈)이 쇼제(小弟)를 바리  
고 가시뇨?” 일생장통(一聲長痛)의 명(命)이 또 진(盡)하느니라. <권지오,  
71a>

지속적으로 맹려군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따라서 맹려군이 정체 밝히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녀를 원망하고, 황보소화가 맹려군에 의해 피해를 입을 때 마다 황보소화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실 소영설과 황보소화의 인연은 활쏘기 시합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영설은 여기에서 처음 황보소화를 보고 그날 밤 그와 혼인을 기약하는 꿈을 꾸고는 수절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영설의 모든 감정은 황보소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서술자는 소영설의 어머니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토로한다. 소영설의 어머니에 의하면, 영설은 활쏘기 시합에서 황보소화가 이기기를 바라다가 그가 세 번 활을 맞히자 같이 기뻐한다.<sup>82)</sup> 그리고 방화사건이후 황보소화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읍통분한다. 이렇게 소영설의 감정은 황보소화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소영설의 어머니는 작품에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닌데, 이때 소영설의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것은 서술자를 대신하여 소영설의 걱정과 지나간 서사정보를 독자에게 요약 제시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영설 어머니의 말을 통해 그녀의 과거 감정이 드러나고 독자는 다시 한 번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다. 이를 통해 소영설이 황보소화를 걱정하는 마음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이외에도 서사 곳곳에서 소영설이 황보소화를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보소화가 맹려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병든 척하여 맹려군에게 진맥해달라고 부탁하자 소영설은 “황보소화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였고,<sup>83)</sup> 이후 한결 수척해진 황보소화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sup>84)</sup>

82) “여아 영설이 원래 기괴하도다. 전일 후원에서 활을 비교하실 때 여아 누각에서 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유공자를 보고 번뇌하여 다만 황보 대인께서 당장 금포 앓기를 바라다가 대인 세 번 적중하심을 보고 천환만희하여 영걸이라 칭찬하더라.” (“女兒映雪原奇怪. 昔日花園觀比箭, 女兒樓上也曾瞧. 癡心先惱劉公子, 巴不得, 殿下當場奪錦袍. 看見王爺三中箭, 千心萬喜贊英豪.”) 郭沫若校訂, 앞의 책, 619면.

83) 양소화 놀라서 눈썹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소저야, 일이 그릇되다 하시니 이는 충효왕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梁素華, 一聲驚問皺蛾眉. “呀, 小姐, 說事情弄壞, 可就是忠孝王有甚差池?”) 郭沫若校訂, 위의 책, 985면.

84) 이때 양소저가 사창 밖을 엿보니 “충효왕이 병으로 얼굴은 수척하였으나 아름다운 자태는 전일 금포를 쏠 때와 비슷하도다. 충효왕이 온갖 피를 써서 소저를 찾다가 엄엄히 병이 들었는데 참으로 소저의 마음이 한독하도다.” 라고 생각하여

한편 소영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맹려군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꾸준히 권유한다. 그리고 맹려군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소영설은 속으로 맹려군을 원망한다.

㉠ 소저의 뜻이 한결 같이 변하지 아님을 보고 권유하기를, “소저는 이제 어떻게 주의를 정하시렵니까? 충효왕이 의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가여운지라. 소저 지금 승상이 되어 계시니 충효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타향에 가 찾게 하시렵니까? 이 일을 헤아리건대 지체 하지 못할 듯하고 이제 노야와 태태께서 모두 계시니 이런 좋은 기회를 타 군상께 주달하소서. 조정을 속이는 것은 비록 죄가 있으나 맹부와 황보 집안이 다 함께 은혜를 청하면 군상께서도 용서치 아닐 리 없으시려니와 만일 소저 도리어 숨기시면 충효왕으로 더불어 평생의 해를 당케 하리이다.” 양부인이 다시 권치 못하고 속으로 가만히 소저를 원망하더라.<sup>85)</sup>

㉡ 양소저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안하여 눈썹을 찡그리며 나직이 말하기를, “가련하도다. 소저는 어찌 이같이 마음이 한독하시뇨. 병설 같은 총명과 철석 같은 간장으로 낭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금란전에서 황보낭군의 소본을 찢었으니 충효왕을 분노하여 견디기 어렵게 하신듯 하도다.”하며 기색이 한담하였다.<sup>86)</sup>

인용문 ㉠은 소영설이 맹려군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권유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앞서 황보소화는 맹려군이 가출하기 전에 남긴 자화상과

---

자연 근심이 눈썹에 가득하며 거의 올 지경이었다. (素華正在窗紗偷看, “但見忠孝王病容清減, 丰姿依舊是射袍時相識. 今爲小姐千方百計追尋, 惹得懨懨抱病, 實是小姐狠心.” 想到此, 不覺愁鎖雙眉, 潸潸欲淚.) 『續修四庫全書』 1745~174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802면.)

85) 見小姐主意如初, 只得開言解勸, 素華含笑勸明堂. “小姐如今怎主張, 忠孝王爺心守義, 真堪憐憫實堪傷. 千金現在爲丞相, 卻教他, 怎樣追尋到別鄉. 此事看來遲不得, 老爺太太今俱在, 趁此良機奏帝王. 欺哄朝廷雖有罪, 少不得, 大家哀懇降恩光. 孟門皇甫齊求赦, 不怕君王不恕將. 如若千金還隱昧, 害卻了, 東平一世少收場.” 梁氏夫人難在勸, 芳心脈脈怨千金. (郭沫若校訂, 앞의 책, 632~633면.)

86) 梁氏素華聞此語, 芳心著實欠安然. 凝鳳目, 蹙春山, 搖首低低說可憐. “咳, 可憐, 小姐如何這樣心狠? 冰雪聰明鐵石腸, 竟無恩愛念於郎. 金鑾殿上撕他本, 只恐怕, 氣壞東平忠孝王.” 梁氏夫人言到此, 倒不覺, 翠娥慘淡色淒涼.” (郭沫若校訂, 위의 책, 844면.)

제시(題詩)를 본바 있는데, 이 제시(題詩)에는 남장가출하고 벼슬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제시(題詩)를 본 뒤 황보소화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정혼자가 사실은 남장가출하고 벼슬하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아울러 자화상의 사람이 조정의 여군옥과 똑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군옥이 바로 맹려군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황보소화는 여군옥을 자기 방으로 유인하여 그를 시험하기 위해 정혼자인 맹려군을 찾으러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여군옥을 감정적으로 자극한 바 있다. 그러나 여군옥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인을 얻으라고 이야기한다. 집으로 돌아온 맹려군이 황보소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소영설에게 알려주자, 소영설은 맹려군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소영설은 끈질기게 맹려군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권유한다. 소영설은 맹려군에게 비록 기군한 죄가 있으나 황제가 용서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 정체를 숨기면 황보소화에게 평생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맹려군을 설득한다. 하지만 맹려군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의 부모에게 누를 끼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다. 이에 소영설은 마음 속으로 맹려군을 원망한다.

인용문 ②는 소영설이 맹려군의 매정함을 원망하는 모습이다. 이는 황보소화가 황제에게 표를 올린 대목과 연결된다. 황보소화가 황제에게 여군옥이 맹부(孟府)에서 정체를 밝힌 사실을 알리자 여군옥이 표를 찢고 황보소화를 크게 질타한 바 있다. 집으로 돌아온 맹려군이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영설에게 알리자 소영설이 맹려군을 원망하는 부분이다. 소영설은 황보소화가 분노하여 견디기 어렵게 될까 걱정하면서 맹려군의 한독함을 원망한다. 소영설이 맹려군을 원망하는 마음은 맹려군이 정체를 밝힐 것을 거부할 때마다 계속되는데, 맹려군으로 인해 황보소화가 혼절했을 때 절정에 이른다.

“소저야! 네 오늘은 옥중에 있으나 내일에는 어찌 걸쳐하실지 모르니 만일 이외의 일이 있으면 어찌 충효왕을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중략) 또 황보낭군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그대 금란전에서 혼절하였다 하니 가련하도다! 그대의 허약한 몸으로 놀라운 일을 당하였으니 이는 설상가상이라. 알지 못게라. 그대 집에 돌아가면 어찌 편히 쉬겠는가? 이는 모두 소저 탓이라. 일찍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므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 내 이제 사사로이 소저를 원망함이 아니라. 소저 전일에 환복하고 도주함은 정절을 보존코자 함이었으나 일조에 영귀하여 붉은 옷을 입고 천자의 은총을 입어 열 가지 일을 주달하면 아홉 가지를 허락하셨으니 가히 황보 문중을 구하엄 족하도다. 그사이 맹부인이 경중에 오시거든 마땅히 사사로이 정회를 고할 것이오. 충효왕이 고려를 평정하시고 대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 소저 마땅히 소본을 올려 사정을 황제께 주달하리니 그때 황제가 승리를 거둔 것이 환희하시는지라. 단정코 소저에게 죄를 더하지 아니시고 황보 문중에 사혼하여 이미 봉황배필을 이루게 하여 계시리니.” 하며 진전반측하여 오경까지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sup>87)</sup>

인용한 대목은 황보소화가 혼절하자 소영설이 황보소화를 걱정하며 맹려군을 원망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에서도 소영설이 맹려군을 원망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는데, 황보소화가 혼절하자 소영설의 원망이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앞서 맹려군은 표를 올려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진노한 황제는 맹려군을 하옥시키고 이 소식을 들은 황보소화가 혼절하게 된다. 이때 소영설은 맹려군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황보소화에 대해 걱정할 뿐 맹려군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룬다. 소영설은 그간 맹려군의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의 잘못을 말한다. 이런 모습은 서사 문면에 드러난 지금까지의 인물형상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하다. 앞서 소영설은 맹려군이 정체 밝히기를 거부할 때마다 속으로 가만히 맹려군을 원망하는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황보소화가 혼절하게 되자 소영설은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 맹려군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

87) “小姐阿，你今宵在監房內，未知明日怎調停。倘然有點差池處，豈非苦殺小王親。(中略) 還思想，皇甫郎，聞你發暈在朝堂。可憐你，嬌怯身軀驚又懼。分明雪上更添霜，未曉你歸家嚇得如何樣，今宵睡臥可安寧。咳，總是小姐不肯早聽奴言，致有今日嚇，並非我今朝私自怨千金。你以前，易服潛行爲保貞，忽地里，一朝榮貴衣衾紫，十奏九依天子寵。儘可以，搭救提攜皇甫中。後來太太來京內，即該私自訴情衷，少華平定朝鮮國，奏凱回來立大功。小姐其時該上本，細底陳情奏九重，那時得勝回朝轉，聖心正是喜悅祭，決不加罪與千金。定然是，賜歸皇甫結完婚，早已和鳴偕鳳侶。”素華是，輾轉反側難成夢，萬種悲愁到五更。(『續修四庫全書』1745~1746，上海：上海古籍出版社，820면.)

는 것이다. 이후 황후와 태후의 청에 의하여 맹려군의 죄가 사면되면서 황보소화와 혼인도 이루어진다. 이에 소영설 역시 바람대로 맹려군과 함께 황보소화와 혼인을 이루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는 모두 여성 조력자가 나타나지만 이들의 인물형상은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윤선강은 장벽계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성혼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동성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벽계를 묵묵히 지원하는 등 충실한 조력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이처의 관계에 포섭될 때까지 지속되는데, 윤선강은 부계와 장벽계의 갈등상황에서도 장벽계와 고난을 함께 한다. 이와 반대로 소영설의 동성혼인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소영설은 황보소화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맹려군과의 혼인을 거부하다가, 상대가 자신이 연모하던 황보소화라고 착각하여 혼인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소영설은 맹려군과의 동성혼인 과정에서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맹려군을 꾸준히 설득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 윤선강과 소영설은 조력자로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그러나 여성영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적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여성영웅 장벽계와 맹려군은 평생 남성적 삶을 실천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선택이 조력자의 혼인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사가 고민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때 여성조력자 역시 여성영웅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 3. 남성인물

정병설은 남성 선인군(善人群) 인물을 성인형(聖人型) 인물과 영웅형(英雄型) 인물로 대별하여 논의한 바 있다.<sup>88)</sup> 『부장양문록』에 등장하는 남성인물 부계는 영웅형(英雄型)에 대응하는 인물이다.<sup>89)</sup> 이러한 인물

88) 정병설, 앞의 책, 1998, 147~150면.

89) 『부장양문록』에서 부계는 장원급제한 인물로 형상화 되는데 구체적인 활약상은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는다.

유형은 남녀관계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영웅형 인물이 여색에 관심이 많고 군자형 인물이 여색에 초탈한 성향을 보인다.<sup>90)</sup> 『부장양문록』의 부계 역시 여성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부씨 집안과 장씨 집안에서는 겹사돈을 맺는데, 그 중 장벽계와 부계, 장원홍과 부월혜가 정혼한다. 부계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여성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부계는 9세 되던 해에 장벽계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장벽계와 빙물을 교환하던 중, 장벽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감탄한 바 있다.<sup>91)</sup> 특히 이 장면은 유배로 인해 생사이별을 앞둔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된다. 이렇듯 더할 나위 없이 슬픈 분위기에서조차 부계는 여성의 미모를 관찰하는 여유를 보인다. 이는 부계가 그만큼 여성에게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유배지에서 장씨 일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부월혜와 부계는 정혼자를 잃었다는 동일한 사실에 명백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 부월혜는 장원홍이 죽었다는 사실에 침식을 전폐하고 장원홍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백골을 찾으러 길을 떠나겠다고 아버지에게 자청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지를 하자 부월혜는 부모의 앞에서 자결을 실천하고 간신히 목숨을 보존한다.<sup>92)</sup> 부월혜가 어린 나이에 도 절개를 지키려는 모습은 가족들의 놀라움을 살 정도이다. 이와 반대로, 부계는 누이의 자결을 보고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 “내 부모(父母) 구경(具慶)ᄃᆞ시고 형제(兄弟) 번성(繁盛)ᄃᆞ

90)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2면.

91) 잇석 부공자 좌석(坐席)의셔 참연(慘然) 비절(悲絶)ᄃᆞᆫ 가운데 당소저의 색광(色光) 엄티(艷態)와 처연(淒然)동지을 흠탄(欽嘆)ᄃᆞᆫ니. <권지일, 4b>

92) 진교역 흥음(興音)을 드른 후 퍽퍽히 말이 업고 침식(寢食)을 전폐(全廢)ᄃᆞ며 (중략) “(부월혜)다만 원(願)이니 당상셔의 부즈(父子) 백골(白骨)을 좇지 못ᄃᆞ고 혼백(魂魄)을 불너 제전(祭奠) 향화(香火)을 맞드지 못ᄃᆞᆫ 전은 명교(名教)의 죄인(罪人)이 될지라. 복원(伏願) 야야(爺爺)는 쇼녀(小女)의 정스를 예엿비 녀이스 지원(至願)을 일우게 ᄃᆞ시면 쇼저의 몸이 복희의 이라러 친히 혼백을 불너며나리 도리(道理)와 지어미 도리를 ᄃᆞ게 ᄃᆞ쇼셔.” (중략) “ᄃᆞᆫ번 과히 결ᄃᆞ여 디ᄃᆞ(地下)의 가 당상셔의 사례ᄃᆞ려 ᄃᆞ나이다.” 벽상(壁上)의 이검(利劍)을 싸혀즈문(自刎)ᄃᆞ니 날ᄃᆞ미 호흡스이라 생혈(生血)이 쇼스나니 <권지일, 21b~24a>

거늘 엇지 혼 당시로 전전 초스(焦思)하여 부모의 싱육(生育)하신  
 바 몸을 상히(傷害)오리오. 타일(他日) 득의(得意)한 후 부인(夫人)  
 과 즈손(子孫)을 두어 그 혼빅(魂魄)을 불너 위로(慰勞)하고 향화  
 (香火)를 이어 주면 유신(有信)의 극딘(極盡)치 아니려.” 이쳐로 싱  
 각하여(후략). <권지일, 24b>

② “당씨의 용모(容貌)와 풍광(風光)이 그 새 마음의도 사랑하고  
 오히려 잊지 못하던 임의 구천(九泉) 음혼(陰魂)이 되어서니 가석  
 가탄(可惜可歎)이라. 거리끼미 업시 요조숙녀(窈窕淑女)를 맞비 구  
 하여 부모(父母) 슬하(膝下)의 적막(寂寞)하시를 위로(慰勞)코져  
 하노라.” 소제 기형의 말을 드라마 어히업고(후략). <권지일, 25b>

위와 같은 부계의 모습은 부월혜가 정혼자를 위해 절개를 지키려는 모  
 습과 천양지차다. 부계는 장벽계를 떠올리는 것도 잠시 이내 마음을 전  
 변한다. 부계는 이미 음혼이 되어 버린 장벽계의 혼백을 나중에 불러 위  
 로하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부계는 부  
 모의 적막함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하루 빨리 다른 규문의 요조숙녀를 구  
 하여 성혼하려는 계획을 세운다.<sup>93)</sup> 이는 부계가 혼사성취에 관심이 많  
 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부계는 장벽계, 윤선강과 교류하던 중 두 사람의 앵혈을 발견  
 하고 이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에 장벽계에게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장벽계는 자결을 시도한다. 장벽계의 이런 모습에 부계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물러선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주  
 체할 수 없는 부계는 다음날 또다시 장벽계를 찾아가는데, 이때 장벽계  
 는 여전히 부계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에 부계는 피를 내어 윤선강에게

93) 부계는 장벽계의 죽음을 알고, 몽중 도인의 인도를 받아 윤선강의 집으로 향하  
 다. 거기에서 윤선강을 보고 연심을 품어 다음날 바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다. 이는 부계가 자신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해  
 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화원문(花園門)이 잇거늘 친히 열고 드러가보니 밤이 반  
 야(半夜)는 되고 인적(人跡)이 적노(寂寥)한디 일위(一位) 미쇼저(美小姐) 취군  
 홍상(翠裙紅裳)으로 가브야온 횡보로 슈기(數個) 시녀(侍女)를 거늘러 배회(徘徊)  
 하니 (중략) “이야, 진딧 너 비위로다. 너 이 여즈(女子)를 취(娶)하여 가실  
 (家室)을 덩흔 후는 진실노 내 복(福)이 듯겍을지라. (중략) 맞비 구혼(求婚)하  
 여 나의 금슬(琴瑟)의 즐거오를 다하여 춘(春)을 허송(虛送)치 아니리라.” <권  
 지일, 49a>

몰래 편지를 보내 먼저 그녀를 설득하려 한다.<sup>94)</sup> 특히 부계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예와 염치를 잃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는다.<sup>95)</sup> 이는 부계가 예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충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계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장벽계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를 멈추지 않는다. 부계는 끝내 윤선강의 회신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거리에서 윤선강의 시녀를 만나자, 부계는 윤선강의 침소 위치에 대해 물어보고 심지어 장벽계가 집을 비우는 날을 알아두었다가 그날 윤선강을 찾아가려는 계획을 세운다. 위와 같이 부계는 구애과정에서 윤선강의 처소를 알아내고, 장벽계가 집을 비우는 날짜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부계가 간절히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계)청나광삼(靑蘿纈衫)으로 편편(翩翩)히 거리 화원(花園) 협문(夾門)을 츠잘 시 행보(行步) 포연(飄然)히여 문의 다다라매 문이 진단이 잠겼거날 손으로 비목을 켜고 나눈다시 드러가니(후략). <권지이, 50a>

㉡ “학성이 오날날 비례(非禮)를 범(犯)흐믄 다람 안니라 저즈음 서찰(書札)을 용납(容納)지 아니미 노흠고 부득기(不得已)한 말을 못고져 흐미니, 소저는 흥혀 광망(狂妄)히 여기지 마르소서.”(중략) 윤소저의 설부화모(雪膚花貌)와 익용 염태(艷態)를 디하니 위곡한 정 새암 솟듯흐니 춘풍화기(春風和氣) 심부(心府)를 움작여 한번 화이 웃고 이러 청포(靑袍)을 버셔 금병(金屏)의 걸고 서안(書案)의 지혀 안지며 같오티, “잘하나 못하나 임의 드러온 후

94) “자문(부계)이 혈마 윤가(尹家) 일여즈(一女子)를 항복(降服) 맞지 못흐리오.” 의스 이의 밋첫는지라. 촉(燭)을 밝히흐고 일봉(一封) 서간(書簡)을 일위여 명일(明日)의 창두(倉頭)을 주어 가마니 당후 퇴중(宅中)의 속여 전흐라흐니라. <권지이, 47a>

95) 부계는 윤선강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님학스 부계는 예의(禮儀) 염치(廉恥)을 일코 만만부드기(萬萬不得已) 삼가 글을 닦가 윤소저의 부치느니 칭의 광망(狂妄)흐믄 용스(容恕)하셔 거두어 살필 지어다.” <권지이, 47a>

난 소회(所懷)를 아니 듯고 가지 못하리니 밤이 식고 날이 맞으며  
달이 밧고여도 그저 가지 못하리라 <권지이, 50b~51b>

장벽계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부계는 윤선강을 찾아가 윤선강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쓴다. 이때 부계는 야밤에 규수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걸쇠를 스스로 푸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한다[1]. 그는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서안에 의지하여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다. 심지어 윤선강의 솔직한 얘기를 듣지 못하면 날이 밝아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2]. 이는 남녀사이의 예의에서 벗어난 행위로 사실 부계는 자신이 비례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부계는 예의규범을 준수하는 것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이에 윤선강은 전일 편지를 보내온 부계의 행동에 대하여 “스류(士類)의 입으로 못할 말을 필지(筆紙)의 너어서 남의 내간(內間)의 왕닌(往來)”<sup>96)</sup>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담을 넘고 문을 뛰는 행위에 대하여 “방탕무례배(放蕩無賴輩)도 못할 행사(行事)”<sup>97)</sup>를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그러나 비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장벽계와 윤선강과의 혼사를 쟁취하려고 했던 부계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장벽계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와 혼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귀환으로 장벽계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다. 부계는 장벽계의 정체가 밝혀지면 자신과 혼인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회구했다. 이에 장벽계가 여성임이 밝혀지자 그녀를 찾아가지만 다시 한 번 좌절을 겪는다.

잇씩 한림(翰林)이 물너 서당(書堂)의 이르니 당후(張侯) 금(衾)의 쓰러져 눈을 감고 면식(面色)이 여토(如土)하고 통성(痛聲)이 혼혼(昏昏)하고 좌위(左右) 적적(寂寂)하거날 경아(驚訝)하여 나으가 그 손을 잡고 야간(夜間)의 무슨 병환(病患)이 이리 급하시뇨? 당후(張侯) 혼혼침침(昏昏沈沈)흔 등 부스도(傅司徒)의 소리를 드르니 심화백장(心火百丈)이나 이러나 말노 박차 왈, “뉘

96) <권지이, 52a>

97) <권지이, 52b>

라셔 나의 병심을 어즈러이느뇨. 내 본디 부스도 상되(相對)흐기을 슬희여흐거날 무슨 정(情)으로 은근이 차즌 덩슈(執手)흐느뇨.” 스되 무심(無心)등의 차이여 상탁(床卓)의 것구러져 정신이 아득히 더니(중략) 스도 무류(無聊)코 노(怒)함은 춘설(春雪) 갖고 저의 병세(病勢) 광증(狂症)이 놀납고 심우간절(心憂懇切)하여 그 병 증세(症勢)를 즈세이 못거날. <권지삼, 21장a~22장a>

위 인용문은 정체가 밝혀진 장벽계와 혼사를 추진하고자 부계가 장벽계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그러나 부계는 장벽계에게 얻어맞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장벽계는 자신의 화를 억제하지 못하여 부계를 책상에 거꾸러질 정도로 세게 찬다.<sup>98)</sup> 이에 부계는 정신을 잃을 뻔 하고 심지어 장벽계로부터 자신을 상대하기 싫다는 잔인한 말까지 듣게 된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장벽계의 동생 장원홍은 부계가 안쓰러운 마음에, 먼저 돌아갔다가 장벽계가 진정된 후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며 부계를 적극 도와준다. 이쯤 되면 포기도 할 법하지만 부계는 여전히 혼사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장벽계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표출한다. 이를 통해 부계가 체면보다도 혼인의 성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벽계가 정체를 밝혔음에도 부계는 한동안 혼사를 이루지 못하고 상사병에 걸린다. 이때 위왕의 늑혼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부계와 장벽계, 윤선강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부계는 혼사성취를 추구함에 있어서 비례임을 알면서도 저지를 만큼 자신의 감정표출에 충실한 인물이고,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혼사를 쟁취하려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생연』의 남성주인공인 황보소화 역시 부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황보소화는 활쏘기 시합에서 유규벽을 이겨 맹려군과 정혼한다. 이때부터 황보소화는 오직 맹려군을 향해 애정을 표현하는 인물로 부각된다. 그러나 황보소화와 맹려군의 결합은 줄곧 지연되다가 총

98) 채윤미와 최지녀는 장벽계의 폭력적인 모습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채윤미는 장벽계의 이런 모습을 이 인물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 이러한 불안의 근원은 자기 욕망을 억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채윤미, 앞의 논문, 34면). 비슷한 맥락에서 최지녀는 장벽계의 폭력적인 면모를 가부장적 억압에 의한 신경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최지녀, 앞의 논문, 128면).

20권인 분량에서 18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정체 밝히기와 혼인을 거부하는 맹려군에 대해 황보소화는 꾸준히 일방적인 사랑을 표출한다. 즉 황보소화는 작품에서 맹려군을 그리워하며 혼자 애태우는 입장에 놓여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황보소화와 맹려군의 혼인에 처음 장애가 초래하게 된 것은 유규벽의 음모에 의해서이다. 또한 이 음모로 인해 유규벽의 동생인 유연옥과 황보소화가 혼인을 약속하기도 한다. 유규벽은 불을 질러 황보소화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그 과정에서 유규벽의 동생인 유연옥이 꿈에서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황보소화를 구해준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유연옥에게 황보소화와 혼인할 운명임을 알려준다.<sup>99)</sup> 이에 유연옥이 황보소화를 구해준 후 어머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황보소화는 주저하다가 유연옥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서로 신물을 교환한다.

한편 황보소화와 유연옥은 1권에서 혼인을 정하고 곧바로 헤어지는데, 이 혼인은 계속 지연되다가 10권에서야 이루어진다. 방화사건으로 황보소화를 죽이지 못한 유규벽은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 마침 고려가 침범하자 유씨 집안에서는 황보소화의 아버지를 천거한다. 황보소화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패배하지만, 유씨 집안에서는 황보소화의 아버지가 투항하였다고 거짓상소 한다. 이는 앞서 유규벽이 불을 질러 황보소화를 죽이려고 했던 악행에 이어 유씨 집안이 저지른 두 번 째 악행이다. 시간이 흐르고 유씨 집안의 악행이 모두 밝혀져 유씨 가족은 결국 감옥에 갇힌다.

그사이 유씨 집안에서는 유연옥과 황보소화가 사사로이 혼인을 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연옥의 혼인을 추진한다. 이에 유연옥은 황보소화와 약속을 생각하며 가출한다. 유연옥은 피신한 절에서 온갖 풍상고초를 당하지만 황보소화와 혼인을 생각하며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틴다. 이때 경성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연옥이 황보소화를 찾으러 나선다. 우여곡절 끝에 황보소화와

---

99) “내일 밤에 귀인이 이곳에 오고 너의 오라버니가 귀인을 화원에 머물게 할 것인데 초경 즈음에 난을 당할지라. 너는 기회를 살피 귀인을 구하라. 네 그 사람과 인연이 있는지라 가히 행인으로만 알지 말라.” (“明晚貴人來此地，哥哥留宿在花園，初更時分該遭難，兒可尋機相救還。女兒與有姻緣分，不可將爲陌路看。”) 郭沫若校訂, 앞의 책, 171면.

재회한 유연옥은 자신의 가족들을 용서할 것을 빈다. 이에 황보소화가 전일 유연옥이 자신을 구했던 정을 생각하여 유규벽을 제외한 모든 유씨 권속들을 석방한다.

전일 방화사건이 일어났을 때, 황보소화가 유연옥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황보소화와 유연옥이 사사로이 혼인을 정한 사실을 알게 된 황보집안에서는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황보소화는 맹려군을 생각하며 유연옥과의 혼인을 거부하다가, 부모와 천자의 강권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혼인을 받아들인다.

① “부친, 모친아! 오늘 한 마디 말씀을 아뢰려 하니 원컨대 이를 허락해주소. 맹소저 몸을 숨긴 채 아직 확실한 소식을 알지 못하였으니 타향에서 떠돌면서 어느 곳에 안신한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번에 유소저와 성혼하여도 정실은 반드시 맹소저를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그 몸이 없어도 곧 화상과 일품 직첩을 모두 둘 곳을 정하리니 십삼일의 다만 병례를 유부로 보내고 성혼한 후는 모름지기 칭호를 변하지 않겠습니다. 유소저는 정실부인으로 일컬음이 마땅치 아니하고 우리 집에 중간과 좌우에 궁전이 세 곳 있으니 정중은 곧 영봉궁이라. 일자로 아홉간이 되어 장려하고 광활하니 이곳은 맹소저 오기를 기다리고 좌편 금작궁은 일자로 칠 간이니 신방을 정하여 유소저를 거주케 하겠습니다.”<sup>100)</sup>

② “전일 정실 맹소저가 그대 오라버니의 핍박을 입어 소영설로 하여금 대신 출가케 하고 맹소저는 남북으로 환복하여 나가 몸을 숨겼으니 이미 삼 년 소식이 없으므로 어느 곳의 있는지 모르는지라. 내 찾고자 하여도 오히려 불편하더니 지금은 조정에서 나를 위하여 명을 내리시어 천하 관원으로 하여금 두루 찾아 경중으로 보내라 하셨으며 내 이미 뜻을 세워 삼년 의를 지키고 원래 다시 혼취하지 아니려 하였는지라. 그러나 그대로 더불어 전일 김수건 언약이 있고 하물며 그대 나를 위하여 정절을 지키지라. 이러므로 잠시

100) “今日孩兒稟一聲，望祈父母且依聽。孟家小姐潛身出，尚未知其實信音。也不曉，何處飄零逃異地，也不曉，怎生躲避暫棲身！今日成婚劉郡主，正房須待孟千金。十三日，只將聘禮到劉門，成婚以後須分別。劉郡主，正室夫人不許稱。靈鳳宮，一帶九間，壯麗寬敞，此處以待孟家小姐。左邊的是金雀宮，一帶七間，就做了新房，安頓郡主。”(郭沫若校訂, 앞의 책, 674면.)

화촉지례를 이뤘으나 삼 년 후에 그대와 동처하려 하느니 그대는 원래 현량한 부인이라 헤아리건대 즐겨 이런 마음을 이루게 할 듯 하니 바라건대 내 죄를 용서하고 가히 강마마로 하여금 방안에서 작반케 하라. 만일 내 평생 원을 이루면 자연 그대와 부부 희락하여 백년을 지내니라.”<sup>101)</sup>

인용문 ①, ②에는 내키지 않는 유연옥과의 혼인에 대처하는 황보소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혼인을 이루기도 전에 황보소화는 미리 부모를 찾아가 유연옥과 선을 확실히 그으려 한다. 황보소화는 정실부인의 자리는 여전히 맹려군의 것이라고 말하고 맹려군의 신위를 봉안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황보소화가 안배한 맹려군의 신위를 봉안할 집이 유연옥의 신혼방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특히 유연옥과의 혼인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온통 맹려군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맹려군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대화의 주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맹려군에 대한 황보소화의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인용문 ②는 혼인 날, 황보소화와 유연옥의 대화내용이다. 이 역시 맹려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황보소화만을 바라보는 유연옥을 면전에 두고 다른 여자인 맹려군의 얘기만 하는 모습은 잔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맹려군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동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유연옥에게 통보한다. 사실 황보소화와 유연옥의 결혼은 유명무실한 혼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유연옥은 황보소화와 혼인을 하고 나서도 독수공방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로이 지낸다. 이렇듯 황보소화는 어쩔 수 없이 타인과 혼인을 이루게 된 상황에서도 온통 맹려군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 또 황보소화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맹려군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맹려군은 황보소화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유규벽과 혼인하기 전, 소영설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인하라는 편지를 남기고 남장가출

101) “當年原配孟千金，他被尊兄逼迫行，替嫁之人蘇映雪。孟小姐，改妝逃出暗全身，至今三載無音信，潛避何方竟不聞，孤欲尋時猶未便。現在是，朝廷爲我降綸音，頒行天下官員曉，查訪追尋送到京。立志三年吾願守，原言不肯再重婚，因卿舊有香羅約，況爲孤家又守貞，故此暫成花燭禮。我還要，三年之後伴芳卿。夫人爾是賢良婦，諒肯周全片心。今日失陪祈恕罪，可叫那，江媽相伴在房門。若然了卻平生願，少不得，伉儷和諧百歲春。”(郭沫若校訂, 앞의 책, 693면.)

한 바 있다. 이때 소영설 역시 황보소화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혼인날에 유규벽의 얼굴에 칼을 던진 후 투강한다. 그러나 황보소화는 투강한 인물이 맹려군이며 또한 투강으로 인해 맹려군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맹려군이 남장가출한 사실과, 그날 유규벽과 혼인한 인물이 소영설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평소 맹려군만을 바라고 있었던 황보소화는 맹려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만일 황제께서 정실 찾기를 허락하시면 하늘가와 바다 끝까지라도 찾아다니겠습니다. 만일 금포 탈취한 인연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때에서야 남은 생을 보내려니와 만일 정실을 찾을 곳이 없을진대 문생은 세상의 사람이 되고자 아니하는지라. 몇 해를 이대로 보내다가 삼년 후의 첩을 얻어도 또한 서로 화월을 완상하여 신심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을 낳고 후사를 이으면 평생지원이 이미 마쳤다 하리니 양친이 손아를 두시면 문생이 슬하에 없어도 되니 그때에 부귀작록을 버리고 신선을 찾으려 하옵니다.”<sup>102)</sup>

위 인용문은 황보소화가 그동안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맹려군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장가출한 그녀를 찾으러 나서겠다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황보소화는 하늘가와 바다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맹려군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만약 맹려군을 찾지 못한다면 3년 뒤 다시 첩을 맞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흥미진진하다. 이때 황보소화는 첩을 맞는 이유를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또한 첩을 맞이하여도 부부의 낙-화월을 완상하여 신심을 즐겁게-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발언은 부부가 되어 화월을 완상하여 신심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맹려군 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맹려군을 찾지 못할 경우, 부귀와 벼슬까지 모두 포기하고

102) “倘得皇恩來準奏，天涯海角去尋還。如若奪袍緣未斷，那時還可度餘年。如其無處尋原配，門生是，不慾爲人在世間，幾載之中將就過，三年以後納房偏。也不爲，賞月觀花日夕歡，只要養兒留個後，平生志願已除捐。高堂有個兒孫靠，無用門生在膝前。那其間，洗滌塵心拋富貴，那其間，謝辭錄位訪神仙。”(郭沫若校訂, 앞의 책, 629면.)

은거하겠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는 황보소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맹려군과의 혼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황보소화는 맹려군과 혼인이 정해진 순간부터 오직 맹려군만을 사랑하고 맹려군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맹려군을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맹려군과 혼인하려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한편 맹려군은 맹부인을 진맥하는 과정에서 맹부인이 혼절한 광경을 지켜보다 결국 정체를 밝히고 그간의 일들을 아뢴다. 맹려군이 황보 집안에 알려지 말 것을 당부하나, 이 소식이 끝내 황보소화에게 전해진다. 이에 황보소화는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맹려군이 정체를 밝혔다는 표를 올린다.

① [맹려군]크게 노하여 소매를 걷고 소본을 집어 갈기갈기 찢은 후에 충효왕을 보고 말하기를, “충효왕은 어찌 이같이 황당하느냐? 사부를 희롱하고 군상을 속일진대 강상과 예법이 어디 있으리오? 그대 이 같음은 분명히 외척의 형세를 믿음이로다. 개세공명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나. 경홀히 행사하면 그릇됨이 많으리니 유씨의 일을 가히 거울로 삼음 즉하니 그대는 좋은 충효왕 벼슬을 얻고 유씨를 본받지 말나.”<sup>103)</sup>

② 충효왕이 여승상의 말을 듣고 금란전에서 소본을 찢으며 정색하여 반렬을 향하여 자기를 꾸짖는 것을 보고 놀라고 의아해하며 수참하여 얼굴이 붉혀져 가히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더라.<sup>104)</sup>

인용문 ①은 황보소화가 올린 표를 접하고 맹려군이 이에 대응하는 대목이다. 분명 열세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려군은 위압적인 어조로 강경하게 대응한다. 실제로 맹려군의 뛰어난 언변에 국면이 역전되기

103) 紫袖一抬拿起本，嗤嗤嗤，連聲幾響對撕開。“綱常安在禮何存，戲弄老師又誑君，年少疏狂今若此。爾分明，倚其大勢是皇親，蓋世功名自莫夸，輕言妄舉就多差。劉門榜樣今猶在，爾休將，忠孝清名去學他。”(郭沫若校訂, 앞의 책, 838면.)

104) 忠孝王一聽鄴相所言，又見他在金鑾殿上撕了本章，正顏厲色的向著班中數落，不覺心中又驚又惑，又氣又慚，只羞得滿面通紅，一言不能答應。(郭沫若校訂, 위의 책, 838면.)

도 한다. 황보소화의 진정표를 통해 맹려군이 여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반대로 황보소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맹려군은 전일 유규벽이 위세를 믿고 음모를 저질러 결국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황보소화의 행동을 함께 논하는데, 이는 황보소화에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용문 ②에서는 맹려군의 위압에 위축된 황보소화의 모습이 확인된다. 황보소화는 맹려군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꾸짖는 것에 대하여 분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온통 빨갱게” 된다. 그러나 이 일로 맹려군이 화가 나있을 것을 알고 황보소화는 바로 맹려군을 찾아가 사과한다. 맹려군은 황보소화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에 황보소화는 맹려군의 집에 네 차례 찾아가 사과하려 하지만 결국 문전박대만 당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황보소화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맹려군의 용서를 받으려고 온갖 애를 쓴다. 황보소화가 맹려군에게 무리한 요구와 박대를 당하면서도 시종일관 전적으로 순응하는 장면은 두 사람의 혼인날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여곡절 끝에 황보소화는 맹려군과 혼인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두 황보소화의 탓이라고 여겨 이 혼인이 석연치 않은 맹려군은 첫날밤 일부러 잠자리를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105)</sup> 맹려군은 선불리 황보소화와 합방하지 않고 황보소화가 자신의 배필로 마땅한지 문재시험을 통해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황보소화를 방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맹려군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풍류남자의 성품을 억제하고”, 소화를 자신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황보소화를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놓으려는 일종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험에 황보소화는 반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날 밤까지 “결눈으로 진노한 기색이 없”는지 맹려군의 눈치를 살피는 등 조심스럽고 순종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

결국 사랑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라는 말처럼, 『부장양문록』

105) “만일 소화 복중에 문재 있으면 내 가히 용서하려니와 만일 가슴에 문재 없으면 용서치 아닐지라. 자금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내 궁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서재에 엄하게 가두어 공부하게 하여 풍류 남자의 성품을 억제하고 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若是他，腹有文才還可恕，果然是，胸無點墨不寬恕。從此後，辰昏不許將宮進，關緊書齋遍用功。按按他的風流性，跳不出孟氏千金掌握中。”) 『續修四庫全書』 1745~174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869면.

과 『재생연』의 남주인공은 시종일관 약자의 위치에서 여성영웅에 대해 일방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치스러운 상황도 족히 감수하고 다만 여성영웅과의 혼인성취에만 골몰한다. 두 작품에서는 온갖 힘을 다해 혼인을 성사하려는 남성인물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여성영웅의 서사가 주를 이루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인물이 일방적인 사랑을 표출할수록 이에 대한 여성영웅의 고민도 배가된다. 따라서 여성영웅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남성인물은 여성조력자의 존재보다 더 직접적인 고민으로 다가온다.

## IV. 사회적 배경과 의미

### 1. 『부장양문록』과 『재생연』 출현의 사회적 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장벽계와 맹려군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여성영웅을 부각시켰다. 그 기저에는 사회 변동, 경제의 발전, 새로운 사상의 유입 등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여성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여성의식과 반대로 조선후기에 한층 강화된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여권을 박탈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sup>106)</sup> 특히 양난 이후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 제도로 정착한다. 이는 조선 중기까지 아들, 딸의 구별 없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고 윤회봉사(輪廻奉祀)가 이루어졌다면, 조선후기 외손봉사제도가 사라지고 여성을 제외한 장자에게만 재산이 집중 상속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들은 여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참여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문을 관리하는 이른바 “가문관리자”로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후기는 분명 한국 여성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암흑기였다.

한편 조선후기는 상품경제의 발달로 경제력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집안일을 멀리하며 경제활동에 경험이 없는 선비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다만 예를 지키며 가문유지를 기대할 뿐이었다. 이에 여성들은 길쌈, 농업경영, 절약 등을 통한 집안의 경제적 책임까지 도맡아야 했다. 여성들은 안살림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조직능력을 배웠고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으면서 현실적 합리적 사고능력을 키워갔다. 요컨대 조선후기 여성들은 성장하는 의식과 막힌 현실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나름의

---

106) 이 시기 여성현실에 대한 정리는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4, 31~47면을 참조하였다. 한편 정창권은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 과정을 여성소설이 출현한 사회사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여성영웅소설 또한 여성소설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회사적 배경을 본고의 논의에 적용해도 무방할 듯하다.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여성의식의 성장은 수많은 여성지식인의 등장과 그들의 활발한 문예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례로 서영수합, 강정일당, 이빙허각, 임윤지당 등 조선 여성의 학문적 성과를 들 수 있다. 특히 서영수합의 가문에서는 서영수합의 문학 활동을 인정하여 문집을 엮어주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이는 뒤에서 서술할 중국의 경우와 견주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영수합의 경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07)</sup>

서영수합은 서영수(徐迥修)의 딸이며 순조조 영의정인 홍인모(洪人謨)의 부인이다. 서영수합의 본가와 시가는 모두 당대 명망이 높은 벌열거족(閥閥巨族)이다. 서영수합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글에 관심을 보였으나 외조모가 글 배우는 것을 금지하자, 여러 형제들을 따라 곁방에서 글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주가 뛰어나 15세에 이미 많은 책을 읽어 주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글에 대하여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서영수합은 시집 간지 10년이 넘도록 글을 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 시가에서는 그녀가 글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영수합의 외조모가 여성에게 글 배우는 것을 금지했다는 점, 서영수합이 시집 온 뒤 자신의 재능을 철저히 숨겼다는 점은 당시 조선의 상층 집안에서 여전히 여성이 글을 안다는 것에 대해 꺼려하였으며, 재능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에서 재능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중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재능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관용적이었다. 이는 『재생연』의 작가인 진단생(陳端生) 집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생의 부친은 산둥과 운남 등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였고 모친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다. 이렇듯 진단생의 집안 역시 사대부 가문으로 서영수합의 가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진단생이 글을 읽고 쓰는 행위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서영수합의 가족과 완전히

---

107) 아래 서영수합에 대한 정리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김명희 외,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장단,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한시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를 참고하였다.

상받된다.

진단생은 18세부터 『재생연』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19세에 이미 여공을 폐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여공을 폐한 이유에 대하여 “어머니를 따라 어리석고 우둔한 것을 배우려는 데 있다.”고 덧붙인다.<sup>108)</sup> 여기에서 말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은 탄사를 가리킨다. 더불어 진단생은 『재생연』을 창작한 동기에 대하여 어머니를 즐겁게 헤드리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실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sup>109)</sup>

진단생(陳端生)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만이 아니다. 그의 조부 역시 그녀의 글쓰기에 일조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녀의 조부는 “재녀론(才女論)”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단생의 조부는 여성도 재주를 키워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재주는 바로 옛 전적(典籍)을 읽고 많은 전고를 습득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재주는 남편의 내조, 아이의 가르침, 나아가 가문을 다스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녀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진단생의 집안에서는 그가 글을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sup>110)</sup> 따라서 『재생연』의 작가인 진단생은

---

108) 즉 陳端生의 어머니 역시 탄사를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이토록 어린 나이에 여공을 폐하고 글을 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陳端生의 어머니 역시 탄사를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녀가 어린 나이에 여공을 폐하고 글쓰기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已廢女工徒歲月，因隨母姓學癡愚。”(郭沫若校訂, 앞의 책, 250면.)

109) “原知此事終無益，也不過暫慰慈親笑口開。慈母解頤頻指教，癡兒說夢更纏綿。”(郭沫若校訂, 위의 책, 1085면.)

110)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재능으로 이름나서는 안 된다. 여자가 재명을 얻었다면 박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복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쉽게 온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로부터 복이 없었던 여자가 어찌 천만억에서 그치겠는가?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 또한 한 시대에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이는 그녀들의 재능이 매몰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물며 재능과 복은 늘 서로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 문학적 재능을 지녔으면서 또한 부귀를 누리다가 죽은 여성도 적지 않은데, 어찌 재능으로 이름을 날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진실로 부인의 본분을 다하고 여가가 생기면 옛날 전적을 읽고 유명한 글귀들을 익히면서 전고를 많이 배워 이로써 성령을 크게 깨우칠 수 있다면, 가문을 잘 다스릴뿐더러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면, 마을의 아낙네나 늙은 할멈들이 소경들이 부르는 탄사나 떠돌이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에 빠져있는데, 이

바로 어머니와 조부의 관용적인 태도에 힘입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여성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단생의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진단생이 활동한 시기는 중국 여성문학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들에 의한 창작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sup>111)</sup> 호문해(胡文楷)의 『역대부녀저작고(歷代婦女著作考)』에 따르면 명, 청 시기에 출현한 여성작가는 총 3750명에 달하고, 시숙의(施淑儀)의 『청대규합시인정략(清代閨閣詩人征略)』에 따르면 순치(順治)부터 광서(光緒) 연간의 규중시인이 1260명에 달한다.<sup>112)</sup> 이처럼 명, 청 시기에는 여성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했는데, 특히 청나라 여성들의 빛나는 재능과 뛰어난 학식은 중국 2천여 년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sup>113)</sup>

다음으로 남성문인이 여성문집의 출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한국의 실례로 서영수합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영수합의 한시 작품은 남편인 홍인모의 시집 『족수당집(足睡堂集)』 6권에 <부영수합고(附令壽閣稿)>라는 제목으로 시와 사 192편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은 서영수합이 만년에 남편 홍인모와 시를 화답할 때 창작한 작품이

---

는 마치 용과 돼지와 같이 함께 비길 것이 아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온유돈후가 곧 시교이니, 이로 볼 때, 여아에게는 시교보다 좋은 교육이 없으며, 여기에 재능과 부덕이 함께 들어있다.”(“世之論者每雲，女子不可以才名，凡有才名者，往往福薄。余獨爲不然。福本不易得，亦不易全。古來福薄之女，奚啻千萬億，而知名者，代不過數人。則正以其才之不可沒故也。又況才福亦常不相妨。嫻文事，而享福貴以沒世者，亦復不少，何謂不可以才名也。誠能於婦職餘閒，流覽墳素，諷習篇章，因以多識故典，大啟性靈，則於治家相夫課子，皆非無助。以視邨姑野媪惑溺於盲子彈詞，乞兒說謊，爲之啼笑者，譬如一龍一豬，豈可以同日語哉？又經解雲：溫柔敦厚，試教也。由此思之，則女教莫詩爲近，才也而德即寓焉矣。”) 陳寅恪, 『寒柳堂集』, 北京三聯書店, 2001, 68면.

111) “婦學而至清代，可謂盛極。才媛淑女駢萼連珠，自古婦女作家之衆，無有逾於此時者矣!” 梁乙真, 『中國婦女文學史綱』, 上海書店, 1990, 374면.

112) 曹佳麗, 「“最好的時代”與“最壞的時代”—從文藝創作看明末清初女性審美觀的矛盾衝突」, 四川戲劇, 2016, 159~161면. 이춘희, 「清代 文化와 女性 彈詞小說 作家—詩壇상황과 作家意識의 단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48면.

113) 진동원 지음, 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366면.

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구술로만 창작되었을 뿐, 서영수합은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앞서도 말했듯이, 서영수합의 조모는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을 꺼려하여 그녀가 글을 배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에 서영수합도 조모의 말에 따라 글재주를 한동안 숨겨왔다. 그러나 조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집 간 서영수합 역시 쉽게 자신의 손으로 글을 기록하기 어려웠다. 이는 서영수합 역시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 삶의 틀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들은 모두 남편이 몰래 자식들을 시켜 일일이 기록하게 하여 시집으로 묶어, 1824년 만아들이 남편의 문집에 실어 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영수합의 남편인 홍인모는 그녀의 문학 활동을 허락하고 지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성의 글을 기록하게 하고, 문집에 수록하게 했던 것은 일정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집의 발문에서 서영수합의 아들은 어머니를 위한 일련의 설명을 덧붙인다. 발문에 의하면, 어머니는 평소 글을 읽을 줄 안다는 내색을 전혀 내지 않았고, 시를 짓게 된 것 역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를 짓는 상황에서도 붓으로 기록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혀놓았다. 이로 볼 때, 아들은 어머니의 글을 출판하는 데 일조 하였으나 역시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변명은 역으로 여성의 글이 공식적으로 인쇄되고 출판하는 현상이 어려웠을 당시 상황을 가늠케 한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서영수합의 글쓰기가 가족의 허락과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허락과 지지조차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당시 중국에서 여성의 글쓰기와 출판에 대한 남성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여성작가들이 대대적으로 산출되면서 그들에 의한 창작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남성들이 여성의 글쓰기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과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몇몇의 유명한 남성문인들은 여성의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작품의 수집과 여성문학 창작을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제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원

매(袁枚1716~1798)와 진문술(陳文述1711~1843)이 있다.<sup>114)</sup>

원매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여제자를 받아들여 시 쓰는 법을 가르쳤다. 나아가 수많은 여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장실재(章實齋1738~1801)는 원매의 행동을 『정사찰기(丁巳札記)』<sup>115)</sup>와 『부학(婦學)』<sup>116)</sup>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강력하게 공격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등단(登壇)하여 시를 가르치고 총 119명의 여제자들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1797년 『수원여제자시선(隨園女弟子詩選)』을 출간하였고 진문술(陳文述) 또한 1826년에 10명의 여제자들의 시를 『벽성선관여제자시(碧城仙館女弟子詩)』에 수록하여 출간하기도 하였다.<sup>117)</sup> 이렇듯 당시 중국에서는 원매를 비롯한 일부 남성 문인들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개방적인 환경이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여성의 처지를 동정하는 인물들이 몇몇 등장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이루어졌다.<sup>118)</sup> 강희(康熙) 50년(1711) 모기령(毛奇齡1623~1716)은 중국 고대의 도덕론에 근거하여 『금실녀수지순사문(禁室女守志殉死文)』라는 글을 쓴 바 있다. 제목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시집가기 전 남성의 아내가 아직 아니므로 수절해서는 안 되고 순사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여성의 무조건적인 수절을 반대하였다. 나아가 여성을 동정하고 이에 입각한 여성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남성들이 출현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여진(李汝珍1763~1830)과 유정섭(俞正燮1775~1840)이 있다. 유정섭은 『절부

---

114) 이 시기 여성들의 글쓰기에 남성 문사(文士)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은 이춘희, 앞의 논문, 240~243면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115) “進有無恥妄人，以風流自命，蠱惑女士；率大以優憐雜居所演才子佳人惑人，大江以南，名門大家閨閣多爲所誘。征刻詩稿，標榜聲名，無復男女之嫌，殆忘其身之雌矣。此等閨娃，婦學不修，豈有真才可取？而爲邪人播弄，浸成風俗。人心世道，大可憂也。” 馬清福, 『文壇佳秀: 婦女作家群』, 遼寧人民出版社, 1997, 124면.

116) “婦言, 婦德, 婦容, 婦功是婦人的正學, 吟詩作文乃是妓女所爲. 良家閨閣, 內言且不可聞闔外, 唱酬此言 何爲而至耶?” 馬清福, 위의 책, 124면.

117) 陳文述의 여제자들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秦天, 「陳文述與碧城仙館女弟子」,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6을 참고하였다.

118)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한 노력에 대하여 진동원 지음, 송정화·최수경 옮김, 앞의 책, 354면을 참고하였다.

설(節婦說)』, 『정녀설(貞女說)』 등을 통하여 전족, 일부다처, 수절 강요, 처녀수절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어진은 『경화연(鏡花緣)』에서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대담한 시도를 하였다.<sup>119)</sup>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이 창작될 무렵 양국에서는 사회 변동, 사회경제의 발전, 새로운 사상의 유입 등으로 인해 여성의식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양국 여성 영웅소설에도 반영되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이 창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중국의 경우 남성문인에 의한 여성 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졌고, 일부 남성들이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조선의 경우보다 개방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남성들의 태도 차이는 양국 여성영웅소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작품에서 가부장이 여성영웅에게 보이는 태도 차이로 구현된다. 앞장에서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 등장한 아버지의 형상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부장양문록』의 아버지는 여성영웅이 남성의 삶을 살아가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반면, 『재생연』의 아버지는 여성영웅의 재주를 아끼고 존중해주면서 여성영웅이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태도는 『부장양문록』과 『재생연』뿐만 아니라 양국의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학사전』의 아버지는 여성영웅의 삶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방한립전』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남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아버지가 여성영웅의 삶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아녀영웅전』의 아버지는 여성영웅을 돕는 역할로 등장한다.

『이학사전』의 이현경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의 삶에 뜻을 두어 세 살

---

119) 이어진이 『경화연』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나친 치장을 반대한다. 2. 귀 뚫는 것을 반대한다. 3. 전족을 반대한다. 4. 사주로 궁합보는 것을 반대한다. 5. 첩 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6. 남녀의 지체가 평등함을 인정한다. 7.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 (이상의 정리는 진동원 지음, 송정화·최수경 옮김, 앞의 책, 359면을 참고하였다.)

부터 글 읽기에 힘써 재학이 날로 성취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현경의 모습에 아버지는 염려하며 그녀에게 경고한다.

리공 부부(夫婦) 비록 그 지조(才操)를 사랑하나 너도 활달(豁達)함을 넘너(念慮)하야 경계(警戒)왈, “네 녀즈(女子)의 몸으로 녀즈(女子)의 도(道)를 닦글거시어날 남즈(男子)에 일을 헝흠은 엇지민다?” 현경이 공경(恭敬)되왈, “스름이 세상에 처하미 임군을 충성(忠誠)으로 섬기고 네 비록 녀즈의 몸이오나 뜻은 세상에 용렬(勇烈)한 남즈(男子)를 웃느니 원컨디 녀복(女服)을 벗고 남복(男服)을 기착(改著)하와 부모(父母)를 피쳐 아들의 도를 헝코즈 하느이다.” 리공이 처음은 망녕(妄靈)되다 칙(責)하다가 다시 심각하되 제 아직 미거(未舉)하코로 이곳튼 뜻을 두니 아직 저 하코즈 하논 바를 좃칠거시오 이후(以後)에 장성(長成)하면 제 스스로 슈괴(羞愧)한 마음이 잇서 녀즈(女子)의 도(道)를 헝하리라.<sup>120)</sup>

위 인용문은 현경이 남자의 영역에 잠심하려는 뜻을 밝히자 아버지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비록 이현경은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았지만, 인용문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바라는 것은 여전히 여자의 도를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가 이현경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는 이유는 현경이 아직 어리석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잠시 동안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지, 결국은 여성의 올바른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1)</sup> 이후 8세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이현경은 자신의 뜻대로 벼슬길에 들어서고 이 과정에서 장연과 깊은 우애를 맺는다.

장상세 이날 밤의 홀연(忽然) 한 꿈을 어드니 한 스름이 와서 장상셔 다려왈, “나는 리형도라 너의 녀식(女息)이 어려서부터 남아(男兒)의 뜻을 품어 인간(人間)의 녹록(碌碌)한 소장부를 안하

120) 『이학사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아세아문화사, 1977, 197면.

121) 부모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강진옥은 “잠정적인 동조”라고 논의한 바 있다. 강진옥, 「<이형경전>연구: 부도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77면.

(眼下)의 두고 세상영화(世上榮華)를 미리 아르지 잇는지라. 너 너를 위하여 후스(後嗣)를 정코즈 흐느니 흐느흔 현처(賢妻)를 엇고 들치는 녀오(女兒)의 너모 고집흐를 두로히게 흐느니 네 도를 닷가 너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라.” 흐거늘 장연이 못고즈 흐다가 썩다르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sup>122)</sup>

이현경이 공을 세우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장연의 꿈에 나타난 내용이다. 이날 이현경과 장연은 함께 문연각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이현경의 아버지가 장연에게 딸의 실체를 알려주고, 두 사람이 앞으로 혼인하게 될 운명임을 알려준다. 더불어 장연에게 현경의 고집을 꺾어 올바른 여성의 삶을 살게끔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의아한 장연은 이현경에게 자신의 꿈을 그대로 읊기자 놀란 이현경은 얼굴색이 변하지만 애써 침착하며 꿈일 뿐이라고 웃어넘긴다. 사실 이날 이현경도 똑같은 꿈을 꾸 바 있다.<sup>123)</sup> 이현경의 스트레스는 이날로부터 시작되어 그가 남성의 삶을 포기할 때까지 유지된다. 이현경은 실제로 이런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불평”하여 조정을 나가지 않기도 한다. 이윽고 이현경은 다시 한 번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일(一日)은 쏘 일몽(一夢)을 어드니 부모(父母) 울며 기유(開諭)해야 왓, “네 이럿듯 고집(固執)흐니 우리 디하(地下)에 잇서 눈을 감지 못흐노라. 모르미 녀즈(女子)의 도를 썰니 횡흐면 더욱 효도(孝道) 되리라.”흐니 상세 반겨 디답고져흐다가 문득 썩다르니 부모(父母)의 말씀이 이변(耳邊)에 징징흐고 친안(親顏)이 눈에 암암흐니 마음이 더욱 감동(感動)흐고 처량(淒涼)해야 추연(惘然)탄식(歎息)흐더니(후략).<sup>124)</sup>

122) 『이학사전』, 앞의 책, 210면.

123) 현경이 쏘흔 자괴 몽스(夢事事)와 궂튼지라. 심니에 의의(依依)해야 신색(神色)을 강잉(強仍)흐고 같오디, “몽새(夢) 미양 허탄(虛誕)흔 일이 만흐니 가히 밋지 못흐려니와 진실노 너의 가친(家親)과 동명이 잇는가 흐느니 형은 모르미 허탄(虛誕)흔 말을 말느”하니 장상세왓, “소데의 몽중에 완연이 형의 선디인을 뵈왔시니 가장 괴이(怪異)흔 일이로다.” 리상세 소왓, “형의 말이 허망(虛妄)흔지라 실노 너의 즈뭍(姊妹) 업거니와 잇다흔들 엇지 형의 가인(佳人)이 되리오.” 『이학사전』, 위의 책, 211면.

124) 『이학사전』, 위의 책, 212면.

이날 이현경의 부모는 또다시 현경의 꿈에 나타나 그를 개유하려 시도한다. 사실 부모의 말은 개유라기보다 명령에 가깝다. 이현경이 여도를 거부하고 남성의 삶을 고집하는 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효”를 중요시하던 당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을 듣고 이현경은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 현경은 아버지가 연달아 꿈에 나타나며 심적인 괴로움에 시달리다 병을 앓게 되고 어의에게 진찰을 받는 도중 여성임이 밝혀지게 된다.

사실 이현경의 정체가 드러나는 결정적 계기는 여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꿈에 등장한 것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어의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가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연달아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현경은 내적 갈등이 생기지 않아 병도 앓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어의에 의해 여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학사전』에서의 아버지는 여성영웅의 삶을 가로막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방한립전』은 여성영웅이 죽을 때까지 남성적 삶을 실천했다는 점, 남성영웅이 배제된 채 두 여성사이의 동성혼인을 곡진하게 그려냈다는 점, 아들을 입양하여 여성의 성을 따르게 했다는 점으로 인해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상술한 독특한 자질로 인해 『방한립전』은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질곡을 가장 심각하면서도 급진적으로 문제 삼은 작품”<sup>125)</sup>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방관주가 이처럼 자신의 소원대로 죽을 때까지 남성적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다. 여덟 살 되던 해 부모를 모두 잃은 방관주는 여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외면한 채,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품고 항상 남자로서 처신하였다. 그 결과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등 공적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방관주의 일생은 그야말로 좌절은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sup>126)</sup>

125) 이상구 옮김, 『방한립전』, 문학동네, 2017, 193면.

126) 최지너는 여성영웅의 일대기 중 여성영웅이 소기의 목표를 성취한 후 심적인 좌절을 비롯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방한립전』은 ‘단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방관주를 구속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일생동안 영웅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한립전』 역시 아버지가 여성영웅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역설한다. 즉 한국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아버지는 대체로 여성영웅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로 작동하는 것이다.<sup>127)</sup>

이와 반대로 중국소설인 『아녀영웅전』의 아버지는 『재생연』의 아버지와 방불하며 여성영웅의 삶을 지지해주는 역할로 등장한다. 『아녀영웅전』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이 함께 등장하는 작품이다. 작품에서 남성영웅에 해당하는 인물은 안기이고 여성영웅에 해당하는 인물은 하옥봉이다. 이야기는 안기의 아버지가 간신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데부터 시작된다. 안기는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중 머물던 절에서 화상과 마부들을 마주친다. 화상과 마부는 안기를 해치고 그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하옥봉의 등장으로 안기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마침 그 절에 또 한명의 여인인 장금봉이 갇혀있었는데, 하옥봉은 그녀까지 구해준다. 일찍이 하옥봉 아버지의 상사는 하옥봉을 며느리로 삼고자 했으나 하옥봉의 아버지는 그 상대가 망나니인 것을 간파하고 혼담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하옥봉의 아버지에게 양심을 품은 상사는 음모를 꾸리고, 그 결과 하옥봉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게 된다. 이때부터 하옥봉은 어머니와 청운사에 은거하면서 복수할 뜻을 세운다. 이렇게 하옥봉은 절에서 안기와 장금봉을 만나고 두 사람의 혼인까지 추진시킨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신이 이미 죽은 사실을 안 하옥봉은 출가하려다가, 주변인의 만류에 포기하고 안기와 결혼하며 하옥봉과 장금봉은 자매처럼 지낸다.

『아녀영웅전』의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영웅인 하옥봉의 아버지 역시 자녀중심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다. 이는 딸의 행복을 위하여 상사와의 대립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

---

최로서의 단명'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좌절을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지녀, 앞의 논문, 34~40면.

127) 이에 대하여 최지녀는 “여성영웅은 아버지를 복권시키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활약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규제가 사라진 소설적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발산”하고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오거나, 남동생이 장성하거나, 남편이 생기는 순간, 이들은 여성영웅의 남성적 역할을 제어하고 다시 여성의 성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논의한 바 있다. 최지녀, 위의 논문, 113면.

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딸의 적성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영웅 하옥봉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남성의 학문에 종사하게 된 연유를 사람들에게 밝힌 바 있다. 하옥봉은 여성으로 19세까지 살아왔지만 침선을 아예 모른다. 특히 여성으로서 단춧고리를 꿰매는 것조차 모른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하옥봉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아버지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하옥봉은 조부가 무직에 몸을 담을 때 처음 여러 가지 병기(兵器)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무(武)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병서를 비롯한 일련의 지식들을 습득한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무(武)의 영역이 딸의 적성에 맞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아껴준다. 예컨대, 아버지는 틈만 나면 칼법, 탄궁(彈弓) 등과 같은 기법을 친히 딸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sup>128)</sup> 이는 아버지가 보수적인 사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증거가 된다.

요컨대 한국 여성영웅소설에서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라면 중국의 경우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 여성영웅소설이 창작될 유럽 사회 변동, 사회경제의 발전, 새로운 사상의 유입 등으로 여성의식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교했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양국의 작품 속에서 일정한 차이를 조성하여 여성영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환경에서 창작된 『부장양문록』이지만, 궁극적으로 내재하는 문제의식이 보다 관용적인 분위기아래에서 창작된 『재생연』이 담지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

128) “說來不怕你大家笑話，我活了十九歲，不知橫針豎線，你就叫我釘個鈕釦子，我不知道從哪兒釘起。我家原是歷代書香，我自幼也曾讀書識字。自從我祖父手裡就了武職，便講究些兵法陣圖，練習各般武備，因此我父親得了家學真傳。那時我在旁見了這些東西，便無般的不愛。我父親膝下無兒，就把我當個男孩兒教養。見我性情合這事相近，閒來也指點我些刀法槍法，久之，就漸漸曉得了些道理。乃至看了那各種兵書，才知不但技藝可以練得精，就是膂力也可以練得到。若論十八般兵器，我都算拿得起。只這刀法，槍法，彈弓，袖箭，拳腳，卻是老人家口傳心授。”(文康, 『兒女英雄傳』, 電子版 中國基本古籍庫, 82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데서 『부장양문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흥미소와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결합

이 절에서는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여러 명 등장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앞질러서 말하자면 다양한 인물설정은 이야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이는 단적으로 두 작품에서 혈기왕성한 남성인물 부계와 황보소화를 통해 서사의 흥미를 극대화 시킨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장에서 부계와 황보소화가 여성영웅을 향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애를 표현하여 여성영웅의 삶을 간접적으로 방해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인물은 여성영웅을 방해하는 한편 서사의 흥미를 보장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독자들에게 공개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보다 한발 앞서 사건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다. 이에 독자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작중인물에게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를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읽게 된다.

예를 들어 『부장양문록』에서 부계는 남성으로 위장한 장벽계가 자신의 정혼자인 줄도 모른 채 그와 교유하던 중 그에게 반한 바 있다.

부싱이 웃고 쇼제의 사미를 잡고 갈오되, “즈원아, 네 얼굴이 절 디미인(絶對美人) 갓하니 네 만일(萬一) 남화위녀(男化爲女)흐면 니 장씨을 위흐 절(節)을 훼(毀)흐여 부뷔(夫婦)되여 백수동낙(白首同樂)의 여한(餘恨) 업사리라.” 쇼제 닉심(內心)의 비록 면괴(面愧)흐나 스식(思索)지 아니코 강잉(強仍) 소왈, “괴괴(奇怪)흐다. 니 비록 남화위녀(男化爲女)흐들 규중(閨中)의 혼즈 늘글지언정 화촉지의(花燭之禮)는 일우지 아니흐고 죽은 규수(閨秀)를 직희여 수절(守節)흐려 흐는 용열흐 즈문의 수건(手巾)을 츠마 엇지 녹녹

(碌碌)히 밧들이오? 가히 우은 말 뵈나.” <권지이, 9a>

앞서 부계는 장벽계와 윤선강과의 혼인을 모두 성사시키지 못하자 열굴이 소삭해질 정도로 괴로워하였다.<sup>129)</sup>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장벽계가 자신의 면전에 서있음에도 부계는 알아보지 못하고 위와 같은 고백을 한다. 이와 반대로 독자들은 부계와 대화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부계의 속을 그토록 꿰이게 했던 장벽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계는 한편의 희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우스운 형상이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부계의 어리석은 면모에 웃음을 금치 못하고 작중인물도 모르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음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 속으로 스며들어 서사에 더욱 몰입하여 작품을 읽었을 것이다.

한편 부계는 남성으로 위장한 장벽계의 모습을 그의 실체로 오인(誤認)하고 한 치의 의심 없이 그와 교유하며 그에게 고백한다. 부계의 장난삼아 던진 말 한마디에 장벽계는 정색하며 반박한다. 장벽계는 “설사 자신이 남화위녀 한들 혼자 규방에서 늙을지언정 부계의 아내 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 가능성을 단칼에 없애버린다. 여성이 남성들에게 강한 억압을 받았던 조선사회의 당시 상황을 상기한다면, 장벽계가 과감하게 말로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으나 누구나 한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장면을 연출하여 독자에게 쾌감을 선사해준다.

이렇듯 독자들은 장벽계의 정체가 부계를 비롯한 작중인물에게 언제, 어떻게 탄로 날지 궁금해 하며 한층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을 읽어내려 갔을 것이다. 또한 부계가 무지(無知)와 착각에 빠진 상황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부계를 한층 우스운 형상으로 부각시켜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sup>130)</sup>

129) “당가는 엇던 스람이완디 저 빙물(聘物)을 직회여 도로(道路)의 유리(游離)호믈 감심(甘心)호니 (중략) 이쳐로 싱국호미 심신(心神)이 스라져 장소제의 유호호니 의용(儀容)과 윤쇼저의 아리싸운 티되(態度) 전전반측(輾轉反側)호여 잠을 일우지 못호고 식불감미(食不甘味)호며 화괴(和氣) 소삭(消索)호고(후략).” <권지일, 38b~39a>

130) 이에 대하여 최어진은 “속이기의 전복성은 속는 사람의 무지와 착각을 드러내 희극적 상황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상화 관계가 평등해지거나 역전되

윤선강의 남장행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선강은 장벽계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남장으로 환복하고 가출한다. 이때 피신한 절에서 우연히 부계를 만나는데, 부계는 독자들에게 또 한 번 큰 웃음을 선사한다. 부계는 윤선강에게 이름을 물어보는데, 윤선강은 남자와 말을 통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귀머거리인척 한다. 이에 윤선강의 시비가 대신 답하는데, 자신의 주인이 장씨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응한다. 부계는 윤선강이 장벽계라는 의심을 품고 병을 고쳐주겠다는 명분으로 윤선강의 맥을 짚으려고 나선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독자들은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지고 서사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부계는 진맥을 통하여 윤선강이 여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낸다. 장씨인데다 여화위남한 윤선강의 여러 단서를 조합해본 결과 부계는 윤선강을 자신의 정혼자인 장벽계로 오인하고<sup>131)</sup> 윤선강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시녀에게 캐묻는다. 그러나 부계가 추궁하면 할수록 시녀는 주인에 대한 정보를 아끼고 부계는 더욱 의심을 품게 되어 결국 윤선강이 장벽계라는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듯 오해는 점점 커져만 가고 부계는 또 한 번 꼼짝없이 속아 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윤선강이 장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독자들로서는 부계가 윤선강을 장벽계로 착각하여 들떠있는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부계와 윤선강이 대면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시비로 인해 조성된 오해가 서사의 극적 재미를 배가시킨다. 윤선강을 장벽계라고 의심한 부계는 시비에게 윤선강이 “장상서의 딸”인지 물어본다. 자신의 주인이 외간 남자와 오래 머물고 있다는 혐의를 끼칠까 두려운 시비는 부계를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그의 말에 순응하여 답한다. 이에 윤선강이 장벽계라는 답을 얻은 부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는 앞날 장벽계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계의 구혼을 거절하고 가출한 윤선강에게 있어서

---

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논의하였다.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7면.

131) “저 녀지(女子) 이런 용광즈혜로 여화위남(女化爲男)호여 병닌(病人)을 칭(稱)호고 산간(山間)의 은신(隱身)호니 벽벽히 연괴 적은디 잇지 아니호고 당가라호니 이 아니 복히 당씨 화염등 투싱(偷生)하여 유리분찬(游離奔竄)호여 혐의(嫌疑)을 피호려 부득이(不得已) 음양(陰陽)을 변(變)호였고 이 고디 머무른다.” <권지이, 13a~13b>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부계-장벽계-윤선강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얽혀짐에 따라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 세 사람 사이의 오해가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부계는 윤선강을 장벽계로 착각하여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자 하고 윤선강은 예에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하여 자결을 시도한다. 이 때, 부계와 윤선강-시비는 모두 서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이 장면은 폭소를 자아낸다. 우여곡절 끝에 정혼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앞날의 정혼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부계와, 그러한 얘기를 알 리 없는 윤선강과 시비, 그리고 자신을 만났음에도 기어코 자결을 행하려는 착각 속의 정혼자의 모습을 본 부계.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하여 어리둥절하고 영문도 모른 채 양측 모두 답답해하기만 한다. 부계가 생똥맞은 상대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는 모습은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부질없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부계의 모습은 모든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잉이 주인(主人) 위한 정성(精誠)이 하늘의 다헛거늘 주인(主人)의 이 경식(景色)을 디혀 총심이 여쇄하고 하독이 나니 다라 드러 한님의 붓 쓴 손을 쓰드며 통곡(痛哭) 왈, “이 눈 업슨 상공야. 우리 쇼계 어니날에 진교역 핑약(盟約)헛였다고 공연(空然)히 억탁(臆度)헛스 구타여 존잉흔 죽엄을고져 헛시노노. 쇼적의 노주(奴主)는 오날날 죽으려니와 상공계도 양화(殃禍) 업지 아니할이 니다.” <권지이, 19a>

윤선강은 외간 남자와 함께 머물렀다는 생각에 수치를 느껴 자결을 행한다. 시비에게 주인의 자결은 부계의 탓이다. 시비가 윤선강의 품성에 대해 부계에게 알려주었고 거둬 돌아가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비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계에게 분출한다. 시비는 부계의 팔목을 물어뜯는가 하면 “눈 없는 사람”이라고 부계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는 앞서 장벽계가 남자로 위장하면서 부계와 교류하던 중 말로 부계를 제압하여 독자의 쾌감을 자아내는 장면과 동례를 이룬다. 그러나 앞에서 장벽계가 남장이라는 보호막이 있었다면 이

장면에서는 시비가 여성의 신분인 채로, 더욱이 시비의 신분인 채로 날카로운 말투로 남성인물을 몰아붙이듯 공격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독자에게 전달된 쾌감도 배가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답답하기만 했던 독자들은 시비의 한마디에 시원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남성인물이 무지의 상황에 빠져 보이는 일련의 행동이 작품의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는 『재생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연』은 총 20권이라는 긴 분량 중 18권에 이르러서야 사건의 모든 진위(眞僞)가 완전히 밝혀진다. 따라서 남성인물이 속임수에 빠지는 분량이 서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만큼 남성인물이 우스운 형상으로 구현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다.

전술했듯이 맹려군의 남장은 정혼자와의 신의를 지키고, 정혼자 집안을 구하기 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맹려군과 황보소화는 혼인을 약속한 상황에서 간신의 모함을 받아 이별을 맞이하고 6권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다. 이때 맹려군의 신분은 병부상서 대사마이고 황보소화는 무장원(武狀元)으로 맹려군의 제자가 되는데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18권까지 유지된다. 이때부터 황보소화는 맹려군을 의심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그를 존중한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황보소화의 의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맹려군을 두고 “맹려군이 옳다 아니다.”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소재이다.

먼저 황보소화가 맹려군을 대면하면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행동하는 부분을 보자.

“세상에 이 같은 아름다운 남자도 있는가!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이니 어린 나이에 이 같이 현달하고 나는 머리를 숙여 사람의 아래 된지라. 어찌 부럽지 않고 공경하지 않겠는가? 여승상의 재능과 복록은 하늘과 같이 높다.”<sup>132)</sup>

132) “呵唷，怪哉，世上竟有這般美男子！年紀與吾相仿佛，便能賢達在人先。他當少小居高位，我卻低微過矮檐，可羨可夸還可敬。鄙尚書，才容福祿并齊天。”黃華公子心稱讚。（郭若沫校訂，앞의 책，444면.）

황보소화는 무장원(武狀元)으로 발탁되어 스승인 맹려군을 만나게 된다. 이때 황보소화는 면전에 있는 스승이 바로 자신의 정혼자인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미모와 비범한 능력에 빠지게 되어 감탄을 멈추지 못한다. 황보소화는 나이가 비슷한 맹려군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맹려군과 낮은 자리에 위치한 자신의 신세를 비교하면서 맹려군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을 드러낸다.

이와 반대로 맹려군은 황보소화를 보는 순간 황보소화가 자신의 정혼자임을 눈치 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개명한 상태에서 대면하게 된다. 맹려군(孟麗君)은 남장으로 환복하고 여군옥(鄺君玉)으로 개명하여 벼슬한 것이고 황보소화(皇甫少華)는 간신의 모함에 화를 피하기 위하여 황소화(黃少華)로 개명한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개명상황에서 서로를 만났지만 맹려군은 황소화(黃少華)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그가 황보소화(皇甫少華)임을 눈치 챈다. 맹려군의 추리에 의하면 그는 “황보소화(皇甫少華)라는 네 자를 분리하여 장두누미(藏頭露尾)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변하여 황소화(黃少華)로 변한 것”<sup>133)</sup>이다. 사실 여군옥(鄺君玉)이라는 이름도 옥(玉)이라는 글자를 빼면 려군(麗君)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이 새 이름을 지은 데 사용한 규칙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한눈에 간파한 맹려군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황보소화의 비교를 통하여 황보소화의 우스운 모습이 한결 부각된다.

이때부터 맹려군과 황보소화 사이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는 지속된다. 특히 20권 중 12권에 이르러서 맹려군은 어쩔 수 없이 부모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만 18권에 이르러서야 황보소화에게 완전히 정체를 밝힌다. 12권에서 맹려군이 맹부(孟府)에서 정체를 밝혔다는 소문이 이미 황보소화의 귀에 전해진다. 그러나 황보소화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맹려군의 억박 한마디에 이내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면서 급기야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

133) “이 사람의 이름은 황보소화 네 자를 분리하여 지은 것 같은데 무슨 연고 있는지라. 하물며 고향이 형양이라 하니 이상하도다. 정히 황보소화 장두누미하여 이름을 변한 것 같으니라.” (“這人的姓名是將皇甫少華四個字分析而言的，卻有些緣故，況兼籍貫是荊襄。字甫名華又姓黃，可怪可奇還可喜。莫非真是那家郎，藏頭露尾更名氏。”) 郭若沫校訂, 앞의 책, 442면.

은 황보소화가 맹려군에게 찢절때는 모습에 쾌감과 대리만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한편 『재생연』에서는 황보소화가 작중인물 중 가장 마지막으로 맹려군의 정체를 알게 된 인물로 설정되는데, 이를 통해 황보소화의 어리석은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되어 독자의 흥미를 지속시킨다.

이외에도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남성인물이 구애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혼사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을 부각시켰는데 이 또한 여성독자들에게 일종의 쾌감을 선사한다. 특히 두 작품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보이는 남성인물과 반대로 정작 혼인의 성사여부는 여성영웅에 의해 결정된다는 반전을 보인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남녀관계의 역전을 통하여 여성독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남성인물이 혼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여성영웅에 의해 괴로워할수록 여성독자들은 더욱 많은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시종일관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조력자의 형상 역시 일조를 한다. 두 작품에서는 여성영웅과 여성조력자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이야기가 긴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가부장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살아온 한중 여성들에게 여성지기(女性知己)와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기하여<sup>134)</sup> 서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었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작가는 흥미성과 오락성을 서사의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토록 흥미성과 오락성에 대해 고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흥미성과 오락성을 통해 독자들의 진지한 고민을 끌어내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장 1절에서 두 작품의 여성영웅이 각각 효의식과 여성 의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남장을 선택하고, 무(武), 문(文) 영역에서 활약하며 공적영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남장을 선택하고 문장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의식을 유지한다. 여성영웅이 문장능력으로 활약하고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지속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부장양문록』과 기타 여성영웅소설을

---

134) 고은임, 앞의 논문, 2015, 205면.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전술했듯이 기타 여성영웅소설에서 전쟁 중의 활약장면을 거듭 부각시키는 반면 『부장양문록』에서는 전쟁의 횡수를 1번으로 제한시켜 문장능력으로 여성영웅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여성영웅이 내재하는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지속시켰다. 그렇다면 여성영웅이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도록 하는 서사적 설정과 여성영웅의 문제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영웅을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게 만드는 설정은 여성영웅이 갖는 문제의식을 지속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된다.

절대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전쟁이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부장양문록』에서는 여성영웅에게 위와 같은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문장능력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나름의 성찰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sup>135)</sup>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이 무(武)로서 활약하여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은 독자에게 일시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쟁능력을 통하여 여성영웅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설정이 거듭되면 될수록 여성독자의 현실과 거리가 멀어져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성독자들은 여성영웅소설의 독서를 단지 일종의 소일거리로만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가기 십상이며 진지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무(武)의 영역에서의 활약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것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여성의 현실에 보다 근접한 영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앞서 확인한 문(文)의 영역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여성의 현실에 보다 가깝고 상대적으로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문장능력을 통하여 공적영역에서 승승장구하는 장벽계라는 인물설정은 여성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

---

135) 채윤미, 앞의 논문, 83면.

민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소설이지만 독자들에게 여성영웅이 갖는 문제의식을 일시적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반되기를 기대하는 작자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장벽계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한에 대해 토로하고 목숨을 거두는 대목이 잘 뒷받침 해준다.

일식(日色)이 숨고 일운명월(一輪明月)이 낮 ㄹㅎ니 장후 좌슈(左手)로 영평후의 손을 잡고 우수(右手)로 윤부인을 잇쓰러 화원(花園)의 무궁경기(無窮景概)를 슬도록 완상(玩賞)하고 노리 불너 왓, “장부(丈夫)의 믿음으로 몸이 녀즈(女子) 되니 천만 한(恨)이 유유(悠悠)호도다.” <권지5, 70a~70b>

위 장면은 서사의 끝부분에 장벽계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회한에 잠긴 부분이다. 특히 “장부의 믿음으로 몸이 여자 되니 천만 한이 유유하도다.”라는 장벽계의 발언에서도 느낄 수 있듯 장벽계에게 있어 여성으로 태어난 한(恨)은 일생을 걸쳐 지속되며, 지나간 일생에서 가장 큰 한이 된다. 이는 죽기 직전까지 다시 상기되어 여성으로 태어난 한(恨)의 진지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sup>136)</sup> 따라서 장벽계가 자신의 한(恨)을 주변인물들에게 토로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설정은 독자들에게 여성으로서 태어난 한(恨)에 대하여 더 이상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자연스레 여성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부장양문록』에서는 여성의 현실에 가까운 문(文)의 활약을 통하여 여성독자의 공감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영웅의 문제의식을 끝까지 유지시켜 독자의 진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장양문록』과 같이 서사의 끝까지 문제의식을 유지시킨 여성영웅소설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상의 가설을 논증하기 어려우나 본고의 비교대상인 『재생연』은 이러한 가설의 설득력을 한층 제고시켜 준다.

136) 이에 대하여 정병설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이처럼 깊이 있는 반성과 회한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곧 “부장양문록이 단편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성을 뛰어넘어 장편의 진지한 소설 세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병설, 앞의 논문, 2001, 227면.

이는 『재생연』에서 3명의 여성영웅을 각각 문(文)과 무(武)의 영역에서 활약하게 하는 인물설정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술했듯이 위용아와 황보장화는 가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무(武)의 활약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한 뒤 여성의 역할로 돌아온다. 이와 반대로 맹려군은 처음 위용아, 황보장화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적영역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문(文)의 활약을 통하여 정혼자 가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점점 심화되어 여성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사의 마지막까지 유지시키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재생연』에서 여성영웅 세 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또 처음에는 비슷한 의식 아래에서 공적영역을 경험하지만 문(文)과 무(武)의 영역에서의 활약을 통하여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되는 설정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는 『부장양문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재생연』의 위용아와 황보장화는 한 차례 전쟁에 뛰어들 후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활약은 일시적인 것으로 존재감이 낮으며 결혼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독자의 시야에서도 점점 멀어진다. 이는 무(武) 영역의 활약을 통하여 보여주는 두 사람의 문제의식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지 독자의 이목을 끄는 흥미소로만 일시적으로 소비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성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맹려군이 문(文)의 영역에서 여러 번 활약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장면은 여성의 공감을 보다 자아낼 수 있다. 특히 작가는 맹려군을 서사의 초반에서 정혼자와의 신의를 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당대 가부장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여성의 현실에 가까운 인물로 설정한다. 이에 여성독자들에게 있어서 맹려군의 서사는 처음부터 익숙하고 친근하여 공감되는 측면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정혼자 가문을 구하고 여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맹려군을 공적영역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점점 변화시키고 극적으로 여성의 삶을 회의하는 인물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본래 자신들과 같은 층위에 있었던 맹려군의 변화과정을 일일이 목도하는 독자들은 자신과 맹려군을 한번 쯤 비교하였을 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은 독자들을 여성의 삶

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독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깨달음도 어느 정도 수반된다.

한편 『재생연』의 맹려군 역시 여성으로 태어난 한(恨)에 대해 토로한 바 있는데, 이는 전술한 장벽계의 경우와 방불하여 서사의 끝부분에 나타난다.

“내 부모를 마음에 잊음이 아니라 다만 사모와 옥대를 버리지 못하여 이 같이 하였더니, 다만 한함은 당당한 승상과 혁혁한 이름을 모두 버리고 복식을 고쳐 다시 여자 되어 심규에 은복할 것이다.”<sup>137)</sup>

위 대목은 맹려군의 서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한함은 복식을 고쳐 다시 여자 되어 심규에 은복할 것”이라는 서술은 규중 여자가 되어 심규에 갇혀 있는 것이 맹려군에게는 가장 큰 “한”이 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한”은 여자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다시 상기되며 맹려군으로 하여금 회한에 잠기게 한다. 이 한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맹려군의 삶에서 가장 큰 “한”이란 바로 다시 여자가 되어 심규에 은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전체 분량인 20권 중 18권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그만큼 작가가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일관시키려는 의도이고 독자들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려는 증거이다.

요약하자면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는 문(文)으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부각시켜 여성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여성영웅이 지닌 문제의식을 끝까지 유지시켜 독자들에게 여성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 작가가 문(文)으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설정한 것은 독자들에게 여성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처럼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흥미성은 물론이고 진지성까지 골고루 겸비한 작품이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창출하는 데 많은 지

137) “非是我，椿堂萱室去懷抱。都只爲，紫綬金章係戀腸。恨只恨，堂堂相國歸烏有，赫赫名聲赴海洋。恨只恨，改妝仍作裙釵女，深躲閨中要隱藏。”（『續修四庫全書』，1745~1746，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825면.）

면을 할애하여 다채로운 흥미를 제공하려는 설정은 두 작품이 흥미성에  
경도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성은 역설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일단 흥미성으로 독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을 확보한 기초 상  
에서, 장벽계와 맹려군이라는 인물을 창출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  
식을 서사의 끝까지 유지시켜 이에 대한 독자들의 진지한 고민을 지속적  
으로 환기시키려고 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흥미성은 독자들이 여성의 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데  
복무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고는 한국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과 중국 여성영웅소설 『재생연』을 대상으로 두 작품에 나타난 인물형상의 특징을 밝히고 작품이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거두는 효과와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서사구조를 순차구조, 인물구조, 공간구조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순차구조를 보면 제1대, 제2대, 제3대의 인물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제2대 인물의 서사가 중심이 된다. 두 작품의 인물구조를 보면 주변인물들의 일대기가 여성영웅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주변인물은 여성영웅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조력자와 남성인물을 가리킨다. 여성조력자는 여성영웅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여성영웅이 대외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동성혼인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고 남성인물은 여성영웅에 대해 일방적인 사랑을 꾸준히 표출하는 인물이다. 두 작품의 공간구조를 보면 여성영웅이 공적영역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다가 여성이라는 정체가 밝혀짐에 따라 다시 사적영역으로 돌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영웅이 사적영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황제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 다시 가문의 경계를 넘어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III장에서는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인물을 여성영웅, 여성조력자, 남성인물로 대별하여 인물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생연』에서 여성영웅인 황보장화, 위용아는 효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공적영역에 진출하는데, 무(武)의 활약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여성의 삶으로 회귀한다. 이에 반해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재생연』의 맹려군은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문(文)의 활약을 통하여 일생에 걸쳐

여성의 삶을 극구 거부한다. 이를 통해 황보장화와 위용아에 비해 장벽계와 맹려군이 여성의 현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장벽계와 맹려군이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시점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즉 장벽계는 어려서부터 여성의 한계를 간파하여 일생을 걸쳐 여성의 삶을 거부하였던 반면 맹려군의 의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맹려군은 규방에서 바르게 자라다가 정혼자를 위한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가출하고, 정혼자 가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삶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장양문록』의 조력자 윤선강은 장벽계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발적으로 동성혼인을 선택한다. 그래서 시종일관 장벽계를 지지하고 따르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남성인물과 결혼한 뒤에도 윤선강은 남편의 말보다 장벽계의 말을 따르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와 반대로 『재생연』의 조력자 소영설은 우연한 계기로 동성혼인에 휘말린다. 그래서 동성혼인 과정에서도 여성영웅에게 정체를 밝히기를 꾸준히 권유하고 여성영웅이 이를 거부할 때마다, 또는 남성인물이 피해 입을 때마다 여성영웅을 원망한다. 한편 윤선강과 소영설은 조력자로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형상화되지만 여성영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남성적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장애로 다가온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여성영웅 장벽계와 맹려군은 평생 남성적 삶을 실천하고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선택이 조력자의 혼인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사가 고민으로 다가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여성조력자 역시 여성영웅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의 남성인물은 여성영웅과의 혼인성취에만 골몰한다. 두 작품에서는 혼인을 성사하려는 남성인물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여성영웅의 서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남성인물이 일방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출할수록 이에 대한 여성영웅의 고민도 배가된다. 따라서 여성영웅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남성인물은 여성조력자의 존재보다 더 직접적인 고민으로 다가온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논의를 토대로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하였다. 우선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를 도출하고 그 원인을 양국의 문화사적 배경에서 찾았다. 이어 두 작품이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켜 거두는 효과와 의미를 밝혔다. 먼저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이 창작될 무렵 한중 양국에서는 사회 변동, 경제의 발전, 새로운 사상의 유입 등을 통해 여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양국 여성영웅소설에도 반영되어 장벽계와 맹려군이라는 여성영웅을 부각해 냈다.

그러나 세부적인 상황에서 조선과 중국은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중 양국에서 배출된 여성작가의 수(數), 여성 글쓰기에 대한 남성의 태도, 여성문집의 출판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조선이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차이로 구현된다. 즉, 한국 여성영웅소설에서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인 반면 중국의 경우 아버지가 여성 주인공이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거두는 효과와 그 의미를 밝혔다. 이는 서사의 흥미를 보장해주는 한편 독자들의 진지한 고민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은 여성영웅과 여성조력자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전개되는 서사를 긴요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여성지기(女性知己)와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혼인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남녀관계의 역전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독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하고 작품의 흥미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흥미성은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여성의 처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는 기타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을 무(武)로 활약하게 한 것과 구별된다. 여성영웅을 무(武)로 활약하게 하는 설정은 여성독자의 일시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지만 이러한 활약이 거듭될수록 현실성이 상실되어 집중도를 하락시킨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는 여성의 현실에 보다 가까운 문(文)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여성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사의 끝까지 유지시켰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여성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장양문록』과 『재생연』에서 작가가 문(文)으로 활약하는 여성영웅을 설정한 것은 독자들에게 여성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 여성영웅소설 『부장양문록』과 중국 여성영웅소설 『재생연』을 대상으로 두 작품의 인물형상의 특징을 밝히고 다양한 인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거두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차이를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두 작품만으로 한중 여성영웅소설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작품을 비교 연구하는 가운데 비로소 한중 여성영웅소설의 전모(全貌)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陳端生著, 『再生緣』, 郭沫若校注, 北京古籍出版社, 2002.
- 文康著, 『兒女英雄傳』, 天津古籍出版社, 2005.
- 박재연·이재홍·김영 교수, 『직심연전』 상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2005.
- 이상구 교수, 『방한림전』, 문학동네, 2017.
- 장경남·이재홍·김영 교수, 『직심연전』 하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2005.
- 조광국 역, 『홍계월전』, 문학동네, 2017.
- 『傅張兩門忠烈錄』, 천안미도민속관 소장 5권 5책.
- 『李學士傳』, 『활자본고소설전집』 7,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7.
- 『續修四庫全書』, 1745~174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하진양문록』, 동양문고 소장 29권 29책, 이대형 교수, 『하진양문록』 I II III 이회문화사, 2004.

### 2. 국내논저

- 장진옥, 「<이형경전>연구: 부도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_\_\_\_\_,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전용 양상-<유씨삼대록>, <명주기봉>, <부장양문록>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 김경미, 『家와 여성』, 여이연, 2012.
-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명신, 「<호구전>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

- 소설학회』, 2009.
- 김명희 외,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문화사, 2003.
- 김영·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탄사의 전래와 새 자료 한글 번역필사본, <옥천연>에 대하여」, 『中國語文學誌』 48, 중국어문학회, 2014.
- 김정녀, 「<부장양문록>의 옥망 구조 연구-남주인공의 옥망 실현 과정과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 \_\_\_\_\_,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방식-<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학연구』 28, 한민족문화연구, 2009.
- 김하라, 「<방한립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 김홍영, 「한중 여성영웅소설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 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악어문학』 27, 동악어문학회, 1992.
- 박재연, 「낙선재본 <재생연>에 대하여」, 『중국어학 연구』 7, 1992.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 학회, 2006.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들베개, 2008.
-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
- 신재홍, 「재생연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립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 이문성, 「조선후기 여성층의 독서 취향, 그 편린-<부장양문열효록>의 여성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3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5.
-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 이병직, 「<부장양문록>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 형상 연구』, 보고사, 2012.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 이춘희, 「清代 女作家 彈詞小說의 여성 감성 구조: 陳端生과 孟麗君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 \_\_\_\_\_, 「清代 文化와 女性 彈詞小說 作家-詩壇상황과 作家意識의 단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1988.
- 장단,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한시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 연구』 6, 국문학회, 2001.
- \_\_\_\_\_,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藏靑君, 「<재생연>의 남장여자 형상연구-맹려군과 위용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전기화, 「<여와전>연구:여성 ‘비평주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 정병설, 「낙선재본 <재생연전>연구-번역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 \_\_\_\_\_, 「바늘과 칼:여장군소설의 몇 장면」, 『문헌과 해석』 11, 2000.
- \_\_\_\_\_,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0.
- \_\_\_\_\_, 「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고전소설의 창작시기와 창작과정에 대한 가설」,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 \_\_\_\_\_,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학회, 2002.
- \_\_\_\_\_, 『완월희맹연 연구』, 태학사, 1998.
- 정병헌·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조광국, 「고전소설교육에서 새롭게 읽는 재미:홍계월의 양성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홍계월전> ‘한중연 45장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혜란, 「<숙녀나지기>에 나타난 여성지기 형상화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 서설』, 한양어문 1,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 진동원 지음, 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길용, 「한중 고소설 <방한림전>과 <요화전>에 나타난 혼인기피담의 비교 연구」, 『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잡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장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한길연, 「탈속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국문학연구, 2002.

### 3. 외국논저

- 霍彤彤, 「<再生緣>女性意識背後的男性意識」, 新疆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 盧振杰, 「女性文學視野下再生緣對傳統女性意識的超越」, 長春教育學院學報, 2004.
- 李姝姪, 「從<再生緣>到越劇孟麗君-談孟麗君形象的改變」, 濟寧學院學報, 2012.
- 李秋菊, 「對<再生緣>之戲曲及影視改編現狀的思考」, 大舞臺, 2012.
- \_\_\_\_\_, 「彈詞<再生緣>結局新析」, 湘潭大學碩士論文, 2004.
- 李秋菊·尹平平, 「論<再生緣>改編本的種種結局」, 時代文學上, 2010.
- 馬清福, 『文壇佳秀:婦女作家群』, 遼寧人民出版社, 1997.
- 方紅, 「<再生緣>與女性文學(二)」, 黃石教育學院學報, 2000.
- \_\_\_\_\_, 「<再生緣>與女性文學」, 黃石教育學院學報, 2000.
- 王娜, 「<再生緣>戲曲改編研究」, 沈陽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王夢玉, 「<再生緣>悲劇性探析」, 揚州教育學院學報, 2011.
- 張俊, 「<再生緣>三論」, 重慶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 鄭振鐸, 「西諦所藏彈詞目錄」, 小說月報 17卷, 1927.

- 曹佳麗, 「“最好的時代”與“最壞的時代”—從文藝創作看明末清初女性審美觀的矛盾衝突」, 四川戲劇, 2016.
- 趙延花, 「女性追求平等的先聲—論彈詞<再生緣>中主人公孟麗君的思想價值」, 內蒙古大學學報, 2004.
- \_\_\_\_\_, 「論梁德繩續<再生緣>的大團圓結局和封建社會的倫理觀」, 語文學刊, 2007.
- \_\_\_\_\_, 「孟麗君性格中的倒錯現象探因」, 前沿, 2007.
- 趙越, 「<再生緣>中女性意識的覺醒及其悲劇結局」, 安徽文學, 2008.
- 趙會娟, 「關於<再生緣>結局的一點看法」, 長春師範學院學報, 2004.
- 朱新荷·郝青雲, 「清代彈詞小說<再生緣>與現代蘇州彈詞本<再生緣>之比較」, 內蒙古民族大學學報, 2010.
- 陳娟娟, 「女性自我意識覺醒道路上的遠行者—<再生緣>中孟麗君形象論析」, 全國中文核心期刊藝術百家, 2006年
- \_\_\_\_\_, 「論<再生緣>及其戲曲改編」, 藝術百家, 2007.
- 陳寅恪, 「論<再生緣>」, 『寒柳堂集』, 生活 讀書 新知 三聯書店, 2009.
- 秦天, 「陳文述與碧城仙館女弟子」,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6.

中文摘要

# 《傅張兩門錄》與《再生緣》的 人物形象比較研究

李美子

首爾大學 研究生院

國語國文系 國文學專攻

本文是對韓國長篇女性英雄小說《傅張兩門錄》及中國長篇女性英雄小說《再生緣》的比較研究。對於韓中兩國的女性英雄小說的比較研究，歷來局限於短篇小說中。但短篇小說的通俗性與大眾性較強，因此無法像長篇小說一樣深刻地體現女性意識。為了深入理解兩國的女性英雄小說，本文將長篇女性英雄小說《傅張兩門錄》與《再生緣》為對象，分析其人物形象的特征，並多方面考察其人物所具用的意義。進而結合韓中兩國的時代背景，導出韓中兩國女性英雄小說的差異。

《再生緣》的女性英雄皇甫長華和衛勇娥為了體現“孝意識”，憑藉“武術”展示才能，活躍於男性領域。因此在實現重建家門的目標後，自然地回歸於女性領域。相反《傅張兩門錄》的女性英雄Changbyekkye與《再生緣》的女性英雄孟麗君，由於其自身的對壓迫女性的封建制度的問題意識，憑藉“文”方面的才能，邁入男性領域，並拒絕結婚。Changbyekkye與孟麗君的女性身份被曝光後，兩人重回家門，但依舊處理與男性領域有關的政事。因此相較於皇甫長華和衛勇娥，Changbyekkye與孟麗君對當時女性所處的現實具有更深刻的認識。

《傅張兩門錄》的女性助力者Yunsungang在已知女性英雄的真實身份

後，自發選擇與其進行同性婚姻并支持女性英雄。Yunsungang在與女性英雄共同走進異性婚後，依然更加服從于女性英雄。相反《再生緣》的女性助力者蘇映雪是在機緣巧合的情況下被迫捲入同性婚姻，因此蘇映雪在同性婚姻其間，不斷奉勸女性英雄，表明其真實身份。當女性英雄拒絕表明真實身份時，或男主人公因女性英雄受到牽連時，蘇映雪便產生抱怨的情緒。雖然Yunsungang與蘇映雪在支持女性英雄的態度方面有所不同，但對於女性英雄來說，她們的阻礙作用卻是一致的。《傳張兩門錄》與《再生緣》的女性英雄強烈地拒絕婚姻，然而女性英雄的這一行為將直接影響助力者的婚姻，因此在女性英雄選擇拒絕表明身份，拒絕婚姻時，無法不考慮助力者的處境。從這一方面來看，女性助力者依然對女性英雄起到阻礙作用。

《傳張兩門錄》與《再生緣》的男主人公一心只求能與女性英雄步入婚姻。作品中描繪出一對積極求愛的男主人公與堅決拒絕婚姻的女性英雄。男主人公的求愛越積極女性英雄的處境越困難。因此，男主人公對女性英雄的阻礙作用可以說比助力者的阻礙作用更加直接。

《傳張兩門錄》與《再生緣》通過Changbyekkye和孟麗君成功塑造出了具有先進意識的人物。這種先進體現在女性開始對封建制度產生懷疑并拒絕束縛。同時此類先進人物是在兩國社會變動，經濟發展，新思想的流入等大背景下產生的。但進一步究其兩國的情況，從女性作家的數量，男性對女性寫作態度等方面來看，中國較當時朝鮮更加開放。這種開放的環境體現在父親對女性英雄的態度上。在中國的女性英雄小說中，父親多被塑造為支持，幫助女性英雄的形象。相反韓國的女性英雄小說中，父親多被塑造為反對女性英雄的形象。這一點是韓中女性英雄小說中的顯著差異。

《傳張兩門錄》與《再生緣》通過描寫女性助力者與女性英雄間的同性婚姻，為女性讀者提供了一種新的生活方式，為小說注入新鮮活力。同時在異性婚姻過程中，通過上演一場男追女的故事，使女性讀者獲得在現實生活中無法得到的快感。由此可見《傳張兩門錄》與《再生緣》通過女性助力者、男性人物的塑造增加了小說的趣味性，從而使女性讀者更加沉浸在小說中。然而確保小說趣味性這一行為，其最終目的是為了喚起女性在封建制度下對其自身生活的思考。兩部作品讓Changbyekkye與孟麗君憑藉“文”方面的才能活躍於男性領域，“文”的領域更加貼近女性的實際生活，在這一領域女性受的制限相對較少。因此讓女性英雄在“文”的領域展示其能力，可使女性讀

者產生共鳴,從而更好地引導女性在封建制度下對其自身地位、現實的思考。

綜上所述,《傅張兩門錄》與《再生緣》塑造多個個性鮮明的人物是爲了更好地引導女性在封建制度下對其自身地位、現實的思考。

**關鍵詞：**傅張兩門錄, 再生緣, 人物形象, 女性英雄, 女性意識, 比較研究

**学 號：**2015-22271